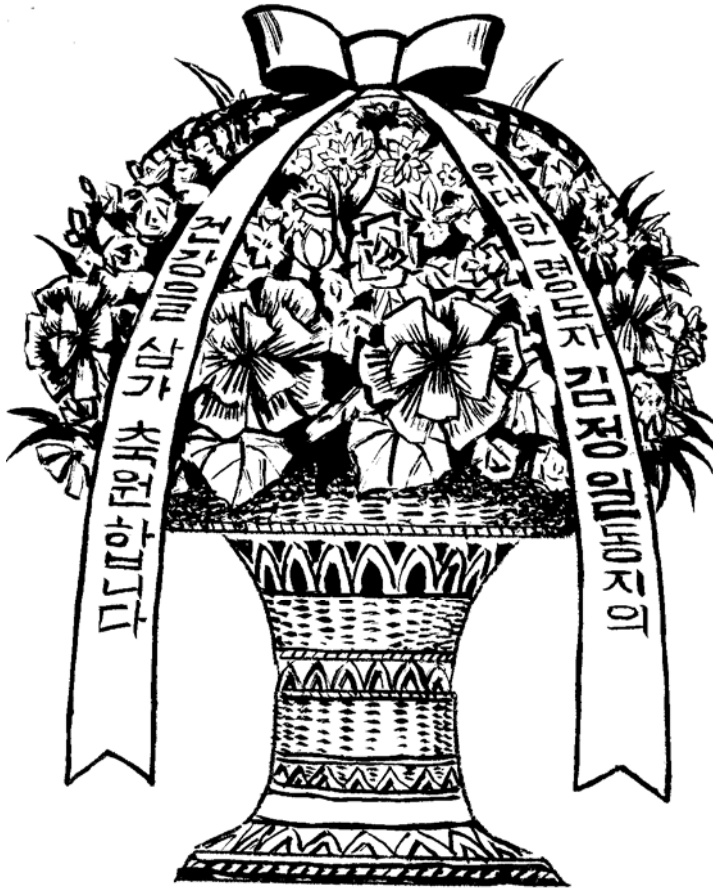


1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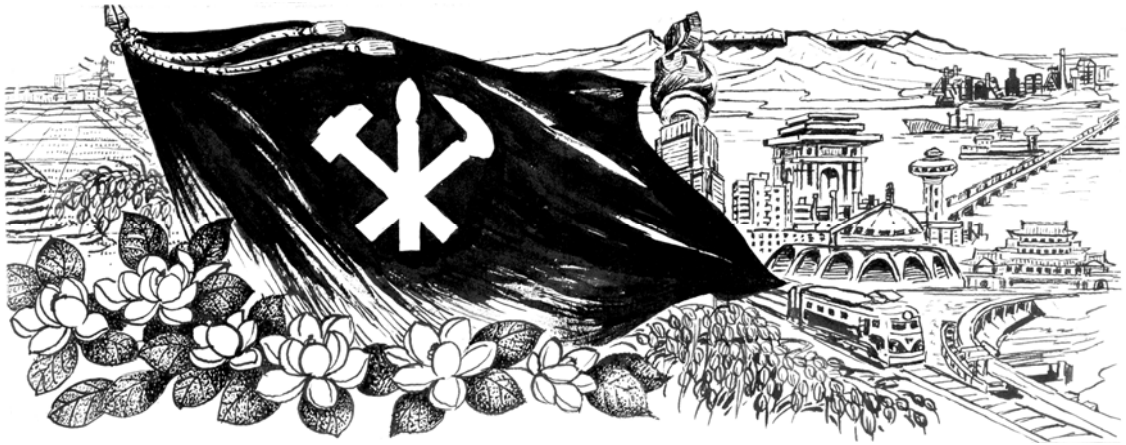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선장을 삼가 추원합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1호

(루계 제735호)



차 례

만민의 흠모, 다함없는 축원

○숨시○	축원의 마음	조영일(4)
머리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선군문학창작에서 양양을 일으키자	(5)
	우리의 새해(시)	박현철(7)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8)
☆금수산기념궁전전설☆	태양의 성지에 찾아온 고니	김우경(8)
	주체문학의 대강	(9)
	년하장(시)	백하(9)
○혁명일화○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10)
	아, 우리 장군님 외 2편(시)	류동호(11)
	조국이며, 이 병사를 불러다오(시)	채동규(10)
	최전연의 서정(시)	리찬호(14)
수필	1월	김진경(15)
	길이 끝나는 땅에서	정영종(20)
□장시□	나는 심장으로 노래한다	김덕선(22)
◇평론◇	랑만의 나래를 펴라, 선군시가여	리동수(17)
	자랑찬 시대와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공감과 매혹	최언경(26)
○○○○○	생의 끝까지 최대의 마력을!	백보흠(12)
새해 결의 류음	선군시가문학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변홍영(12)
	새로운 시대와 현실에 맞게	리정수(13)
○○○○○	선군시대의 기념비적명작창작을 적극 선도하겠습니다	김봉민(13)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나라를
일떠세웁니다.

김 정 일

새해공동사설에 발맞추어 조국이며 앞으로!

강선사람들	계 훈(16)
◇ 새 전기로에선 쇠물이 끓고	류 춘 선(19)
시 새 전기로에 부치여	김 춘 식(21)
강철로만 통한다	김 학 룰(38)
◇ 배짱도 커지고 욕심은 더욱 커져	백 정 남(38)
내 삶의 자욱	김 춘 길(61)

단 편 소 설

오늘과 래일	리 정 수(30)
재령처녀	동 의 희(39)
뿌리와 열매	최 상 기(62)

단편소설 자물쇠	박 성 진(47)
고향의 언덕에서 (시)	로 미 향(25)
불타는 노을 (실화문학)	정 철 학(56)
□시초□ 내 고향의 영웅들	박 응 전(70)
《군고구마매대》가 풍기는 향기(단평)	김 청 송(72)
우리 섬 독도(가사)	곽 명 철(73)

자 료

시집 《진달래꽃》을 통하여 본 소월 시의 향토적특성	김 송 미(74)
반일애국적인 작가 최룡사의 소설에 대하여	계 은 희(76)
피압박인민들을 뜨겁게 동정한 바이런 시들의 특징	송 혁 철(78)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인민○ 금속활자	(38)
《후채》(고전소개)	(80)

축원의 마음

조영일

환희로 한껏 부푼 가슴마다에
제일먼저 깃드는 소원이 있어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가장 깨끗한 그 마음 안고
우리모두 맞이하는 새해의 이 아침

가슴이 벅차도록
휘황한 앞날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온 한해 거듭되는 강행군길에 계신 장군님
새해의 이 아침에도
우리 먼저 그 길을 이어가실 아버지장군님

이 나라 병사들과 인민들이
장군님께 아뢰고싶은 말이 있다면
그이의 건강을 바라는 그 한마디
간절한 그 마음 하늘에 닿았건만
내리는 찬눈비는 자신께서 다 맞으시고
이 땅우엔 해빛만을 안겨주시여라

그래서 아니더나
찾아주신 초소의 병사들 가슴에도
다녀가신 건설장 돌격대원들 마음에도
쌓여만지는 간절한 그 소원
운명의 하늘이고 태양이신 우리 장군님
더는 험한 길을 걷지 말아주시었으면

강성번영의 지름길을 열어가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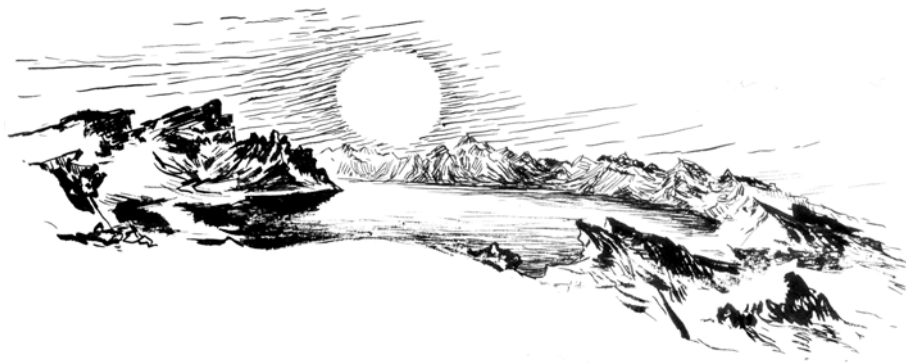
장군님의 헌신의 그 길우에
언제나 푸르디푸른 하늘만이 펼쳐여지고
따뜻한 봄날의 꽃길만이 열리고
풍요한 가을의 들길만이 열려지기를

맞고보낸 이 땅의 한해도
소중히 품고있는 그 마음으로 새겨지고
밝아오는 이 땅의 새해도
간절한 그 소원으로 시작되거니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그 마음
해가 갈수록 더해만지는 그 소원 안고
장군님을 따라서는 걸음마다
행복의 봄꽃은 더 활짝 피어나고
풍요한 가을의 이삭들로 설레이리

일터마다 변혁의 기상은 내려쳐
강성부흥의 지름길을 내닫고
건설장마다 총공격의 열풍으로
새 기적은 창조되어
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지려니

아 존엄높은 나의 조국
무궁번영할 선군조선의 미래이신
아버지 우리 장군님
병사들과 인민들의 간절한 그 소원안고
부디 안녕하시라!
언제나 건강하시라!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선군문학창작에서 양양을 일으키자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질 사회주의 내 조국에 주체98(2009)년의 새해가 밝아왔다. 새해 우리 당이 제시한 공동사설을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승리자의 신심드높이 선군시대를 더욱 빛내일 왕성한 투지와 락관에 넘쳐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갈 확고한 결의에 차넘쳐있다.

우리 작가들도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하며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낼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지난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돐을 맞이하여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혁명임무수행에서와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 군사적위력을 강화하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에서 커다란 비약을 일으킨 승리와 영광의 뜻깊은 해였다. 지난해에 우리 작가들은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창건 6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전국문학축전에 참가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소설, 시, 아동문학, 평론 등 문학의 모든 형태에 걸쳐 새롭고 특색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어 주체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는데 기여하였다. 분과마다 작가들이 전국문학축전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창작적재능과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할수 있게끔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주고 문학건설의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인 노력으로 풀어갈수 있게끔 문학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경험은 창작지도일군들과 작가들이 문학운동에 대한 옳은 판점과 태도를 가지고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짜고들어 창작사업을 조직하고 더욱 힘차게 내밀 때 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올해 우리 작가들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승리의 신심높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문학작품창작에서 보다 큰

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사회주의조국의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필수적요구입니다.》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을 더 높이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작가들과 일군들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의 의도에 따라 해결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

작가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주체의 문예관을 확고히 세우는 것은 올해문학작품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창작리론을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고 주체적문예사상의 요구대로만 창작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올해에도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을 보다 왕성하게 창작해내어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과 일군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결사옹위의 정신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혁명적신념과 의리가 깊이 간직되어있을 때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형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혁명전사답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데 길동무가 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나아가야 한다. 선군시대 현실을 떠메고나가는 우리 시대 긍정적주인공의 빛나는 형상은 주제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며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산모범으로 된다.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작가들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이바지할 작품창작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조국보위의 핵심력량이다. 작가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억세게 준비된 백두산혁명강군인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모습과 높은 정치사상적품모,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관병일치의 미풍, 군민대단결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치기 위한 사상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의 중요한 생활소재는 강성대국건설의 중요전선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농업 등 인민경제 각 부문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모습이다. 작가들은 경제건설을 다그쳐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사회주의경제강국으로 일떠세워야 선군조선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선 근로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보다 참신하고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이들의 투쟁을 힘차게 떠밀어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일심단결주제의 작품창작에도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근본핵은 혁명의 수뇌부이며 따라서 군대와 인민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도록 하기 위한 일심단결의 주제작품창작에 힘을 넣음으로써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쳐 장군님의 사상

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는것으로 된다. 여기서 기본으로 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이 들고나아가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이고 기치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온 겨레와 민족의 거족적인 투쟁을 폭넓게,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계급교양, 혁명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 커다란 힘을 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을 지니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의 정치사상적진지를 허물고 일심단결을 파괴하려는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리명박역도패당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농들의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짓부시기 위하여 작품창작에서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풍조의 자그마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경종을 울리고 철저히 짓밟개버림으로써 주제문학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나아가야 한다.

뜻깊은 올해의 창작전투는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명작창작으로 뜻깊게 맞이할 거대한 전변의 하루하루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명작은 작가들의 높은 정치적식견과 안목, 예술적기량에 의해서만 나올수 있다. 작가자신의 꾸준한 현실체험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피타는 노력, 선군시대 긍정적주인공들의 생활에 대한 부단한 탐구와 사색, 당정책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예술적 흥미를 보장하기 위한 풍만한 창작적환상을 무르익혀야 명작창작의 《알찬 열매》를 거둘수 있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인들은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승리의 그날을 내다보며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작품창작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 리 의 새 해

박 현 철

좋다, 우리의 새해
정초의 찬바람도 따스하구나
송이송이 하얀 눈은
축복의 꽃보라로 무늬를 짜누나

철없던 소년시절
한살 더 먹는 나이가 좋아
눈판우에 덩굴며 뽕박질하던
그 시절 그때처럼
좋다 좋구나, 2009년이어!

사연도 많았던 2008년
공화국창건 60돐을 빛내이자고
뛰고 달리며 땀도 많이 흘렸지
온 한해 창조로 위훈의 탑 쌓으며
그 얼마나 많은 일 우리 했던가

그러나 돌아보면
더 잘하지 못한 그런 일 두고
자책도 후회도 없지 않다만
량심만은 내리는 흰눈처럼 티가 없으니
새해여, 너와의 상봉 부끄럽지 않아라

2009년이어, 어디 한번 말해보자
태어나 지금까지 맞고보낸 새해들중에
추억에 남지 않는 해 한번도 있었던가
언제나 기쁘고 즐겁던 새해
언제나 반갑고 희망찼던 새해

움겨쥔 주먹으로 피눈물을 훔치던 그때에도
끝없는 슬픔에 가슴을 치면서도
비관과 절망만은 내 몰랐거니
다박술초소에서 선군의 기치 더 높이 드신

아버이장군님 새해의 진두에 서계셨기에

아, 그때로부터 몇몇해였더냐
《고난의 행군》, 강행군...
허나, 허리띠를 조일 때에도
새해는 나에게 언제나 좋았다
신념이 있고 배짱이 있고 미래가 있었기에

그렇다, 2009년이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2012년 그날을 향해
큰 자욱 움썰 또 한번 내여디딜 새해여

고난이 우리 앞길 또 막아서라지
찬바람이 그냥 기승을 부리라지
천만에, 그 모든것 2009년이어
네앞에선 한갓 추풍락엽이다
우리의 머리에선 선군태양이 눈부시거니

우리 앞길 밝히는 그 태양은
낮에도 밤에도 꺼지는 법 없어라
그 태양아래서 새해에도 총을 잡고
푸른 들을 가꾸며 오곡을 살찌우리
언제를 쌓고 물길을 열며 부강조국 받들리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 수월치 않아
해야 할 일 천만가지 그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해야 할 일 오직 하나 선군태양 따르
는 길

그 길에서 새해여, 너를 빛내가리라
그 길에서 새해와 새해들을 떨쳐가리라

아 좋구나, 우리의 새해 2009년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는 아버지의 원수, 우리 일가의 원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떠날 차비를 하였다.》

《나는 돌아서서 강둑우에 나뭇구는 조약돌을 하나 집어 들고 손바닥에 감싸쥐었다. 조국의 표적이 될수 있고 조국을 추억할수 있게 하는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서 소중히 간수하고싶었다.

그날 압록강가에서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심리적체험을 하였다.》

《나는 설움과 비분을 안고 조국산천을 몇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 압록강만 건너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냐.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

태양의 성지에 찾아온 고니

주체90(2001)년 새 세기의 첫 설명절날이었다.

이날 금수산기념궁전의 한 일군은 설명절을 맞으며 아버지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맞이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오후 4시경, 화강석을 깬 궁전광장을 가로질러 정문쪽으로 가던 그는 머리우에서 갑자기 《꼭꼭...꾸룩꾸룩》하는 소리가 들려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백조라고 부르는 고니 한마리가 큰직한 날개를 활짝 펴고 금수산기념궁전의 상공을 유유히 날아왔다. 커다란 원을 그리며 궁전의 푸른 상공을 여러바퀴 빙빙 돌고난 고니는 점차 고도를 낮추며 그로부터 얼마간 떨어져있는 아버지수령님의 영생탑쪽으로 미끄러지듯 날아갔다.

영생탑의 상공에 이른 고니는 마치 무엇을 애라게 찾는듯 이곳에서도 탑주변을 빙빙 돌며 떠날줄을 몰랐다.

설을 맞으며 명절분위기에 휩싸여 거리를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원래 고니는 우리 나라의 동해나 서해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면 또다시 추운 지대로 날아가는 철새이다. 겨울에 백여마리 혹은 수십마리씩 무리지어 강하천이나 바다가에서 사는 고니가 평양에 날아든것자체가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그런데다가 고니의 움직임이 하도 신동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얼마후 어디론가 멀리로 날아갈줄로만 알았던 이 새는 날개를 접으며 곧바로 금수산기념궁전주차장의 넓은 공지에 내려앉았다.

일군은 땅에 내린 고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고니는 주차장의 한복판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바라보며 마치 설인사를 드리듯이 고개를 숙이는것이였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마치 옛 전설의 희한한 광경이 그대로 펼쳐진듯 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말 못하는 고니가 금수산기념궁전을 향하여 설인사를 드리는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저는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하늘이 낸분이 분명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머나먼 고장의 새까지 날아와 위인을 경모하여 인사를 드렸다는 사실은 그 누구나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얼마후 고니는 푸드득 깃을 치며 금수산기념궁전 상공을 유유히 날아오더니 푸른 창공을 향해 끝없이 솟구쳐올라갔다. 히말라야의 주물랑마봉도 날아넘는다는 고니는 비행높이가 9 000m로서 이 세상 새들중에서 제일 높이 나는 새이다.

고니가 가물가물 흰 점이 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머리엔 부지중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예로부터 흰 새는 하늘나라새라고 하였는데 저 흰 고니는 천조가 아닐까? 새 세기 설명절날 아버지수령님께 하늘나라의 인사를 전하고자 날아 내려온 전령임이 틀림없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내고 땅이 받들 어울린 절세의 위인이시여서 온 우주가 그이를 경모하는것이다.

김 우 경

주체 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지성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형상세계의 이성적인 높이를 의미한다.》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성적인것의 높이가 다른아닌 작품의 지성도이다.》

《작품의 지성세계는 내용과 형식의 모든 요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표현된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자면 새로운 철학세계와 미의 세계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깊고 새로운 생활철학을 담은 작품은 사람들을 사색하게 만든다. 작품은 모든 사람을 깊은 사색의 세계에 이끄는 길만 한 심오한 문제성을 안고있어야 한다.》

년 하 장

백 하

끝없는 행운에 가슴 높뛰던
그해의 선달 그믐날이었노라
친애하는 그이를 처음 만나뵈온
누를길 없는 기쁨을 송이송이에 담아
새해축원의 꽃을 엮던
바로 그 저녁이었노라

희한스레 물든 저녁노을아래
이 어인 일인가
너무도 뜻밖에 그이 보내주신
새해년하장!
황송하고 송구하여
두손에 받쳐든채 굳어진듯
나는 가슴만 울렁이었노라

전사가 축원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이 먼저 보내주신 년하장
그리도 겸허하시고 다심하신가
그리도 전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자꾸만 자꾸만 두눈이 후더이 젖어들었노라

말없이 한가슴에 흘러드는 뜨거움
따뜻이 품어주시는 한없는 그 자애로움
나는 그 년하장을 품에 안고
끝없는 영광에 휩싸여 한해를 살았노라
온 한해를 날마다 설날로 살았노라

보람찬 혁명의 길에 나서서

위대한 령도자의 년하장을 받고 사는
그런 전사의 영광이 또 어디 있으랴
그런 행복을 어디 가서 찾으랴

하지만 장군님 다음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사랑의 년하장을 보내주시었노라
선달 그믐날이면 어김없이

은정의 해와 해를 보내며
나는 알았노라
언제나 믿음을 먼저 주심은
그이의 사랑의 철학이었노라
언제나 심장을 먼저 주심은
그이의 령도의 법칙이었노라

정녕 그 믿음 그 사랑이 있어
나는 고난의 해들을 웃음으로 헤쳤노라
참기 어려운 때는
내 그 년하장들을 꺼내보았노라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솟았노라

아, 목숨같은 사랑의 년하장들
내 저 하늘중천에 높이 걸어
이 은정 천만년 전하고싶구나
장군님의 그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고싶구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하나의 공장을 건설해도 인민의 리익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분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입니다.

언제인가 나라의 경제적발전에 큰 의의를 가지는 공장을 새로 건설할 때의 일이다.

그때 공장건설을 맡은 일군들은 원료, 연료 등 보장조건들을 고려하여 동해안지방에 흐르는 성천강상류의 한 지대에 그 공장 건설부지를 정하고 이 사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드리었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성천강상류에 건설한단 말이지 하고 조용히 뇌이시며 오래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그날 밤 공장건설부지문제를 두고 여러모로 생각하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음날 이른새벽에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성천강상류의 그 지대에 공장을 건설하면 주민지구가 오염될 위험성이 없겠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은 그곳에 공장을 지으면 당장은 일없으나 앞으로 공장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영향을 좀 받을것 같다고 사실그대로 말씀드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도 바로 그것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다고 하시면서 공장부지를 다른 곳에 잡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었다.

그러시고는 즉시 해당부문 일군들을 그곳에 내려보내시었다.

그때로부터 며칠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그 일이 못내 걱정되시어 또다시 현지의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어 공장부지확정여부를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그 일군은 여러곳을 답사한 끝에 다른 곳에 부지를 잡았다는것과 그렇게 정하고보니 본래의 위치에 비하여 원료나 연료 등 수송조건이 불리하여 국가가 경제적인손실을 볼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지를 다른 곳에 잡았으면 그곳으로 락착짓자고 하시면서 공장부지를 정하는데서 원료보장조건과 수송조건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그것이 인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를 심중히 고려하는것이라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큰 리익이 나는 일이라 해도 인민들에게 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일군은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천강류역의 사람들은 모두가 크나큰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활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말없이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아버이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을 다시금 가슴벅차게 느꼈기때문이었다.

조국이며, 이 병사를 불러다오

채 동 규

그 어떤 이름난 영웅도
날 때부터 병사인것이 아니다
타고난 용사란 없어
내 복무의 첫걸음부터
참으로 힘겨울 때 많았지

눈섭조차 무거운 행군길에서
걸으면서 자고
자면서도 주먹밥 먹던 때도 있었다
군복은 땀에 젖어 마를새 없었다

수리개 스쳐나는 아슬한 벼랑길이라
얼음장 서격이는 도하장이라
훈련의 극한점 넘어
떡최가 불속에서 강철로 버려지듯
쨍쨍 쇠소리나는 병사가 태어나는것 아니
더냐

군공 세울 열망을 안고
혁명의 군복입은 병사
조국애로 불타는 심장도
사선천리 헤쳐갈 담력과 용맹도
훈련의 나날속에 익세게 키워가나니

리수복, 그도 타고난 병사는 아니었다
길영조, 그도 타고난 용사는 아니었다
그 어떤 우연이 영웅을 낳는다 생각지 말라
맹렬한 훈련속에, 성실한 복무의 일과속에
빛나는 위훈 무비의 영웅성이 있다

나는 조국수호의 제1선에서
결사옹위의 총검높이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병사
결전의 날이 오면
전호의 발흥차고 육탄되어 날으며
이 땅 한치한치에 쏟아붓는 열렬한 사랑을
피땀으로 목숨으로 검증하리니

조국이며, 불러다오
이 병사를 불러다오
필승의 정신력과 육체력
멸적의 무자비한 타격력으로
만탄창된 선군용사는
한초한초 격동상태에 있다
조국수호성전의 순간순간에 산다

아, 우리 장군님 외 2편

류 동 호

우리 장군님
내 스스로없이 찾는 그 부름
순진하고 깨끗한 어릴적 그 목소리로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찾는
그 부름은 내 불타는 사랑입니다

우리 장군님
가장 기쁠 때에 찾는 그 부름이
눈물젖는 행복이라면
가장 어려울 때 찾는 그 부름은
피끓는 심장의 믿음입니다

인생의 첫 기슭에서
숨결처럼 간직한 그 이름
삶의 행복도 미래도 다 말기고
우러러 따르며 받드는
그 부름은 내 한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부모들이 그렇게 부르고

나의 자식들도 그렇게 부르는
우리 장군님 친근한 그 부름은
혼연일체란 그 말의 대명사입니다
일심단결이란 그 말의 대명사입니다

시처럼 아름답고
불길처럼 뜨겁고
백두산처럼 성스러운 그 부름은
설레이는 행복의 노래입니다
우뢰치는 승리의 만세입니다

우리 장군님
선군시대의 참모습이 어려있고
강성대국의 미래가 비껴있는 그 부름은
태양민족의 아버이를 우러러 드리는
조국과 인민의 가장 높은 칭호입니다

아 우리 장군님!
아 우리 장군님!

그대는 나 나는 그대

그대는 나 나는 그대
그 뜻을 지닌 심장 동지가 되었네
한피줄을 받아안고 한숨결로 고통치는
동지의 그 심장에 다른 피 흐르지 않네
그대 위해 내가 있는 동지애의 세계에서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 우리가 산다
아 그대는 나 나는 그대

그대는 나 나는 그대
사랑에 끌린 마음 믿음에 불타네
한식술의 정 나누며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의 가슴에는 따로 둔 심장이 없네

그대 정이 나의 삶인 동지애의 세계에서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 우리가 산다
아 그대는 나 나는 그대

그대는 나 나는 그대
이 세상 끝이라도 손잡고 함께 가리
동지 위해 심장도 한생도 다 바치시는
위대한 동지 위해 아껴둘 생이 있으랴
그대 위해 나를 바칠 동지애의 세계에서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 우리가 산다
아 그대는 나 나는 그대

노 래

노래는 마음속에 솟구치는 서정의 샘물
퍼내고 퍼내어도 마를줄 모르는
량심의 맑고 푸른 호수
나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이어
나는 나의 노래에
그대의 거룩한 모습이 비끼게 하고싶다

노래는 고통치는 내 삶의 숨결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고 끝수 없는
열정의 거세찬 불길
내 운명 지켜준 고마운 조국이어

나는 나의 노래로
그대 붉은기의 필력임에 힘을 주고싶다

노래는 내 삶의 희망찬 천만리
끝없이 탄생하고 끝없이 메아리치는
혁명의 장엄한 진군가
내 한생 말긴 품 위대한 조국이어
나는 나의 노래로
최후승리 만세의 전주곡을 울리고싶다
김일성조국찬가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싶다

◇ 새해결의묵음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생의 끝까지 최대의 마력을!

저는 오늘 일흔살을 넘긴 나이에 또 한살을 먹습니다. 허나 선군의 노래 메아리치는 격동적인 현실은 머리에 흰서리를 얹은 저에게도 격랑같은 창작의 충동을 일으켜주고 번개와 같은 령감의 불꽃을 튀겨줍니다.

여생을 값있게 보내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해를 맞으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의의심장한 말입니다.

종착점을 가까이 바라보며 최대의 마력을 내어달리는 장거리달리기선수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인생의 행군길에서도 생의 끝까지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한다!》

새해에 스스로 찾은 답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기간 저는 당의 요구와 기대에 보답할수 있는 가치있는 작품을 쓴것이 별로 없습니다. 작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난날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도 여생에 더 마력을 내야 한다는 새로운 자각을 받아안게 됩니다.

지금 4.15문학창작단의 모든 작가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총서작품창작에 더한층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몸은 비록 늙었어도 수령형상문학창조의 성스러운 길에서 락오자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해방후 민주건국시기의 총서작품인 장편소설 《황금시절》(가제)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신 후 5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하여 이 땅에 살기 좋고 행복한 시대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지난날 마소처럼 천대받던 인민들이 수령님의 은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어 값높은 인격적대우를 받으며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되었으니 작품의 제목과 같은 그런 말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지금도 보람찼던 그 민주건국시기를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행복한 시절을 잊지 못해 추억하곤 합니다.

작품에서 저는 해방후 4년남짓한 기간에 이 땅에 천지개벽의 시대를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형상해야 할 창작적과제를 안고있습니다.

이것은 재능도 모자라고 육체적으로도 로쇠한 저에게 있어서 매우 아릅찬 과제입니다. 그러나 필사의 노력을 다해 기어이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수령님이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를 사람마다 심장으로 깊이 체득할수 있도록 작품을 선군시대의 걸작품으로 완성할것을 바로 이 선군시대가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욕망 하나로는 성사할수 없는것이 창작입니다.

이미 써놓은 저의 작품 초고에는 결함이 너무도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신심을 잃지 않고 집단에 의거해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견인불발의 의지로 창작전투를 벌려 새해안으로 이 작품을 완성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강반석어머님의 안도지구에서의 혁명활동을 기본내용으로 담은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하)를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전으로 창작완성할 목표를 세우고 열정의 불을 달리겠습니다.

실사 이 길에서 쓰러진다 해도 심장의 고동이 멎는 마지막순간까지 불을 놓지 않고 최대의 마력을 다 내겠습니다.

하여 저를 작가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창작성과로써 기어이 보답하겠습니다.

4.15문학창작단 작가 《김일성상》제판인
백 보 흠

선군시가문학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조국청사에 뜻깊은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마음은 감회도 깊고 절심도 큼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기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

분을 다하여온 우리의 선군시가문학은 이해에도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제1선에서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자기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주체의 불태,

선군의 붓대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히 받들어온 우리 시인대오는 영광의 수습성상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생사운명도 같이 하여온 그 신념의 한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불타는 열망과 결의로 충만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문학분과위원회앞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고매한 위인적풍모를 소리높이 구가하며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천만군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을 비롯한 선군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과 다양한 생활정서를 구현한 시가작품들을 명작으로 더 많이 창작해야 할 지상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젊고 패기있고 활력에 넘쳐있는 당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시인대오와 함께 새해의 이 빛나는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나는 로쇠가 없는 왕성한 정력과 기백으로 살며 일해나갈 것입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우리 시인들의 임무는 더없이 성스럽습니다.

우리의 선군시가문학은 새해에도 수령과 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시인들의 티없이 순결하고 열렬한 충정과 새롭고 독특한 향기로 하여 자기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더욱 만발하게 꽃피워나갈것입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위원장 변 홍 영

새로운 시대와 현실에 맞게

온 나라가 공화국창건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고 그 날에 받아안은 잊을수 없는 총격과 용기로 신심드높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 나는 새로운 창작전투에 들어가기 앞서 내가 걸어온 지난 기간의 창작생활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우리 당이 알고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남는 명작을 내놓았는가, 없습니까. 이렇다하게 소리칠만 한 작품을 내놓지 못한채 새로운 한해를 맞고보니 부끄러운감이 없지 않습니다.

문학을 지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이름이 후세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남기겠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되는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직 자기자신에게 달린것입니다.

나도 남들이 좋은 작품을 써낼 때면 나라고 왜 저들만큼 써내지 못하랴 하는 제판의 만만한 야심과 욕망으로 가슴불태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결코 열매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미전에 배워온 기성리론, 기성관념으로 어떻게 오늘의 벽찬 시대에 발을 맞추겠는가.

꾸준한 노력, 피타는 탐구, 불타는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바라는것이 크다고 하여도 그것은 새것으로 될수 없으며 한갓 꿈으로 남는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지 않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서기 위한 총진군을 벌리고있는 때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서겠는가 하는것이 작가이기 전에 나의 공민적 량심에 묻는 말입니다.

수령영생위업, 선군령장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자리에 놓아야 할 필생의 창작과제입니다. 나는 당에 바치는 순결한 마음,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수령형상문학창작에 있는 정열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당면하게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적인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화국영웅들을 원형으로 한 장, 중편소설창작전투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실력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습니다.

분발하자, 실력이 없이는 아무리 큰 욕망을 가져도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올해가 나의 창작생활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되게 하겠다는것이 새해를 맞으며 다지는 나의 결의입니다.

작가 리 정 수

선군시대의 기념비적명작창작을 적극 선도하겠습니다

공화국창건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주체97(2008)년을 보내고 우리는 지금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게 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결심도 새롭고 희망도 새로운 새해의 이 아침 우리 평론가들의 가슴은 남다른 결의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들은 시대를 선도하고 문학을 선도하는 평론가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시대가 기억하고 인민이 기억하는 그런 훌륭한 명작을 창작해나가도록 문학을 선도하는 쇠소리나는 평론을 쓰려는 야심만만한 투지와 배심에 차넘쳐있

습니다.

선배평론가들의 어깨우에서 더 멀리 내다보며
전진하자.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문학작품, 위대한 선
군시대의 기념비적명작창작을 젊은 새 세대 평론
가들 우리의 손으로 선도하자.

이것이 바로 나뿐이 아닌 젊은 평론가들, 모든
평론가들의 지향이고 포부이며 희망입니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과 당정책을 깊이 학
습하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문학평론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소설, 아동문학 등 문학의 다양한 형
태들에 대한 주체적문예리론학습을 꾸준히 실속있
게 진행하여 모든 문학형태들에 대한 정확한 사상
미학적기준을 가지고 평론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
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학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이색적
인것에 대하여 경각성있게 대하며 그것이 나타나
는 경우에는 새 세대 평론가의 예리한 눈으로 정
확히 식별하고 우리 문학에 자그마한 잡사상도 스
며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평론가의 발견이 없고 창작에 도움을 주지 못
하는 구태의연한 평론들에 전면도전하여 평론
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탐구하는데서도 새 세
대 평론가다운 정열과 대담성을 적극 발휘해나가
겠습니다.

평론은 나이와 년한과 경험으로 한다고 보았던
지난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색
하고 탐구하여 자신의 실력을 부단히 높여나가겠
다는것을 새해를 맞으며 굳게 결의하게 됩니다.

평론가 김 봉 민

최 전 연 의 서 경

리 찬 호

총과 총의 서리발
번뜩이는 철갑모...
일촉즉발의 대결에
안개마저 얼어붙는 최전연

허나 신비론 풍경이여라
숲속의 버섯같은 의자마다엔
책읽기에 여념없는 병사들의 모습
속사수첩에 연필화를 그리며
열정에 불타는 사색의 눈동자들

병실마다에선 은은히 울려오는
노래소리 시랑송소리
좌좌 흐르는 산개울의 너럭바위우에선
파아란 물 듬뿍 찍어
서예솜씨 자랑하는 살찐 붓초리들...

여기가 최전연이란 말인가
불과 불이 마주서고
만탄창된 총대에서 불뿜는 소리
금시라도 대지를 찢어발길 여기에
봄아지랑이마냥 피어올라
병사들을 포근히 감싸안은것 -

그것은
총과 폭탄만이 아닌
사랑으로 병사들을 키우시는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스승의 값높은 믿음!

오,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초소마다 총탄처럼 소설책을 주시고
훈련기재처럼 서예도구도 주시고
노래반주기재도 보내주셨다
천출명장의 위대한 지성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전선에 주고 또 주신다

웅심깊은 그 사랑속에
무성해지는 천리전선의 거목들
명령과 구령으로 터칠 총폭탄이 아닌
시를 뿜으며 뜨거운 심장 웃으며 바칠
리수복 김광철 길영조들이 자라거니

푸른 하늘같은 조국애의 정서로
천만심장을 불러일으키시는분
위대한 백두령장의 휘하에
어찌 평범한 병사가 있을수 있으랴

영광이여라 행복이여라
김정일장군님의 병사들
정일봉의 장쾌한 우뢰소리에
위대한 선군시대가 폭풍치듯이
최전연의 아름다운 서정속에
오, 우리 총대의 승리가 밝게 웃노라!

1 월

김 진 경

1월은 자강도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처럼 어렵던 《고난의 행군》시기 강행군의 돌파구를 여시려 경애하는 장군님 처음으로 자강도에 오신 때가 바로 1월이었다.

지난해 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자강도에 오시었다.

지금도 가슴뜨겁게 추억되는 현지지도의 날들, 그 파정에 꽃피난 못 잇을 이야기들...

장군님께서 어느 한 토끼종축장에 들리셨을 때였다.

너무 기뻐 친정아버지를 만난듯 발을 동동 구르던 종축장일군인 심정순녀성은 볼썽 솟구치는 생각에 몸이 굳어졌다.

아, 꽃피는 봄날이나 서늘한 가을날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가. 그런데 이렇게 제일 추운 때 오시다니...

그는 북받치는 감정을 이길수 없어 말쑤드렸다.

《장군님! 왜 제일 추운 날 오셨습니까.

자강도의 변모된 모습을 텔레비존화면으로 보시고 이렇게 추운 때는 다니지 말아주십시오. ...》

이것을 어찌 심정순녀성 한사람의 심정이라 하랴. 나는 생각이 깊어진다.

한해의 추위가 다 모인듯 땀뻘 날씨가 계속되는 북방의 1월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파스한 봄이나 풍요한 가을에 아니 오시고 1월에 오신것인가.

1월, 이 사나운 계절은 자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누구나 눈물겹게 체험하고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 《고난의 행군》, 그 엄혹한 《1월》이 있지 않았던가.

고난은 어느 고장 할것없이 바람처럼 휩쓸었지 만 산이 많아 옛날엔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웠다는 자강도의 경우에는 더 그러하였다.

바로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강도에 오시었다.

주체87(1998)년 1월, 신들메를 조이고 강계에 도착하신 우리 장군님 그길로 현지지도에 나서시었다.

나도 인민들과 같이 강행군을 하여야 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아보면 다 볼수 있다고 하시며 띄우개식발전소로부터 시작하여 장강1호발전소, 2호발전소, 전기화된 55동살림집, 장자산발전소, 북천3호발전소 등 10개가 훨씬 넘는 단위들을 하루동안에 돌아보셨으니 그이의 비상한 각오와 초인간적인 헌신앞에 누가 심장을 쫓이지 않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밤에도 쉬지 못하시었다. 건강을 걱정하는 일군들에게 나는 수령님께서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 강선을 찾으시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일으키신것처럼 강행군을 하는 오늘날에는 자강도를 모범으로 하여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더 긴장하게 일하시었다.

그때부터 1월은 차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장군님과 자강도인민들사이에 흐르는 혈육의 정으로 하여 이 땅엔 언제나 훈훈한 바람이 불었다.

한 공기밥을 나누어먹어도 배고픈줄 몰랐고 얼음물에 들어서도 발이 시린줄 몰랐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정에 고무된 수많은 사람들이 한덩어리로 일떠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공장엔 생산활성화의 세찬 동음이 울리고 농장 포전에선 두벌농사의 새싹이 푸르렀다. 전기화된 마을이 늘어나고 도로가 탄탄해졌으며 새로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들이 일떠섰다.

믿어주는 품이 있어 사람들은 시련속에서 강쇠처럼 억세어졌다.

우리 장군님 그 사람들이 보고싶다시며 또다시 이어가신 길은 몇몇천리만가.

여기엔 평지길만 있지 않았다. 높은 산, 험한 령 굽이굽이 흘러간 그 길들에 찍혀진 고귀한 발자취 우리 어이 다 세여볼수 있으랴.

세상에 어느 위인치고 이름없는 봉사자들이 가꾸는 산비탈 자그마한 뿔발에까지 올라가본이 있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깊은 골짜기 700고지 정점에 올라 집짐승때 흐르는 풀판을 보아준적 있었던가.

어찌 그뿐이라.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 길 이어서 가까운 친척들도 가보기 저어하는 탕림땅, 몹시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곳 인민들, 그들을 찾아 우리 장군님 넘으신 해발 1 000미터가 넘는 직령과 가룡령, 1 500미터를 헤아리는 황수령...

그러니 가슴마다 정을 받아안은 사람들 어찌 맨발로 따라나서지 않을수 있으며 목메인 만세소리 하늘땅을 진감하지 않으랴.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길은 락원의 행군을 가져왔다.

그런데 우리 장군님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진격이 시작된 지난해 1월 또다시 자강도에 오신 깊은 심중의 뜻은 무엇인가.

그때 강계시와 장강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데 이어 또다시 험한 령을 넘고 수

강 선 사 람 들

계 훈

여기 강선땅은
사시절 쇠물이 끓는 불의 도시
허나 누구나의 추억속엔
엄혹한 눈보라도 사납게 일어번지나니

그날의 그 눈보라를
쇠물의 불로 휘몰아내며
더더욱 붉게 피워올린 노을이 아름다운 곳

보라, 마치 신화속의 영웅군상마냥
너울치는 불길에 번쩍이는 적동색얼굴들
이들이 바로 어제와 다름없이
붉은 쇠물로 조국을 지키는
강선의 용해공들이다

눈내리는 구내길을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걸은
그 소중한 추억을 안고
한생을 마음이 젖어사는 사람들
그래서 구내길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

나쁜 놈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필필 끓는 로속에 처넣겠다고
50년대 시련의 그날에
그날에 터치던 심장의 고동이
오늘도 마주서면 툭 툭 메아리쳐오는
우리 강선사람들

그렇다
백두의 눈보라속에 피여난
만병초가 아름답듯이
시련의 그날 붉은기를 더 높이 들고
강철의 불을 지펴올린
강선사람들의 모습은 억세고 아름답다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쳐오면
저 쇠물의 불길로 불태워버리고
선군시대의 하늘가에
억센 강철의 음향을 찡찡 울리며
신념과 의지의 쇠물로
아름다운 노을을 피우는 사람들!

사랑에 보답해
믿음을 지켜
전설처럼 천리마는 나래쳐올랐고
오늘은 또다시 그들의 아들딸들이
새 전기로를 일떠세웠거니

아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래일도
강선의 하늘가엔 노을이 아름다우리
자력갱생의 노을
신념과 의지의 노을이!

백리길을 달려 도의 한끝에 있는 3월5일청년광산을 찾아주시였다. ...

1월은 분명 이전의 1월이 아니건만 우리의 장군님께서 아직도 신들메를 풀지 못하신다.

1월.

사나운 눈보라와 모진 추위로 하여 가장 엄혹한 시기로 일컫는 한해의 출발선, 력사의 한구간.

허나 따스한 봄과 록음길은 여름, 풍요한 가을을 불러오는 행복의 문어구.

나는 1월을 다시 생각한다.

1월은 깊어간다. 깊어가는 겨울은 봄을 의미한다.

봄! 자연의 봄은 저절로 오지만 행복의 봄은 절로 오지 않는다.

《겨울》을 이겨내는 인간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우리의 봄—강성부흥의 새봄이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장군님 오늘도 쉬임없이 《1월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1월현지지도, 진정 이것은 시련의 눈보라를 투쟁의 눈보라로 길들이는 여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준 위대한 강행군 길이었다!

1월.

1월은 마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한 강행군의 앞장에 자강도사람들이 서기를 바라시는, 시련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아름다와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변함없는 믿음처럼 안겨온다.

이것은 선군시대 모든 인간들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해마다 찾아오는 1월은 우리에게 더 많은것을 말해줄것이다.

허나 오늘의 《1월》은 영원히 가슴속에 남아있다.

1월. 눈보라계절, 봄을 불러오는 계절...

랑만의 나래를 펴라, 선군시가여

리 동 수

시는 시대를 앞서나가며 시대를 선도하는 기치로 되어야 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어야 한다.》

시대생활에 민감하고 시대와 생활을 선도하는것이 곧 시가이다.

시인의 사명은 시대를 따라가며 시대와 생활을 보여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시대와 생활을 선도하는데 있다.

시가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자면 시의 전투적기능과 호소적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전투적인 랑만의 미래를 펼쳐야 한다.

시는 현실의 긍정, 사실의 확인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래일을 긍정옹호하고 래일을 예술적으로 확인하는 혁명적랑만의 세계를 펼쳐놓는데로 지향되어야 한다.

혁명적랑만성을 구현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본성 자체의 요구이다. 주체사실주의문학은 현실긍정의 문학인 동시에 현실을 발전속에서 묘사하는 혁명적랑만의 문학이다.

혁명적랑만성, 이것은 우리 문학의 본질적속성이며 오늘뿐아니라 미래를 확신하고 승리할 미래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적랑만성을 구현하는것은 또한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오늘의 현실자체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우리 당의 구호는 그 어떤 폭풍도 격랑도 두렵없이 고난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毅한 의지와 랑만의 세계를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방산과 구월산 등 많은 곳을 인민의 유원지로 더 잘 꾸리시려 마음써오신 웅심깊은 세계를 그려보시라.

우리 시대의 《적기가》로 불리우는 가요 《누이 들자 붉은기》와 《승리의 길》, 《우리는 잊지 않으리》와 같은 노래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을 주고 위훈으로 고무한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는 힘있는 무기로 이바지하였다.

한때 우리 시단에는 《생각해보라》(박세옥

작), 《통일된 평양의 거리에서》(김형준 작)와 같은 랑만적인 통일주체의 시들이 나와 독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조건적인 정황과 환상적인 수법에 의하여 씌어진 시들이었으나 사람들의 가슴속에 신심과 락관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애독되였다.

미래를 향하여 비약하는 오늘의 선군시대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웃음으로 맞받아나가는 의지의 세계, 최후에 웃는자가 승리자라는 만만한 배심과 락관을 심어주는 랑만적인 시와 노래들을 많이 창작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시들이 많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 시가 선군시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있다는 증거로 된다.

우리 문학의 본질과 특성의 견지에서 보거나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선군 시가에 혁명적랑만, 혁명적서정이 넘치게 하는것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창작과제로 나서고있다.

선군시가에 혁명적랑만이 나래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시대를 따라가며 단순히 시대생활을 보여주는데 그치고마는 판조적인 창작태도와 테두리에서 결정적으로 뛰쳐나와야 한다.

지금 일부 시인들은 현실에 나가 장엄하고 거창한 전변이 시시각각 펼쳐지는 벅찬 현실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매혹되고 심취된 나머지 현실 그자체를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물론 기적적인 사변들로 충만된 위대한 현실을 보여주는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엄격히 경계하여야 할 문제는 체험된 생활 그자체를 확인하거나 관망하는 자세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기적적인 현실을 노래하는 경우 거기에 시대의 맥박, 거기 사는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을 땐 불피코 생활을 그대로 라렬하거나 객관적으로 복사하는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날수 없게 된다.

우리 시에 서정을 파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숨결이 없는 시들이 나오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시대의 산 맥박, 거기 사는 사람들의 뜨거운 숨결이 흐르는 약동적인 시가 나오자면 생활속에 체현되어있는 사상적인것, 다시말하여 거창한 대상, 현상을 시인의 내적체험속에 굴절시켜 정서적으로 파고들어가야 하며 거기서 새로운 성격, 새로운 서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뜨거운 주정으로 격조높게 터쳐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어차피 생활을 그대로 펼쳐보여 주는 판조적인 시밖에 나올수 없게 된다.

한가지 실례로 련시 《땅의 주인》 [김정경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6(2007)년 5호] 과 같은것이 그러하다.

련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에 걸치는 농민의 가정사를 펼쳐고있다.

시는 할아버지대엔 땅이 없어 지리지 못살았고 아버지대엔 땅을 분여받아 땅의 주인이 되었고 아들대엔 새 세기 과학농사의 선봉에 서나간다는 식으로 펼쳐진 판조적인 시로 되고있다.

3대에 걸치는 시대의 맥박도 느낄수 없고 3대를 대변하는 인간들의 피와 숨결도 느낄수 없다. 한 농민의 3대가정사를 3편의 시에 분배하여 맞추어놓은 억지감이 드는 시다.

시는 련시로서의 고유한 생리도 무시되고있다.

련시는 여러편의 시들이 독자적인 자격을 가지고 정서적련관속에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어진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자격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묶어진 시초와 엄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련시와 시초는 다같이 자기의 고유한 창작생리를 가지고있다.

련시는 여러편의 시들이 내적인 련관을 가지고 호상 맞물려 이어져나가기때문에 감정정서흐름의 논리적련관과 승화과정이 동반되며 기승전결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감정의 축적과 폭발로 이루어지는 정서적기복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런데 련시 《땅의 주인》은 이런 정서적인 련관과 승화과정(도대체 3편의 시로 련시를 구성해놓았다는것 자체가 잘못이다.)이 무시되고있기때문에 련시로 되지 못했을뿐아니라 3대에 걸치는 농민의 운명사를 확인하는 기록적이고 판조적인 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현실생활을 재현하거나 확인하는것과 같은 유형의 시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선군시대 오늘의 시가에는 고난을 헤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치닫는 투쟁의 기치로 펴려야 하며 희망찬 래일을 앞당겨 불러오는 예리한 랑만의 무기로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벽찬 오늘의 현실에 도취되어 현실자체를 미화하거나 재현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장엄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한 현실, 격동적인 생활이 굽이치는 시대의 벽찬 숨결을 삶의 열기로 내뿜어야 하며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정신력을 뜨거운 주정에 담아 랑만적으로 터쳐야 한다.

선군시대 인간들은 래일을 위한 오늘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과 정에 넘쳐 희생적으로 투신하는 락관적이며 랑만적인 사람들이다.

선군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파고들자면 불피코 미래를 안고 랑만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사람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매혹되지 않을수 없으며 그들의 락천적인 기질과 랑만적인 생활을 투시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거창한 산악을 안고 산과 함께 살며 한생을 바쳐가는 선군시대 녀인의 전형적인 모

습을 노래한 시 《산-녀인》 [리연희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6(2007)년 3호] 과 같은 시들은 랑만적정서가 넘치는 인상깊은 시들이라고 본다.

선군시가에 혁명적랑만이 나래치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환상적형식의 시들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려진 래일을 그려보며 그날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사람들의 보람과 긍지와 랑만의 세계를 시에 담아 보여줄 때 선군시가의 랑만적정서는 얼마나 더 풍만해질것인가!

이미 앞에서 지적한 《통일된 평양의 거리에서》, 《생각해보라》와 같은 시들은 조건적인 정황을 설정하고 창조적상상력과 환상적형식에 의하여 씌여진 시들로서 사람들에게 분렬된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교야말것이며 그날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통일된 평양의 거리를 상상해보라. 일일천추 바라고 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감격의 눈물과 환희로 사람들은 들끓는다.

부모형제들과 자식들을 찾는 목소리, 혈육들을 찾아 떠나고 맞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봄비는 평양역사, 백화점문이 비좁도록 선물을 안고 드나드는 사람들, 거리를 메우며 흐르는 기쁨에 찬 사람들의 물결, 주소안내와 철차매표소에 넘치는 사람들, 어디를 보나 감격없이 바라볼수 없는 통일 풍경이다.

귀가에 들려온다

평양역에 들어서는 통일철차의 기적소리

오랜 세월 목이 쉬도록

불러도 불러도 대답없던 혈육을 찾아

내가 왔다고 웨치는 소리

철차가 대신해주거니

얼마나 듣고싶던 소리던가

얼마나 만나고싶던 혈육이던가

...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로 봄비는 평양역

그립던 혈육을 만난 사람들

기쁜 날엔 눈물이 앞선다 하지만

울지도 못하누나 눈물도 못 흘리누나

오 기다리고 기다려온 세월

마음속눈물 다 흘렸으니

이제 남은것은 피같은 말뿐이다

서로 포옹한 가슴으로 피가 오간다

(시 《통일된 평양의 거리에서》)

시인은 통일된 평양의 거리를 상상하며 충격도 컸다. 바로 이 충격이 너무 뜨거워 착상이 되고 격동의 시줄이 련이어 쏟아져나왔다. 누구도 엄두를

새 전기로에선 쇠물이 끓고

류 춘 선

새 전기로에선 쇠물이 끓고
마음속엔 간절한
그리움이 끓어

이른아침 출근길에서도
누구나 만나면 나누는 그리움
장군님 그리움

그 간절한 그리움속에
쇠물이 끓고
위훈의 나날이 이어지고

오시는 그날엔
그날엔 우리 장군님
어델 먼저 찾으실가

강재의 불줄기가
쭉 쭉 뻗어가는

압연장에 먼저 가실가

아니면
줄줄이 흘러흘러 나오는
쇠바줄을 먼저 보아주실가

아니 아니
우리 힘으로 일떠세운
새 전기로를 먼저 찾으실거야

아 새해의 힘찬 진군길
위훈으로 이어갈수록
장군님 생각으로 노을도 지지 않는 곳

강선의 하늘가엔 노을이 붉게 타고
용해공들 마음속엔 그리움이 끓고
그 마음속엔 장군님만 계시네

못했던 생각을 착상해낸 여기에 바로 시인의 몫이 있고 얼굴이 비껴있다. 통일된 거리에 펼쳐지는 풍경이 펼쳐진듯 한감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생활 속에서 탐구된 가장 전형적인 세부, 전형적인 시적묘사로 충만된것으로 하여 정서적인 흐름을 타고 감동깊게 안겨온다.

시 《생각해보라》 역시 북담을 가로지른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을 두고 분노와 저주를 터치던 시들과는 달리 콩크리트장벽이 허물어져 통일성업이 이루어진 격동적인 순간을 체험한 극적인 정황에 시점을 두고 특색있게 착상된것으로 하여 인상적이다.

시인은 수십년세월 막혔던 콩크리트장벽이 허물어지고 끊어졌던 림진강철교우로 기적소리 울리며 통일열차가 달리는 조건적인 정황의 한복판에 서서 높뛰는 심장의 격정을 상상의 나래에 펼쳐 자유분방하게 터치고있다.

우에서 실례든 시들은 현실재현이나 확인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생활을 오늘의 시점에서 새롭게 탐구하여 랑만적정서로 노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주고 락관과 투쟁의욕을 돋구어 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선군시가에 랑만적정서가 차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폭이 있고 웅심깊고 대담한 시적묘사와 상징적이며 과장적인 표현들과 시어들을 적극 탐구하고 재현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장시 《폭풍의 생애》(김만영 작)에 취사선택된

벽차고 박력있는 시어들과 상징되고 과장된 예술적표현들, 시 《위대한 탄생》 [오영재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6(2007)년 2호] 에 기울여진 탐구의 자취를 더듬어보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다.

백두의 폭풍을 숨결로 지니시고
천리수해를 푸른 방석으로 삼으신 그이
장군봉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우주를 향해 첫 미소를 보내실 때

위대한 수령님 높이 드신
혁명의 붉은 기폭에 얼굴을 묻으며
5천년을 참아왔던 그 목청을
비로소 터친 백두의 목소리
새 력사의 하늘에
환희로운 봄우뢰로 높이 울렸거니
맞으랴 누리여
새 세기의 빛나는 태양을
조선아
미래를 맡기라
위대한 영웅의 크나큰 품에

혁명적시가의 랑만성은 선군시가의 본질적속성과 선군시대자체의 요구로부터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필수적인 창작과제로 나서고있다.

선군시가가, 랑만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창공높이 치달아오르라.

길이 끝나는 땅에서

정 영 중

흔히 감동은 놀라움으로부터 시작되기 쉽다.

지난해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최북단에 자리잡은 3월5일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셨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나는 우선 깜짝 놀라기부터 하였다. 대뜸 눈앞에는 대한 말기의 서리찬 눈보라가 태질하는, 광산마을을 변화한 《인간세상》과 갈라놓으려는 자연의 심술처럼 우뚝 솟은 해발 천여미터의 험준한 령길이 떠올랐다.

현실체험차로 처음 그 령을 넘을 때엔 신록 우거진 초여름이었지만 나는 승용차가 끝없이 이어지는 심연같은 협곡으로 몇번이나 곤두박치는것 같아 노상 등골이 썩늘었다. 하물며 그 오불교 불한 급경사길에 눈까지 깔렸다면!... 절로 머리칼이 오싹 곤두섰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덮인 미끄러운 천험의 그 령을 넘어 3월5일청년광산을 찾으신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무엇이 우리 장군님으로 하여금 신변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고 그 령을 주저없이 넘으시도록 이끌었더라 말인가?

어떤 촉박감에 다쫓겨 그때 나는 급급히 행장을 꾸렸었다. 차비를 든든히 해야 했다. 그곳 광산의 겨울날씨가 최고 령하 43℃를 기록했음을 잘 아는터여서 솜의투는 물론 두툼한 모내의를 두벌이나 준비했고 털가죽구두도 별도로 장만해야 했다.

그런데 정작 떠나고보니 폭설피해로 철길이 차단되어 열차에 몸을 실은 후에도 꼬박 이틀간이나 달려야 했던것이다. 나라의 길이 끝나는 수천리 먼 북방산골임이라.

결국 광산으로 넘어가는 문제의 그 령초입에 다달은것은 아흐레만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토록 멀고 험한 길을 무슨 긴급한 사연이 계셔서, 또 어떻게 헤쳐가셨는지 생각할수록 놀랍기만 하였다.

역에 나를 마중나온 낯익은 정광수송차운전사가 반색하며 말했다.

《작가 선생이 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다녀가셨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작가가 아니지요!》

대번에 그의 눈이 눈물로 그렇게졌다.

《작가선생은 이전에... 믿었습니까? 장군님께서 우리 광산에 꼭 오시리라고... 우리 광부들을 축복해주시리라고, 예?》

나는 믿고있었다고 대답하고싶었다. 그러나 섣뜻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텔레비죤화면으로 여러차례 소개된 3월5일청년광산의 황홀한 산간도시풍경은 내가 처음 왔을

때 한창 건설중이었었다. 광산전반의 생산계통을 두배로 확장하는 방대한 공사와 설비현대화전투가 긴장하게 진행되는 속에서 광부들은 또 수천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건설을 동시에 벌리었다. 외부의 지원도 없이 순 광산자체의 힘으로 벌리는 엄청난고도 치열한 전투였다.

광부들은 맞교대로 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건설장에서 밤을 패였고 가두녀인들과 년로보장자들까지 펼쳐나 블록을 찍고 기초막돌을 날랐다.

눈물겹도록 감동적이고 그만큼 의혹까지도 불러일으키는 필사적이라 할만 한 투지였다. 무엇이 저들의 심장을 그토록 타끓게 떠미는것인가?

로력영웅이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그곳 광산의 려인윤지배인이 그 의문에 아주 소박한 대답을 주었다.

《우리 광산사람들은... 어버이장군님을 기다리며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는겁니다!》

그때 나는 가슴이 뭉클했었다. 이 땅의 길이 끝나는 나라의 최북단 산간오지에 살면서 사람이 그림던 광부들, 하여 보란듯이 선군시대의 무릉도원을 펼쳐놓고 행복을 누리는 자기들의 모습을 어버이장군님께서만은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특별히 남달랐으리라. 그것은 장군님을 기쁨속에 모시려는 타는듯 한 그리움이였다.

나는 믿고싶었다. 우리 인민들이 잘 산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그곳이 천리만리 산간벽지라도 한달음에 달려가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심을 너무도 잘 아는 나였기때문이였다. 이곳 광부들의 소원 역시 꼭 그렇게 이루어질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정도 잘 알고있었다. 광산에는 개발 초기부터 40년가까이 지질조사원으로 일하는 공훈광부로인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얼마나 길이 멀고 험한지 인생에 한번 맞는 70돐생일날에조차 세간난 자식들이 늦어 도착하였다고 했다. 내가 아흐레만에야 광산에 도착한 것이 리유없는 일이 아니였다.

바로 그런 땅이어서 나는 감히 지배인에게도, 광부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환희가 되는 고무적인 말을 해줄수 없었다. 누군들 우리 장군님의 신변에 위협이 되고 그이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죄스러운 꿈을 꿀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혼연히 넘으신 위태로운 령길을 눈물속에 더듬으며 광산에 도착하니(눈이 깔려 한나절동안이나 별별 기다심이 넘었다.) 지배인이 나를 즉시 채굴장으로 이끌었다. 장군님께서 처음 밟으신 곳이 그곳 채굴장이였던것이다. 지배

새 전기로에 부쳐

김 춘 식

사품치며 뚫는 쇠물의 노을빛을 바라보며
새해의 첫 아침 첫 출강을 앞두고
마음 왜 이다지도 설레이는가

잇을수 없노라
머나먼 전선길 가시다가도
우리 강선을 잊지 못하시며
새 강철로의 동음 높이 울릴
자력갱생의 불씨 뜨겁게 심어주신
우리 장군님 믿음 안고 첫삽을 뜨던
눈보라 사납던 착공의 그날을

가슴치는 찬 얼음물도
이 심장의 뚫는 피를 식히지 못했거니
말하라 그 나날
우리 있는것 다 가지고 너를 일떠세웠던가
그 누가 가져다준 설계와 자재로
현대적인 새 전기로를 일떠세웠더냐

용접봉 한대
철근 한 토막도 귀했다
한평방 또 한평방 철판을 무어가며
하늘높이 로체를 세워가던 그 나날
우리는 남을 바라보지 않았거니

오직 자기 힘, 자기 정신밖에는...

그 힘, 그 정신이면
우리가 바라고 념원하는 모든것
이 땅에 일떠세울수 있음을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갈 길, 흥하는 길임을
붉은기 날리며 달려온 건설의 나날
우리는 선군시대의 이 땅우에
더 붉게 새기지 않았던가

오 정녕
로심에 타는 저 불은
장군님 지퍼주신 자력갱생의 불
하늘높이 타오르는 저 노을은
우리 언제나 높이 든 신념의 불

그렇다, 초고전력전기로여
너는 다만
철과 철로 무어진 로만이 아니거니
너는 언제나 우리 강선을 잊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의 결정체
그 믿음 안고 심장을 불태워온
강선로동계급의 신념의 결정체다!

인 역시 정광차운전사처럼 첫마디부터 울먹이며
말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장군님께서 이른새벽에 여기에 오셨는데 글썽 차
체엔 성애가 하얗게 앓고... 난 심장이 툭 멎는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시리라고는... 우리가 뭐라
고 그 추운 날 그 먼길을...》

그날 련인윤지배인이 꿈같은 걱정속에 오열을
터뜨리며 《장군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라
고 간신히 인사를 올리자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오
히려 고마운것은 자신이라고, 광산을 이렇게 정신
이 번쩍 들게 훌륭히 꾸려놓은걸 보니 대단히 기
쁘고 힘이 솟는다고 뜨겁게 치하해주셨다.

그러시며 동무들이 그리웠다고, 보고싶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지만 나를 기다리는 동무들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잘것 같지 않아 그
길로 되돌아섰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나는 심장이 들뛰는것을 의식했다. 신문과 텔레
비존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번의 자강도
에 대한 현지지도를 얼마나 긴장하게 하셨는가를
너무도 잘 아는 나였다. 지난해의 《삼복철강행
군》에 이어 또다시 단행하신 흑한속의 《대소한

강행군》, 그러시고도 그이께서는 세간난 자식들
도 길이 멀고 험하여 오기 힘들어하는 수천리 눈
보라길을 하루밤사이에 극복하시어 광산을 찾아주
신것이였다. 정에 끌리워 정을 들뿔 안겨주시려
휴식도 잠도 미루시고 신변의 위험도 아랑곳 않
으시고!

정녕 이 땅의 천만자식을 한품에 모두 안아 보
살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정만이 지경도
시간도 뛰어넘어 굳건히 이어지는 가장 숭고하고
무한대한 혈연으로서의 최대의 사랑인것이다!

나의 입에서는 절로 생각깊은 속삭임이 흘러나
왔다.

《길이 끝나는 땅!...》

그 순간 련인윤지배인이 힘껏 머리를 흔들었다.

《길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정이 그 끝을 모르는데... 내 조국
땅 어디에 끝이 있겠습니까!》

《웁습니다. 저도 그것을 쓰겠습니다!》

나는 경건히 머리를 들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의 그날에 자신께서 펼치려
하는 선군선경이 이 땅에 남먼저 꽃피었다고 그
리도 만족해하신 광산의 전경이 나의 눈을 황
홀하게 하며 안겨왔다.

나는 심장으로 노래한다

김 덕 선

이 땅우에 흘러간 날과 달
내 마음 조용히 다박솔언덕우에 얹으니
우리 장군님
그날에 밝고 오르신 하얀 눈자욱 고이 안고
다박솔, 너는 말해주고있구나!

가서야 할 곳 많고
기다리는 곳 많건만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
새해에도 첫날 솟눈길 헤치시며
너를 찾아주셨던지

말해주고있구나
그 자욱자욱우에 새겨져있는것
선군이란 무엇이며
선군이 얼마나 정의롭고
선군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선군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1

멀리도 달려온 세월
달리는 될수 없는 선군의 이 길을 더욱 굳히
시고
이 길로
인민을 이끄시고 조국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거룩한 력사여!

이 길이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을 꽃피우고
이 길이
온갖 불의를 불사르는 정의의 길이였기에
그 투쟁은 얼마나 간고했던가

눈보라 만리길에 이어
피어린 력사의 자욱우에
또다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선군이라는 시대어가 새로이 태여날 때
이 말속에 깃든 의미를 다 알기엔

배고픔과 추위가 먼저
온몸에 감싸들고
봄빛에 돌아나는 이름모를 풀잎도
귀중했던 나날
무엇이,
그 무엇이

이 말의 참뜻을 알게 했던가

더듬기조차 괴로운 인민이 당한
7월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 마음속 깊이
한몸에 안으신분
수령님 령전앞에 다진 맹세로
선군의 의지를 더욱 굳히시고

그 길에 앞장서시며
인민이 당하고
조국이 당하는 그 모든 재난과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한몸에 막아나셨으니
우리 장군님 바치신 헌신의 날과 날들 그 얼마
였으랴

숨죽은 공장굴뚝들과
불빛 꺼진 수도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것을 주어야 할
자신의 사명감을 가슴깊이 새기신
우리 장군님!

그 누구도 헤아려보지 못하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장군님의 심중
그 마음속아픔을
장군님은 어떻게 이겨나가셨던가

그 아픔을 나누고 말할수 있는것은
오직 총이었나니
총으로 그 아픔을 누르시고
총의 주인인 병사들을 찾아
걷고 걸으신 전선길은 그 얼마

말하라
철령의 산발들아
오성산의 칼벼랑들아
그날에 너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이 세월우에 새겨놓았느냐

1년 열두달을
선군의 날과 달로 아로새기며
이 땅의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에
전설처럼 수놓아오신
선군장정의 길

그 력사의 갈피마다에서
선군은 다만 총대만이 아님을
조국이 보았고
인민이 심장으로 깨달았나니

그 길엔 있었더라
인민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데
나라고 어떻게 밥을 들겠는가
인민과 고생을 함께 하시며

최전연산밭에 오르시여
인민에게 힘을 주고
인민의 가슴에 신심을 안겨준
그날의 사연

그 길엔 있었더라
힘겨울 땐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며
노래에서 힘을 얻으시고
초소의 숲에 날아든 삿죽새소리에서도
이 땅의 패일을 그려보신 사연이

그 패일을 사랑하시기에
그 패일을 지켜주시려
력사의 초행길을 걸으신
우리 장군님의 참다운 위인상이

그 길우엔 있었더라
한드레벌의 대평원을 안아오시려
토지정리전투장에 나오시여
한드레벌을 돌아보시던 그날

날은 저물어
땅거미 짙어가는데
또다시 전선길 이어가시려는
장군님 우러르며
하루밤만이라도 쉬어서 가셨으면 하는
이곳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 뒤로 미루시고
멀리 전선길을 바라보시던 불타는 안광

내가 여기서 발걸음 멈추면
선군조국의 발걸음이 멈춰선다고
기어이 전선길로
또다시 선군의 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

그 길에 야전식사로
달게 드신 가마치, 한준 가마치여!
너는 우리 장군님 선군길의 때식이 되어
오곡백과 설레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는
우리 장군님 선군장정의 헌신의 길이
그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다 말해주지 않았더냐

이것이 아니었더냐
우리 장군님

인민위해 바치신 그 헌신에
이끌리고 매혹되어
우리 장군님과 사랑과 정으로 통하며
선군이 무엇인지
그 참뜻을 우리 알게 된것은

아, 그날의 자욱자욱
인민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날의 그 뜻
선군혁명실록으로 새겨져
후세에 길이 전해지거니

위대한 선군령장이 걸어오신
사회주의수호전의 빛나는 세월이여
너는 우리 장군님과 인민간에 맺어진
위대한 인민사랑의 력사여라

2

그 길엔 있었더라
선군이 다만 총대만이 아닌
노래의 력사로 이어진 길이라고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이 전하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선길에서
저녁 늦게야 야전숙소에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일군들을 부르시여라

날저문 이 저녁
또 어디에 가시려는지
의아한 눈길 감추지 못하는
일군들과 장령들

무거운 침묵속에
한초, 또 한초...
시간은 초조히 흐르는데
그이께서 뜨거이 하시는 말씀

—오늘 찾아갔던 군부대군인들이 준비한
예술공연을 보아주지 못하고 왔는데
그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
우리 공연을 보아주려 다시 갑시다

아 이 뜨거운 사연속에
장군님을 다시 모시고
예술공연을 보여드리는 군인들
목메여 노래부르며
군사복무의 나날 위훈으로 빛내이리라
불타는 맹세 다지는데

노래의 선물을 타고
장군님 이어가시는 사색
밀영의 달밤 우등불가에 앉아

투사들이 부르는 노래
여기서 다시 들으시는듯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구절도 함께 외우시여라

음악을 첫 사랑으로
가슴속 고이 간직하신분이기에
그것은 적진에 불벼락을 안기는
선군령장의 승리의 랑만!

그이에게 있어서 노래는
병사들이 사랑하는 고향
병사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불비 쏟아지는 전장에
꺾일줄 모르는 승리의 기발
적진 향해 돌격하는
병사의 승리의 웨침

아,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이 모든것을 보신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 노래를 사랑하시는 뜻
우리 이날에 더 잘 알았고
천만군민의 가슴에
그이께서 사랑하시는 노래가 깃들었나니

그이 힘드실 때마다
야전차를 타고 달리시며
조용히 부르신 노래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

이 노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따라부르며
우리 장군님과 함께
인민이 걸어오고 조국이 걸어온
선군조국의 길이어
너는 우리 장군님
노래를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력사가 아니더나

3

선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 미처 몰랐던 그날
그 길우엔 있었더라
생활을 끝없이 사랑하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

전선길 굽이굽이를 예도시며
달리고달리던 야전차
문득 멈춰선 곳
수려한 조국의 풍치여!
너는 어디서 생겨난것인가

우리 장군님 못내 기쁘시여
맑은 시내물이 흐르는 시내가로 다가가시여

내물에 손을 잠구시는데
어인 일인가
그이의 손등을 간지럽히며
정다이 다가오는 어린 물고기떼

산골짜기에
이런 물고기가 웬일인가고
일군들에게 물으시는
우리 장군님!

군인들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여기에 놓아주었다는 사연을 들으시고는
조국을 사랑하는 병사의 마음
이름없는 산천에도 깃들었다고

이것이 먼 후날에 가서도
옛말로 된다면
자신께서 최고사령관을 할 때
우리 군대는 싸움도 잘했지만
생활을 사랑했다고 말할것이라고

숲속에 그윽히 젖어드는
그이의 음성
생활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음향으로
이 나라의 소소리높은 산발들이 소리쳐 전하고
홀려흐르는 내물도
그이의 생활 사랑의 이야기
바다처럼 넓은 대양에 담고싶어선가
흰구슬 뿌리며 줄달음치거니

우리 장군님 걷고걸으신
사회주의수호전의 길이어
누구보다 생활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에
그 생활을 지켜주시려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이어!

우리 장군님 선군길에 바쳐오신
인민을 사랑하고
노래를 사랑하고
생활을 사랑하는
그 모든것으로 내 조국은
세계에 눈부신 빛을 뿌리나니

이 사랑
이 노래
이 생활을 안고
강성대국으로 솟아오를 내 조국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라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
노래에 대한 사랑
생활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겐 핵폭탄보다 더 위력한
우리의 선군이다

고향의 언덕에 서

로 미 향

드넓어진 어깨우에
붉은 령장을 달고
초소로 떠나기 앞서
고향의 언덕에 내 섰노라
가슴가득 안겨오는 정다운 고향
내 고향 금잔디언덕우에

민들레 하얀 꽃잎 불어날리며
칠없이 뛰놀던 그 시절에는
내 미처 간직하지 못했던 마음
불어오는 바람결에 고이 없으며

여기 올라
다시 올라 온 마을을 굽어보니
아아하게 펼쳐진 저 넓은 논벌도
바둑판을 마주한듯 한눈에 안겨오누나

풀메뚜기 쫓으며 해종일 뛰어넘던
주름진 논둑들은 그 어데쯤이더냐
마당가의 병아리떼 날리며
고무줄땀 넘던 그 집터는 어데더냐

굽이굽이 오고가던 소로길을 곧추 펴고
새로 지은 합각지붕문화주택 복판으로
포장도로 넓은 길을 뿔던 그날
온 마을에 넘쳐나던 그 출판도 보이는듯

그뿐이라
개울 건너 산기슭 새로 꾸린 과수원엔
아지 펼친 나무들이 한껏 키를 돋구었으니
머지않아 주렁질 과일향기도
이 언덕에 싱그러이 풍겨오는듯

염소들이 풀을 뜯는 언덕너머 저 기슭
노래소리 함뿍 어린 소년회관 저 창가
기계소리 고르로운 제분소의 저 음향도
이처럼 한가슴에 안아본적 있었던가

고향의 언덕이여
잔디푸른 언덕이여
꽃퍼나는 오늘의 선경
더더욱 아름다울 래일의 행복까지도
이 가슴에 뜨거이 안겨주는 언덕이여

언덕은 비록 높지 않아도
언덕은 비록 넓지 않아도
그 어느 산정에서도 바라볼수 없는
내 자라난 삶의 자욱을
내 누려온 행복의 전부를
내 바쳐갈 한생까지도
군복입은 이 가슴에 새겨주는 언덕이여

우리 수령님 유산으로 남기신
우리의 생활이며 생명이
내 나라 사회주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이 생활
이 생명을 지키시려
가장 엄혹한 시련의 길
영광스러운 선군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빛나는 선군위업이여!

가자,
성스러운 인민이여, 조국이여!
선군의 력사는 세월과 함께 끝없이 이어지며
민족번영의 새 력사로 누리에 빛을 뿌려가려니

이 력사는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리라
선군력사는
우리 수령님 추켜드신 혁명의 기치

우리 장군님 심장에서 태어난
인민에 대한 사랑
노래에 대한 사랑
생활에 대한 사랑의 력사라고

이 력사를
이 행성우에 수놓으시려
우리 장군님 태양으로 솟아올랐고
이 력사로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군의 노래를 주시려고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력사가 있다는것을

나는 이것을 누리를 향해
인류에게
심장으로 웨친다
심장으로 노래한다

자랑찬 시대와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공감과 매혹

— 장편소설 《인생의 악보》에 부치여 —

최언경

장편소설 《인생의 악보》(김정 작)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형상의 매력이나 기교의 묘리에 앞서 자랑찬 시대와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공감과 매혹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나운 폭풍도 거세찬 격랑도 없지만 체험자만이 그릴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의 진실이 찰랑이며 흐르는 잔잔한 시내와 같이 전편을 일관하고있습니다.

소설에 펼쳐진 화폭들은 그 모두가 청춘시절을 천리마시대에 보낸 저에게 잊을수 없는 추억을 불러일으켰으며 20대의 그 시절을 교단에서 보냈던 저에게 주는 감명은 특별한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글에서 위대한 시대에 대한 찬가,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송가, 고상한 인간관계에 대한 노래로서의 소설의 특징과 성과에 대하여 저의 소감을 이야기하러 합니다.

장편소설 《인생의 악보》는 무엇보다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불러오신 위대한 시대, 천리마시대에 대한 작가의 열렬한 찬가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당하게도 우리 시대를 천리마의 시대라고 부르고있으며 이 위대한 시대에 살며 일하는것을 끝없는 행복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남이 열 걸음 걸을 때에는 백걸음을 걸으며 남이 십리를 달릴 때에는 백리를 달리는 기세로 투쟁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천리마의 정신은 우리 인민의 생활의 신조로 되었습니다.》

지난 세기 50년대말—60년대초로부터 60년대 중반기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이 작품에는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긍정의 열정, 열화의 사랑과 크나큰 긍지가 자자구구마다, 굴절마다 일관하게 굽이치고있습니다.

작가는 천리마시대를 불러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대, 인간개조의 열풍으로 끓는 시대, 일을 많이 하는 시대, 억센 랑만으로 끓는 시대라고 참으로

명쾌하게 소리높이 격찬하고있습니다.

천리마시대, 그것은 진정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리념이 인간과 사회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리상적인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살 맛이 있고 사는 보람이 있다고들 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긍지로운 시대입니까.

인류력사 백만년에 그 어느 민족도 이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대를 창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모신 나라, 그 두리에 천만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내 조국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기적의 시대입니다.

소고뼉을 잡은 누이동생을 앞세우고 책툇구리들이 가득 실린 달구지에 앉아 《우리 마을 도서실》을 찾아오던 정문호의 준수한 얼굴을 그려보며 그 어떤 명화도 그 순간의 그 화폭보다는 더 훌륭하고 아름다울수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정애정은 이런 마음속 생각을 가슴뜨겁게 굴러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처럼 아름다울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나라에는 인정미가 이렇게도 강물처럼 흐르게 되었을까. 어디서나 정과 웃음과 미덕이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나라,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덕으로 마련된 천리마시대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대인가. ...》

참으로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하나의 축도와도 같이 함축한 너무도 방불한 생활적화폭이라 해야 할것입니다.

송금주가 한밤중에 산골길을 걸어 이모부를 찾아갔을 때 그가 하는 말은 또 그 얼마나 기막힌 명답입니까. 그는 우리 나라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며 우리 수령님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어 사람들이 이렇게도 아름다와졌는지 모르겠다. 우리 수령님께서 정말 대단한 세상을 만들어주셨지.〉》

이런 심장의 말을 하는 금주의 이모부는 심심산

풀 양호진의 양묘장에서 나무모를 키워가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것처럼 엄청난 위대한 시대의 녀과 기백이 속속들이 맥박치고있는것입니다.

이처럼 장편소설이 그리고있는 크고작은 모든 생활화폭들은 위대한 시대를 안고 온 나라가 숨쉬고 창조하고 건설하는 천리마시대에 대한 찬가로 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시대에 대한 작가의 사무치는 사랑과 긍지가 철철 차 넘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소설은 저와 같이 천리마시대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를 한갓 추억의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의 녀과 기백으로 오늘을 살게 하며 그 시대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새 세대들에게는 천리마로 상징되는 그 시대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대인가를 생동한 생활로 체험하게 합니다.

장편소설 《인생의 악보》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천리마시대의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송가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에 그려진 모든 인물들은 저 하늘에 반짝이는 못별들과 같이 저저마다 제나름의 고유한 아름다운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천리마시대의 녀성교육자의 전형인 주인공 송금주를 비롯하여 그의 친우 정애경, 그들의 교육사업을 걸음마다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세포위원장 김영찬, 지성인교육의 깨끗한 량심과 박식으로 후대교육에 묵묵히 한생을 바쳐가는 영천중학교 력사교원 조학문, 한생토록 애지중지 모은 자기 서가의 책을 금주네 《우리 마을 도서실》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는 장서가 정문호, 한생토록 고덕탄광의 창고를 지켜가며 남모르는 수고를 하면서도 그 어떤 평가도 바람이 없이 그 화약고에서 나간 남포약이 하나도 불발이 없다는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며 량심을 바쳐가는 고덕탄광 경비원 박경만, 송금주네 《우리 마을 도서실》을 위해 헌신적로력을 바쳐 성심껏 지원하는 고덕탄광의 탄부 최창화와 엄호철 그리고 기특하고 대바른 새 세대의 중학생들인 송금주의 제자 김동주, 장일남, 고철룡...

이 얼마나 사랑이 가는 아름다운 인간들입니까.

이 아름다운 인간들의 중심에 20대의 애 어린 처녀인 영천중학교 교원 송금주가 서있습니다.

그는 천리마선구자들인 진응원, 김직현, 길확실, 리신자들처럼 살려는 천리마시대의 아름다운 처녀교원입니다.

22살의 처녀로 도교육간부학교를 졸업한 주인공 송금주는 자진하여 사랑하는 고향땅인 영천의 중학교 교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고향의 아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

을 깡그리 바치려는것이 그의 리상이고 한생의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남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정말 많이도 합니다.

그는 학생들을 조국을 석탄으로 떠받들어나가는 탄부들인 자기 부모를 아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 자기 교육사업의 첫 시작을 고덕탄광 갯에 대한 견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탄광이 생기고 중학교가 생겨 처음 보는 일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사랑하는 자기 고향을 문명한 문화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 손으로 《우리 마을 도서실》을 꾸리기도 합니다. 이 도서실과 교원합숙에 나무가 우거지게 하려고 그는 오던 렬차길 도중에서 내려 한밤중에 양호진의 양묘장을 찾아가 나무모를 따오기도 하며 애경이가 꾸리다가 남기고 간 중창단을 전국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아글타글 애를 씹니다. 그런가 하면 송금주는 문학과 음악은 물론 스케트와 룡구의 선수이기도 한 다방면적인 재능있는 처녀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일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식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며 자기 제자들을 친동생처럼 사랑해줍니다.

불구가 된 장일남학생에게 각별한 정을 쏟아부어 그에게 잠재해있던 재능의 싹을 한껏 꽃피워주는 송금주의 행동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입니까.

주인공 송금주가 체현하고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을 두고 남의 발자국우에 자기 발자국을 덧놓는 정애경의 발자국과는 달리 언제나 생눈우에 첫 발자국을 내며 초행길을 걷는 개척자라고 한 조학문의 말은 참으로 상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송금주가 그려가는 인생악보에는 언제나 명곡만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작품이 안고있는 종자에 대한 사상예술적해답인 동시에 작가의 철학적주장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기 인생의 악보에 명곡만을 새길수 있는 것은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의 고결한 마음에 뿌리를 둔것이였습니다.

송금주는 《우리 마을 도서실》에 모실 전국청년 사회주의건설자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자한자 새겨가며 이런 속생각을 하였습니다.

《...송금주는 연설전문을 학습하는 과정에 청년 교육자의 사명과 임무를 두고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았다. 그 사명과 임무란 두말할것도 없이 수백만 우리의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믿음직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것이다. 수백만의 이대오속에 송금주가 담당한 50명의 제자들도 있다. 그 50명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보배들이지. 난 이 보배들을 책임진 지휘관

이구. 아니, 누나라고 하는게 더 적합할지도 몰라. 수령님께서도 매일, 매 시각 나와 나의 50명 제자들을 살펴보고계실거야.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수령님이신가. 아이들을 굶어보시는 그이의 눈길에 언제나 기쁨과 만족만이 차넘치도록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이것이 사회주의교육의 건설자인 나의 본분이다. ...》

이처럼 주인공 송금주를 비롯한 아름다운 인간들의 형상에서는 인생천만리길에 인간이 그려가는 악보에는 명곡만이 새겨져야 한다는 작가의 심오한 철학적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작가는 자기의 이러한 철학적주장을 주인공의 마음에 담아 이렇게 해쳐보입니다.

《...그의 심중에서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참대와도 같이 강건한 철학과 다박술의 설렘과도 같은 아늑한 서정이 넘실거리고있었다.

인간은 아름답다. 무한히, 무한히 아름답다. 인간은 그 본성과 모양에서 선량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것을 지향한다. 천리마시대라는 이 장장은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흐르고 엮어지는 대하이다. 이 대하우에서 움트고 무성하는 인생의 숲은 아름답고 향기로울수밖에 없으며 거기서 그려지는 인생의 악보도 명곡이 될수밖에 없다. ...》

그는 정녕 《인간 만세!》라고 부르고싶은 심정에 넘쳐있었던것입니다.

인생의 근본문제인 인생관문제를 제기하고 인생의 악보에는 명곡만이 새겨져야 한다는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준것이야말로 소박한 속에 더없이 깊은 철학성을 담보한 작품의 귀중한 성과입니다.

인생의 악보에는 명곡만이 새겨져야 한다는 작가의 주장에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천리마시대 사람들처럼 살것을 바라는 열렬한 호소가 강하게 울리고있으며 천리마시대 사람들처럼 산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생동한 사상예술적해답이 주어져고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군시대에 살고있는 우리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천리마시대 인간들처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게 하는데서 귀중한 교훈이 아닐수 없습니다.

장편소설 《인생의 악보》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숭고한 집단주의 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는 천리마시대의 아름다운 인간관계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형상은 자본주의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사회의 우월한 사회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며 성격창조와 함께 문학을 참된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기본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도 작품은 좋은 경험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이야기줄거리를 판통하는 갈등선이

없으며 뚜렷한 부정인물도 없습니다. 이것은 옹근한 시대를 방대한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는 장편소설로서는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격동적인 변혁의 시대에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부정을 부인하거나 그로부터 산생되는 갈등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천리마시대를 주도하는 숭고한 시대정신과 한가슴에 안기에는 너무도 벽찬 아름다운 인간의 세계를 한껏 펼쳐보이려는 작가의 창작의도에 기초한것이라고 리해하여야 할것입니다.

작품의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에서는 갈등이 없이도 극을 그릴수 있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미학사상의 진리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현실주의의 작품에서는 작가의 창작의도와 종자의 요구, 소재의 특성 등에 따라 갈등선을 기본으로 하여 극을 조성할수도 있고 갈등이 없이 감정조직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갈수도 있습니다.

장편소설 《인생의 악보》에는 리신태와 같이 송금주의 아름다운 소행을 공명주의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 역시 곧 금주의 진심을 리해하고 그를 적극 도와나섭니다. 금주가 꾸린 《우리 마을 도서관》 의자에 하늘색뺨끼를 정성껏 칠해가는 리신태부부의 소행은 자못 아름답게 안겨옵니다.

소설에는 주인공 송금주를 중심으로 하여 부채살같이 펼쳐지는 여러 갈래의 인간관계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그려져있습니다.

여기서 웅당 첫자리에 놓여야 할것이 송금주와 정애정의 아름다운 우정의 세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설은 그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결코 순수한 인간적우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고향땅을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후대들을 위하여 한몸을 다 바쳐가려는 숭고한 목적의 공통성으로부터 오는 혁명적동지애의 관계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영천중학교와 고향땅을 더잘 꾸려가려는 하나의 지향으로 일관되어있습니다.

작가는 거기에다 처녀들에게 고유한 아기자기한 생활들을 아름답고 섬세하게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우리 시대 청년들을 위하여 웅당한 교양적의의를 가집니다.

이와 함께 소설에 펼쳐지는 인간관계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송금주가 교단에 서있는 영천중학교의 교원, 학생들과의 관계, 김영찬, 조학문을 비롯한 교원들과 김동주, 장일남, 고철룡을 비롯한 제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역시 중요한 현실적의의를 가지는 인간관계

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영천중학교 교무주임 겸 세포위원장인 김영찬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당조직선을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요란한 말도 하지 않고 호령질도 하지 않으며 차근차근 일깨워주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믿음이 가는 세포위원장입니다.

그는 송금주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면서도 왜 자기와 휩쓸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심중의 고민을 하소할 때 《...천리마시대는 자기자신뿐만아니라 남들까지도 다 이끌고 떠밀어서 선진분자로 만드는 시대요. 그러므로 자기가 좋은 공리를 하면 남들까지도 거기에 적극 끌어들이며 모두가 천리마를 타도록 해야 하오.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 바로 이거요. ...》라고 말합니다.

송금주는 세포위원장의 그 말을 속으로 곱씹어 보면서 감사의 정을 느끼었으며 바로 그의 말대로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가리라 속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김동주, 장일남, 고철룡을 비롯한 영천중학교 학생들의 형상을 기록하고 깨끗한 새 세대의 학생들의 전형으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잘 그리고있습니다.

그들의 담임선생인 송금주가 애지중지 정을 쏟아 그들을 그렇게 훌륭히 키웠던것입니다.

자기네 담임선생이 아글타글 애써 꾸린 《우리 마을 도서실》일을 도우려 셋이 의논을 하고 야외 도서실을 꾸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것입니까. 게다가 재간동이 장일남은 목각공예품을 기막히게 잘 만들어 도서실을 장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소설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보이는 인간관계에서 다른 하나의 주선을 이루는것은 최창화, 엄호철을 비롯한 고덕탄광 탄부들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고덕탄광 지배인 차석진을 빼놓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송금주네 갱전학으로 인연을 맺은 그들은 금주가 하는 《우리 마을 도서실》꾸리기를 진정을 다해 진심으로 도와줍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설정은 주인공 송금주가 그토록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고향땅의 후대교육사업이 우리 수령님께서 것처럼 아끼시는 탄부의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는것을 강조해주는 동시에 천리마시대를 개척해나가는데서 우리 로동계급이 논 선구자적역할을 웅당하게 강조해줍니다. 그리고 인간학적전지에서 보면 장차 송금주와 최창화의 사랑을 위한 감정선을 조직하는 좋은 계기를 지어주고있습니다.

소설에는 이러한 기본인간관계밖에도 송금주네 《우리 마을 도서실》을 위해 자기 서가의 귀

중한 도서들을 기증하는 정문호, 자기 혁명초소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묵묵히 한생을 바쳐가는 고덕탄광 경비원 박경만, 송금주의 소행을 취재하려고 《민주청년》사 기자 강석민 등이 주인공과 맺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들이 인상깊게 그려지고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간들의 관계를 두고 송금주가 사람들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아름다와질수가 있을까! 하고 감동을 금치 못해할 때 정애경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로 사는게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존방식이 아닌가고 말합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장편소설 《인생의 악보》에는 번개도 우뢰도 폭풍도 격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잔잔히 찰랑이며 흘러가는 시내물과도 같은 이 이야기속에는 위대한 천리마시대의 아름다운 보물산처럼 가득차 빛나고있습니다.

소설의 문체와 형상이 매우 소박하면서도 더없이 진실하며 뜻이 깊다는 점을 꼭 강조해야 할것입니다.

굳이 한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다면 그 아름다운 처녀들의 사랑을 너무 생나무 꺾듯이 그린것입니다.

《금주선생! 결혼합시다!》라고 쓴 최창화의 쪽지편지를 두고 탄부식사랑이라고 애써 리해하려고 해도 너무나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교육에 대한 뜻이 그렇게 높던 애경이가 송금주에 대한 취재차로 영천에 왔던 기자 강석민에게 반해 그와 결혼을 하고 훌쩍 평양으로 가버리는데 대해서도 섭섭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소설에 반영된 작가의 사랑관을 지지합니다.

작가가 천리마기수인 송금주를 시집도 안 보내고 일만 시키면 어찌나 했는데 그런 걱정은 공연한것이였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송금주는 결코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사랑도 결혼도 가정도 모르는 녀인이 아니였습니다. 사회적리상도 사랑도 가정도 다같이 아름답게 훌륭히 가꾸어가는데 녀성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작가를 지지하면서도 처녀들을 것처럼 아름답게 그린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좀더 생활적으로 더 아름답게 그렸더라면 펍 더 좋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춘과 사랑은 뻔수 없는것이 아닙니까.

옥에도 티는 있을수 있습니다.

저는 작가의 심혈이 깃든 이 장편의 소설이 우리 선군시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천리마시대 정신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는데 좋은 길동무로, 훌륭한 고무자로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리 정 수

달이 떴다. 마가울의 달은 밝았다. 달빛은 추풍령의 주봉인 삼봉산이 자기의 줄기로 말편자처럼 빙 둘러 그려안은 탄광마을의 집지붕들우에 쏟아져내렸다. 그 달빛은 집집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함께 인적없는 도로를 흰히 비친다.

탄광지배인 한명진은 탄광마을길을 천천히 걸었다. 길우엔 아직도 꽃보라, 꽃테프들이 널려있다. 이따금 꽃다발에서 떨어진 꽃송이들이 눈에 띄이면 정히 주어든다. 그것은 어느새 하나의 다발로 엮어진다. 다발을 손에 든채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긴다. 집집의 창문들엔 어느때없이 불이 환히 켜져있다. 이러한 밤이면 밤교대로 막장에 들어가는 남편들의 입갱준비로 분주탕을 피우는 입심 센 녀인들의 청높은 목소리로 끓었을것이지만 오늘은 집집마다에서 녀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아이들의 캐득거리는 소리, 랑랑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잠들줄 모르는 탄광마을이다. 어찌 잠들수 있으랴. 오늘 탄광은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수행하였다. 축하, 축하! 신문, 방송기자, 텔레비존촬영가, 예술선전대... 온 나라가 여기에 다 모인듯했다. 언제 첫서리가 내릴지 모를 삼봉산밑에 때아닌 꽃바다가 너울쳤다. 그 꽃바다속에 묻힌 탄부들의 모습은 누가 누군지 가려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 아들들을 찾는 소리로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다.

지금도 그 흥분의 열기가 가셔지지 않은 탄광마을이다. 어느 집에서나 맛있는 음식을 익히는 냄새가 풍겨온다. 월계획, 분기계획... 계획을 수행한 날이면 의례히 있게 되는 탄광마을저녁의 류다 른 풍경이다. 그것은 막장에 남편을 세운 녀인들이 그들의 걸음에 자기들의 마음을 따라세우며 마련하는 정성인것이다. 잠전에도 탄부들은 자리를 함께 하자고 저마다 팔소매를 끌었지만 한명진은 적당한 말로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다. 그들과 똑같은 기분이 될수 없는 그였다. 그들과 한자리에서 기쁨을 나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는 오늘 축하연단의 주인공으로 서있었다. 꽃

다발이 안겨지고 촬영기와 사진기의 섬광이 번쩍일 때 그는 이 자리에 서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가 아님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어디선가 텅텅 들려오는 도끼질소리에 명진은 걸음을 멈추었다. 이밤 탄광마을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도끼질소리였다. 그 소리는 탄광상점옆에 있는 전 지배인 엄하봉의 집에서 들려왔다. 그제야 명진은 자기의 걸음이 오랜 탄부였던 지선로인의 집으로 향하고있었음을 깨달았다. 지선로인은 엄하봉의 장인이었다.

《아버지, 됐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엄하봉의 안해 탄금의 목소리다.

《괜찮아, 뭘하겠니?... 집에 있어야 네 어머니하고 마주앉아 콩알 고르는 일밖에 더 있겠니...》 지선로인이 장작패는 일을 거들어주는 모양이다.

《텔레비존이 있지 않나요.》

《언제 그걸 구경하고 앉아있을새가 있냐. 아까 학철이네들이 잡아끄는것도 가지 않았다.》

일손을 놓고 썬담배를 마는지 부시럭소리가 들린다.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큰숨을 내쉬는 지선로인이 혼자소리처럼 하는 갈린 목소리.

《오늘 년간계획을 한 탄광을 보니 하봉이 그 사람이 생각나누나. 날이 추워오는데 어느 산중에서 지새고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모질었거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제때에 깨우쳐주었게 망정이지 어쩔뻔 했어요.》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야. 자기를 깨달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용단을 내린건 험치 않은 일이야.》

《나도 뭐가 뭘지 모르겠어요. 바람난 탄차처럼 왈가당거릴 뻔...》

그 성미에 신물이 난다고 채머리를 떠는듯 하지만 그 억양에는 그리움의 색조가 짙게 어렸다.

한동안 말이 없다. 프락에서 밝은 달을 바라보

며 말없이 앉아있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명진은 발길을 돌렸다. 하봉을 그리는 그들의 곡진한 마음을 깨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걸음은 내가로 옮겨졌다. 추풍령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내물은 제법 소연한 물소리를 내며 탄광지구를 빠져 저 멀리 강으로 흘러든다. 갱안에서 쉬임없이 퍼올리는 물줄기가 내가에 이르러서는 빨리 우뚝 내물에 휘감긴다. 탄밭이지만 수천척지하에서 나오는 물이어서 탄부들의 마음처럼 언제나 맑고 깨끗하다.

한명진은 내가의 평퍼짐한 바위우에 걸터앉았다. 어쩐지 지선로인의 집에 들러볼가 했던 애초의 생각과는 달리 혼자 있고싶어졌다. 시원한 바람, 지줄대며 흐르는 물소리, 이곳까지 간간히 들려오는 노래소리, 명멸하는 탄광마을의 불빛, 온 탄광이 잠들줄 모르고 흥성이는 이밤에 유독 자기 혼자만이 남편들의 작업복을 든 녀인들이 즐겨찾는 여기 너럭바위우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니 외로움보다도 먼곳을 날아가던 철새가 깃을 접고 내려앉은듯 한 평온한 기분이였다. 늘 시계바늘처럼 쉬임없이 돌아치다 이런 호젓한 시간이 차례였다는것이 어쩐지 이상스럽게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에 바쳐진 내 땀의 값이 얼마나 되었던가.

명진은 《하봉동지!》 하고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그러느라니 느물느물 떠도는 물안개를 헤집고 그의 얼굴이 스밋스밋 다가온다. 조용하면서도 유순한 얼굴이다. 반달모양의 고운 눈이 위로 올라간 속눈썹에서 은은히 빛나고있다. 기쁨에 절은듯 한 구리빛살갗이 아니라면 꼭 인정 많고 푸수한 녀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급한목에 들어섰을 때 터치는 노성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길이나 뛰어오르게 할만큼 요란한것이였다. 위험에 처하면 아무리 부자지간이건 친구이건 별의 별 험한 욕설을 터치는것이 탄부들과 배사람들이라고 했다.

《동발을 다시 먹이라!》 땀과 석탄이 범벅진 얼굴들에서 번뜩이는 눈은 안전등의 불빛보다 더 강렬히 온몸을 찌른다. 그 다음, 안전모를 두드리는 흠비, 그것은 훈련장에서 철갑모를 때리던 그 《파편》 세례와 같은것이였다. 엉켜지는 한몸, 폭풍이 휩쓸어간 정적속에서야 서로 계면쩍게 웃으며 무안을 해소하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속에서 울리는 하봉의 목소리.

《흰한 숲속길에서도 방향을 잡기 어려운데 하물며 땅속의 오묘한 조화를 누가 알텐가. 그러니 배워야 하네. 동발 한대를 먹이는것도 다 리치가 있는거야.》

명진은 하봉의 손탁에서 채탄소대장으로, 갱장으로 성장했다. 대학으로 떠나던 날 어깨에 지워주던 배낭의 무게가 온몸에 실려온다. 갖가지 학용품과 생활필수품들이 들어있던 배낭의 무게는 값으로 계산될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탄광의 앞날을 메워주는 당부와 기대와 믿음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탄광연합의 책임부원이 되고...

눈앞에는 여기 탄광을 담당하고 내려와있던 금년봄의 일들이 돌이켜졌다. 그때 하봉의 그 깊은 속마음을 왜 미처 몰랐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명진으로서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돌이켜보면 추억의 문손잡이는 녀인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스한것만은 아니였다. ...

수평갱도가 끝나고 사갱이 시작되는 넓은 갱안의 공지에 탄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제일 붐비는 교대시간인지라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게 술렁거리였다. 탄장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인차를 타고 갓 입갱한 사람들이 어울리자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굴천정의 불빛은 환했으나 땀과 탄가루로 범벅된 얼굴에서 뿜어져나오는 눈빛들은 서로 엇갈리는 전지불마냥 자기 동료들을 찾고있었다. 그중에는 갱밖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의 말쑥한 차림새도 드문드문 눈에 띄웠다. 교대는 언제나 막장에서 하게 되어있는지라 왜 여기에 모이라고 했는지 알수 없는 의혹과 호기심으로 가득찬 눈길들이 서로 오갔다.

처벌처벌... 수평갱도쪽에서 레루침목과 자갈을 딛는 발걸음소리가 굴간에 공명을 일으키며 둔중하게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이윽고 종이두루말이를 손에 든 엄하봉지배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탄광일꾼들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거 기다리게 해서 안됐습니다. 탐측에서 시간을 지체하다나니 인차를 놓쳐서...》

십리나 되는 수평갱도를 바빠 걸어와서인지 숨소리는 높았고 얼굴엔 땀방울이 흘렀다. 그는 안전모를 벗었다. 불빛에 허연 머리칼이 드러났다. 벗어든 안전모에서도 윤택이 없고 색바랜 머리칼에서도 땀김이 문문 떠돌았다. 그는 잠시 숨을 돌린 후 장내를 둘러보았다.

《제가 동무들을 여기에 모이라고 한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현재 굴진공으로 일하고있는 동무들 외에 이전에 굴진공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동무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갱밖에서 일하는 동무들속에서도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요구가 아니라 부탁에 가까운것이였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크지 않은 공간을 꽉 메웠다. 이윽고 굴진공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적지 않은 인원이였다. 그들을 눈여겨 일별한 하봉이 낮으나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래일부터 우리는 두개 방향에서 동시에 굴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행굴진을 보장하면서 한달안에 새탄밭을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지휘성원들을 통해 동무들을 선발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번 전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각자가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을 다하자는 의도도

있고해서 이렇게 자원성에 맡긴 겁니다. 탄광당위원회와는 이미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웅성거렸다.

《벌써 탄발이 떨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아 항상 탄발을 앞세우지 않았나?》

《지금껏 굴진은 뭘 했다는 거야!》

...

이어 잠잠해졌다. 지배인의 말을 따르면 랑패가 없다는 것을 이미 생활을 통하여 느낀 탄광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선 명진이 역시 다들 바 없었다. 하지만 이번 문제만은 사정이 달랐다. 이진 탄광이 월생산계획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관건적인 문제였다. 채탄에서까지 로력을 뺏으면 당장이 달계획이 틀어지게 될 판이었다. 아무리 굴진이 중요하다 해도 국가의 법인 생산계획을 앞에 놓고 다른 그 무엇부터 생각할 수가 없지 않는가.

명진은 한켠에 묵묵히 서있었다. 그로서는 다른 말을 더 할 수가 없었다.

어제 갱입구에서 지선아바이를 만난 명진은 놀랐다. 탄광일을 손에서 놓은지 오랜 아바이가 년로한 몸에 격에 어울리지 않게 안전모까지 쓰고 갱안에서 나오고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아버님이 다 나오셨습니까?》

로인은 발은 기침을 흠뻑 뿜으며 꺼부정한 등뒤로 뒤집을 진채 지척지척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석탄이 무슨 샘줄기인가 하는 모양이지.》 하고 혼자소리처럼 웅얼거렸다.

명진은 그제 무슨 소리가 하여 기웃거리며 막장 휴게실에 들어섰다.

문턱을 넘어서던 그는 무춤 서버렸다. 엄하봉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팔굽을 책상에 박은 두주먹을 이마에 대고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던 것이다.

《어찌된 일입니까.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

웅매가 없다. 명진은 의무실을 찾으려고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아무렇지도 않소. 그만두오.》

고개를 젖힌 지배인이 후- 하고 긴숨을 내쉬었다.

《책임부원동무, 내 한가지 토의할 문제가 있소.》

너무도 무겁고 공식적인 어조에 명진은 자석에라도 끌리듯 그앞에 마주앉았다.

《아직은 내 결심인데 매일부터 탄광의 기본력량을 굴진에 돌리기로 했소.》

명진은 그의 말을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다. 생산계획이야 이미 지표별, 공정별로 작성되어 지정된 것인데 지배인의 결심으로 그걸 변경시킨다는 건 너무나도 어마창망한 독단과 주관이 아닌가. 문득 짚이는데가 있어 명진은 다우쳐물었다.

《방금 지선로인이 왔다가던데 무슨 이야기를 들은게 아닙니까?》

하봉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명진은 하봉의 립장이 왜 변했는지 다는 알 수 없었지만 책임부원으로서 말은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동지나 저나 온 탄광이 국가앞에 석탄생산을 책임졌습니

다.》

목소리는 극히 실무적이면서도 단호했다. 전후사연은 어떻든간에 그렇게 안하면 지배인의 승벽이 압도적우세를 보여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기때문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지배인은 일언반구도 없이 한풀 꺾인 인상이 되어 책상우에 놓인 안전모를 쓸 생각도 못하고 휴게실밖으로 나가버렸다.

(내가 너무했는가?)

여느때같으면 일단 결심한 그의 주장을 굽히기 힘들어 잘라 말하였는데 보기에 도 측은하리만치 너무도 쉽게 물러나버리니 도리어 말한편이 이상스러울 정도였다.

밤이 이슬해서 합숙호실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명진은 보던 책을 놓고 출입문을 열었다. 뜻밖에도 손에 음식구역을 든 하봉이 문밖에 비죽이 웃으며 서있었다. 서둘러 맞아들이니 《내가 왜 찾아왔는가 하면》 하며 책상옆의자에 제 집애나 온 듯 무뎠없이 걸터앉는다.

명진은 그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반가웠다.

《아, 그 문제 말입니까?》

어쨌든 자기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아는 명진은 마음이 너그러워져 우선우선한 웃음을 지으며 원탁우에 놓여있는 보온병에서 차물을 따라 그앞에 놓았다.

《아, 됐네. 인차 가야겠는데...》

그러면서도 하봉은 들고온 음식구역을 올려놓았다. 구력안에서 토끼곰이 든 남비가 나졌다.

《이거 번마다 아주머니의 신세를 지누만요.》

명진의 미안해하는 말에 하봉의 눈꼬리가 길어졌다. 그러거나말거나 명진은 차잔을 들어 권했다.

《지배인동지, 이번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도 지배인동지가 이미 나이가 많아 년로보장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는걸 압니다. 그러니 계획을 하고봅시다. 한생에 마감장식을 잘하는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말대로 합시다.》

하봉은 김이 문문 오르는 차잔을 들어 빙빙 돌려가며 주시하다 입을 열었다.

《다르게 생각 말게. 이날이때껏 탄발에서 일해 오면서 걸리는게 딱 한가지 있네. 그걸 풀지 않고서는 어디에 가든 내 마음이 편안치 않아.》

《그게 뭘니까? 함께 해결합시다.》

무등 반가운 나머지 명진은 제 먼저 흰목을 뽑아들었다. 아무 일에서나 막힘없는 지배인이 마음속고충을 털어놓을 때야 그로서도 해결 못할 문

제가 있다는것이 아닌가. 그게 어떤것인지는 제쳐 놓고서라도 설사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기꺼이 도와주고싶은 심정이였다.

명진은 의자를 끄당겨앉으며 서둘러 재촉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지배인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나?》

《정말 아니구요. 제 아직 지배인동지가 남에게 손내밀어본적이 없는 사람이라는걸 잘 알기에...》

《그렇다면 말합세. 바로 오늘 낮에 있는 그 문 제야.》

명진의 눈이 커졌다.

홉튼 눈이 자기를 여겨보는 하봉의 의문스러운 눈길과 마주쳤다.

《어쨌잖나. 그래도 책임부원의 동의는 받아야 할게 아닌가?》

《...》

명진은 너무도 간절하게 울리는 그의 말에 무어라 대답을 찾을수 없었다. 눈길은 흰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잔을 쥔 하봉의 손에 가뒀었다. 오랜 세월 석탄을 다루어온 탄부의 거칠진 손이였다. 동발목을 받쳐들면 그대로 하나의 벌침목과도 같이 굳어져 끄덕없을 믿음이 가는 손이였다. 그 손길에 이끌리워 자기는 물론 많은 탄부들이 석탄 전선의 기둥으로 자랐다. 사람들은 말년이 되면 자식들앞에, 사회앞에 떳떳해지려고 애쓴다. 하봉 지배인의 경우도 다름바 없다. 그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건 아니였다. 그러나 오늘날 날인가. 그런것은 뒤사람들이 얼마든지 메꾸어줄수도 있는것이였다. 얼마나 그 생각에 움찔하면 예까지 찾아와 저러라싶어 명진은 다른 말을 찾을수 없었다. 명진의 침묵을 동의를 표시로 생각했는지 하봉은 들었던 차잔을 단숨에 비우고 일어섰다.

《자, 그럼 난 그렇게 알고 가겠네. 참, 이 정신 봤나. 식기 전에 어서 들라구.》

어쩔새없이 호실문밖을 나서는 하봉을 명진은 굳어진체 얼얼이 바라보았다. 가슴이 무척했다. 직통배기에 《통고집》인 그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을 꾸렸으랴 하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었다. ...

탄부들이 흩어지자 텅 빈 공지에 엄하봉과 명진이만이 남았다. 그들은 서로 묵묵히 바라볼뿐 말이 없었다. 오고가는 눈빛에는 서로의 심중을 비치기 저어하는 말 못할 괴로움이 비껴있었다.

하봉이 먼저 입을 열었다.

《책임부원동무, 나를 위하는 동무의 심정을 모르지 않소. 그러나 어쩔수 없었소. 탄광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구만. 부탁인데 내가 굴진에 가있는 동안 기사장동무와 함께 채탄을 좀 맡아주오. 그러면 마음을 놓겠소.》

그리고는 제먼저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모자를 쥐고 스적스적 걸어가는 등굽은 그의 뒤모습이 아프게 눈을 찔렀다. 따라가 그를 위로하고 격

려해주고싶은 충동까지 일었으나 발걸음이 영 떨어지지 않았다.

깡박에 나선 명진은 동발무지엿에 길게 빼여져 나온 원목우에 걸터앉았다. 초봄의 해별은 따스했다. 신선한 대기에 몸을 맡기니 담배생각이 났다. 작업복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던 그는 깡안에 들어올 땐 담배와 라이타를 넣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두손을 원목에 짚고 몸을 뒤로 젖혔다. 푸른 하늘에 흰구름 몇송이가 떠있었다. 깡안에서 나오면 공기는 더 맑고 해빛은 어느때없이 밝고 따사롭게 느껴진다. 그는 그 따스한 해별에 얼굴을 맡기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언제까지라도 이 모양새로 한잠 푹 잤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옛 그제와 오늘 있는 일들이 락반처럼 무거운 중압으로 머리를 누른다. 자기로서는 하봉이 지배인으로서의 마지막을 석탄폭포로 멋들어지게 장식해주자고 원심을 썼고 제나름으로의 계획을 가지고있었다. 탄부들도 계획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으련만 얼마 안있으면 은퇴해야 할 지배인의 마지막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으리란 생각마저 들었다.

언제 누가 붙여놓았는지 그 《통고집》이란 별명만은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허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별명속에 자기 지배인에 대한 탄부들의 신뢰와 믿음의 감정이 깔려있다는것을 명진은 모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떠있는 구름송이를 보느라니 제대되어 탄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그 가지가지의 일들이 그 송이송이에 실려 흘러가는것 같았다. ...

제대배낭을 풀어놓기 바쁘게 깡장이던 하봉은 제대군인들의 등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지배인실로부터 로동과, 경리과 지어는 합숙문턱까지 닳아져라 넘나들더니 대다수의 끝끝한 제대군인들을 자기의 깡으로 데려왔다. 자기의 첫 계획이 실현되자 이번엔 제대군인들의 색시감을 고른다고 탄광처녀들을 찾아다니다 통을 맞아 사람웃긴 일도 빈번했다.

《깡장동진 꼭 제가 데리고 살 색시감을 고르는것 같습니다. 땅속에서 일을 해도 땅우의 매미같은 처녀들을 보는 눈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배인은 계면쩍게 웃으며 변명했다.

《이왕이면 우리 탄광처녀들을 맞세워주고싶어서 그래.》

《탄광처녀들이 우리한테 꽤 올라가요?》

《우리 탄부의 자식들을 그런 눈으로 보면 못썰. 나도 처음 제대되었을 때 저 통산깡 지선아바이가 선뜻 제 딸을 내주었다네. 내가 잘났는지 별로 싫어 안하더군. 그통에 합숙신세를 빨리 면했거던. 어서 장가만 들라구. 지금 완공되어가는 집들이 자네들을 기다리고있네.》

그의 든장질은 전호에 배를 대고 군사복무의 나날을 보낸 제대군인탄부들의 달아오른 가슴에 불을 달아준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봉의 눈길은 언제나 혼사소리만 나오면 흥심없이 창문밖 먼곳

만 바라보고있는 명진에게서 떠날줄 몰랐다.
《자네 왜 먹던 음식 빼앗긴 애녀석들처럼 그렇게 시리죽은상인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고민은 무슨...》

명진은 피씩 웃었다.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곁에서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그 친구 색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큼니다.》

하봉의 눈이 커졌다. 하, 이런 일도 있었나?

그는 제잡담 명진의 팔을 잡아끌었다.

《자네 꽤나 장가들고싶었던게로구만.》

와하—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가 또 익살섞인 소리를 했다.

《도병원 의사인 색시감이 여기로 오겠는가 하는 고민으로 밤마다 꿈꾸 앓습니다.》

명진은 핵 돌아서며 동료들을 향해 새된 소리를 내질렀다.

《동무, 웃지 말라.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동무들에게 내던진 명진의 말은 자기의 말 못할 안타까움과 모순된 감정의 분출이었다. 눈비에 절고 불속에 버려진 억센 사나이와는 달리 쥐면 문드러질것 같은 꽃잎같은 도시처녀가 탄가루 날리는 이 탄전에서 어떻게 견디어낼수 있단 말인가.

사연을 들은 하봉은 명진의 동가슴에 땀메같은 주먹을 쿵 내지르며 껄껄 웃었다.

《그런 걱정일랑 짝 걷어치우게.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여성들의 고운 마음이야 어디 가겠나. 전장에 남정들을 내세우고 남편들이 해야 할 일까지 다 맡아나서는게 우리 여성들이 아닌가. 이 사람, 자네 색시감은 참 훌륭한 색시감일세. 우리 탄부들엔겐 의사란 곧 자기 생명의 한부분이야. 말이 난감에 어서 데려오세. 탄광을 위해서도 말일세. 못할게 뭐가. 간접사격, 교차사격, 집중사격, 정 안되면 지원포라도 요구하세. 그다음은 제일 멋진 집을 배정해주지. 왜냐하면 그건 자네가 강남에서 날아와 첫 보금자리를 트는 예비이기때문이야.》

호실은 또다시 끓었다. 명진은 산악같은 자부심이 온몸에 짝 차오름을 느꼈다.

하봉의 말은 빈말이 아니였다. 장가갈 땐 우시로 따라가 탄부의 궁지를 빗내주었고 새살림의 선구자라며 그 《통고집》을 살려 새로 지은 살림집들중에서 남들이 탐내어 결눈질하던 제일 좋은 집을 주었다. 하봉의 손탁에서 동발먹이는 법부터 배운 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그 자옥자옥마다엔 그의 억세면서도 다심한 체취가 배여있었다. 대학 전기간 제 집식구나 다름없이 집안일을 보살펴준것은 말할것도 없고 안해가 몸져누웠을 때는 큰일을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집안걱정을 하게 해서야 되겠는가하고 하며 온 갱이 떨쳐나 치료로부터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돌려주었다. 방학이 되

여 집에 온 명진은 사연을 알고 목이 메여 고맙다는 인사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였다. 졸업후 탄광편합책임부원으로 임명되어 읍에 집을 받았으나 인정 많고 고마운 탄광사람들과 헤어질수 없어 한동안 이사하지 못하였었다. 지금도 탄광에 내려올때면 안해는 지배인을 잘 돌봐주라고 거듭 당부하며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더 꾸려보내지 못해 몸달아하였다. 지배인과 이 고장을 잊지 못해하는 안해의 애뜻한 심정은 친정을 그리는 녀인의 마음과 다를바 없는것이였다. 명진은 자기의 의무도 의무러니와 안해의 마음까지 합쳐 그의 일을 도와주려고 성심성의껏 애를 썼다. 생산을 추켜세우고 탄광편합적으로 앞선 자리를 양보하지 않게 했다. 그런데 아직은 기력이나 능력에 있어서 년로보장으로 들어가는 문제까지는 누구도 생각지 않고있었는데...

그는 저도 모르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명진은 자기로서도 더는 어쩔수 없음을 깨달았다. 며칠전엔 우에서도 그의 년로보장문제가 논의되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명진은 하봉이 지배인으로서의 마지막장식을 잘해주자고 원심을 썼고 제나름으로 총력량을 집중해서 석탄생산을 늘이자고 했는데 이렇게 뒤집혀질줄은 몰랐다. 이번에는 그의 《통고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리송한 얼림수에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자기의 진지를 내주고말았다. 이제는 망질한 쿵물우에 담배재를 펴구어놓은격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고 가만있을수도 없었다. 어쨌든 탄광을 담당한 일군으로서 또 지배인과의 호상간 도덕으로 보아도 할바를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온몸을 떠밀어주는것이였다. ...

탄광은 끓었다. 지배인은 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개 조로 나뉘여진 굴진막장에서는 착암기동음과 함께 발파소리가 련이어 터져나왔다. 언제 그런 완력이 있었더냐싶게 지배인의 승벽으로 막장은 팡풍이 인듯 했다. 채탄에서는 채탄대로 기사장과 명진의 지휘밑에 쉬임없이 석탄을 퍼올리고있었다. 그러나 채탄장이 넓어지고 거리가 멀어지자 로력부족이 눈에 띄게 알렸다. 채탄에서도 굴진에 동원된 기능공들이 있었다. 명진의 이마주름은 깊숙이 패이기 시작하였다. 이러다간 정말 월말에 쪽박차고 나앉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명진의 가슴은 타들었다. 그렇다고 지배인이 부탁한 채탄장을 뜨고싶지 않았고 조건이 불리하다고 손내밀 생각은 더욱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배인의 뒤를 힘껏 밀어주고싶은 마음뿐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뿐이였다. 생각과는 다르게 날이 바뀔수록 지탱하기 어려워남을 어쩔수 없었다. 탄광편합에서는 일생산실적이 떨어진다든 독촉이 불갈았다. 며칠간만이라도 채탄에 총력량을 투입할수만 있다면...

며칠만, 그 며칠이라는 날말이 웅축되어 머리속

을 짝 메우는것이였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나 권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다. 지배인을 위해서는 더했다.

명진이 목록을 하고 나오는데 막장에 자리를 옮긴 후 얼굴 한번 보기 힘들던 지배인이 문화회관 앞 공원의자에 앉아 담배연기만 폴폴 날리고있었다. 옆에는 회의때마다 끼고다니는 서류가방이 놓여있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어디 가십니까?》

하봉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명진은 그옆에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동안이 지나서 하봉이 짓눌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탄광연합에서 날 부르네. 어찌면 좋을지... 난 아직 해야 할바를 다 못했는데...》

말끝을 맺지 못하는 하봉의 어조에서 명진은 이제는 지배인의 직책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서글픈 감정을 짙게 느끼었다. 가슴이 아팠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봉은 이 탄광연혁에서 계획을 못하고 물러난 지배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남길것이였다. 하다면 명진이 너는 이렇게 되도록 무얼하고있었는가. 마음이 조급해났다. 자기가 일을 쓰게 못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후회마저 들었다. 이러다간 지배인을 도와준다는게 도리어 곤경에 몰아넣는 결과를 빚어낼수 있었다.

봄물이 올라 통통해진 정향나무며 앵두나무를 비롯한 떨기나무가지들은 봄기운을 함뿍 머금고 싱그런 뉘새를 풍기고있었다. 그러나 가슴은 답답해났다. 하봉의 등골은 모습을 보느라니 어쩐지련민의 정이 가슴을 쿡 찌른다. 고집도 지나치면 일종의 망녕이 된다고 이미 조성된 탄발이 있는데야 구태여 이런 골치아픈 일을 만들 필요가 뭐란 말인가.

《어찌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차가 옆에 와뒀었다. 하봉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가방을 옆에 낀 그는 명진에게로 돌아섰다.

《내 올 때까지 기사장과 함께 막장일을 잘 봐주게.》

차가 저 멀리 산굽이를 돌아서자 명진은 갱쪽으로 다시 몸을 돌이켜세웠다. 지배인이 언제 올지는 알수 없으나 이 기회에 탄광은 물론 지배인의 체면까지 세워주어야 한다는 도덕적책임감이 갱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던것이다.

명진은 다시 갱으로 들어갔다. 지배인이 불리워 올라간것은 필경 시원치 못한 석탄생산때문일것이다.

명진은 마음을 다잡았다. 작업복을 갈아입은 그는 기사장과 의논하고 전투조직을 다시 했다. 굴진소대를 내놓고는 모두 채탄으로 돌리었다. 하루사이에 생산량이 몰라보게 올라갔다. 이래로만 나간다면 월말까지 미진된 계획을 얼마든지 맞출수 있을것 같았다.

지배인이 자리를 뜬 동안 그의 사업을 대리로

보고있던 기사장은 미덥지 않은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일없겠소?... 지배인동지가 직접 지휘하는 전운데...》

《석탄생산량을 높여놓으면야 지배인동지도 다른 말이 없겠지요.》

기사장의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여러가지 복잡한 일로 며칠 결리리라던 지배인의 《출장》은 이틀만에 끝나고말았다.

작업복도 갈아입지 않고 막장에 들어선 그의 얼굴은 달라진 사태앞에서 켜켜해졌다.

명진이 전후사연을 이야기했다.

《아니.》 하봉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시켰다.

《책임부원동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 알고있소. 이제라도 빨리 굴진에 동원되었던 인원들을 제자리에 세우오. 시간이 없소.》

명진은 무어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성이라도 냈으면 자존심을 걸고 항변이라도 터쳐보련만 무얼 말하려는지 안다고 하니 무어라 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도리어 결의 사람들이 들을가 저어하듯 나직이 말하는것이 거역할수 없는 위압감마저 들게 했다. 내가 너무 그전날의 잊을수 없는 인정에 포로되어 자기의 주권을 세우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여기에 와서 자기가 별나게 되여간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명진은 대학에 있을 때나 탄광연합에 배치되어와서도 사회생활의 첫자욱을 찍은 탄광과 걸음걸음 이끌어주고 배우지 않고서는 큰일을 할수 없다며 대학으로 떠밀어준 하봉을 잊지 않고있었다. 웃기판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이곳 탄광일에 원심을 써왔고 도와주려고 애썼으며 그것으로 제 할바를 다한다고 은근히 자부해왔다. 올해에도 년초부터 두달계획을 넘쳐수행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 법이다.

지배인이 과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일가. 어찌보면 이제는 더 일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안타까움에서 오는 객기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요구한것이 아닌가.

월말은 며칠 남지 않았다. 명진은 마음을 다잡았다. 더는 무턱대고 지배인의 말을 따를수 없었다. 이런 때일수록 보다 랭철하고 리성적인 사고와 결단성이 필요하였다.

《지배인동지!》

그는 돌아서서 나가려는 하봉을 불렀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야 모든 일에서나 자기들이 져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개인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앞에 지닌 공민적의무에 대한...》

명진은 자기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때늦은 우

려와 응대가 없는 하봉이로 하여 잠시 말을 끊었다. 하봉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손을 들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라는 독촉에 대답이 궁해졌으나 이왕 터친바이니 멈출 필요가 없었다.

《전 모르겠습니다. 여기 생산문제가 오늘처럼 날카롭게 제기된적이 없습니다. 탄광에 대해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탄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습니다. 계획을 못하고야 그들이 가족들 앞에서, 또 밖에 나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낯을 들겠습니까. 저도 지배인동지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인 계획앞에서야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명진은 저도 모르게 격해오는 감정을 어쩔수 없어 어성을 높였다. 하지만 탄부생활의 첫 발자국이 찍힌 이곳을 담당하고 나온 자기의 립장도 생각해주어야 할게 아닌가라는 말만은 입안에서만 맴돌뿐 종시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자는건가?》

하봉의 반문에 명진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라도 채탄에 역량을 집중합시다.》

하봉의 고개가 획 돌려졌다. 견인전동차의 섬광처럼 그의 눈초리가 번쩍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일뿐 그의 몸은 만바람이 찔던 압축공기가 새어나오는듯 한 한숨과 함께 휴계실의 긴 의자에 털썩 실리었다. 한동안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하여 하봉의 입에서는 얼없이 중얼거리는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굴 탓할게 없지. 모두 내 불찰인데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총력량을 집중하면 맞출수 있습니다.》

명진이 기다렸다는듯 말을 받았다.

하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되네. 나에겐 그럴 시간이 없네. 우린 굴진을 해야 해. 3년분의 채탄장을 앞세우라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이야. 가슴이 아프네. 내가 그 채탄장에 손을 댔거던.》

그리고는 더 걸음을 멈추지 말아달라는듯 획 몸을 돌려 걸어나갔다.

명진은 돌미륵처럼 한자리에 박힌듯 서있었다. 무어라 할 말을 찾을수 없는 회오리가 온몸을 휘감으며 발밑으로 빠져나갔다. 자기의 주장이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진것은 결코 아니었으나 너무도 외뿔으로 나가는것 같은 그의 《통고집》엔 도무지 이가 들지 않았다. 며칠 굴진을 죽인다고 큰일이 나겠는가. 계획을 해놓고 그만큼 봉창하면 될수 있다는 단순한 리치를 과연 몰라서 그러는것인가. 자기는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는것을 알고 지내온 정이나 의리로 보아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년에 자기의 한생을 궁지롭게 돌이켜볼수 있도록 해주자고 애썼다. 그런데 어쩌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는가. ... 야속했다.

다음날 아침 입쟁준비를 한 명진이 목욕탕이 달린 탈의실문을 나서는데 손에 밥보자기를 든 지선로인이 나타났다. 아마 밥보자기를 맡기려고 우정 기다렸던듯싶었다.

《깡에 들어가려나?》

《예.》

《이걸 지배인에게 전해주게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인차가 있는데로 천천히 걸어갔다. 탄부들이 웃고떠들며 등을 굽히고 인차에 오른다. 안전모, 축전지... 탄부들의 장구류들이 서로 부딪치며 덜그덕거린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서로 무엇인가 말할것이 있는듯싶어 바재이는데 지선로인이 먼저 말폭지를 뺐다.

《내 자네 심정을 아네. 지배인을 야속하다고만 생각지 말게.》

하봉과 신통히도 같은 소리다. 두사람이 하나와 같이 자기의 심정을 안다고 하니 울컥해지는 감정을 참을수 없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뭘지...》

어제 지배인과 헤어져 만장에 올라온 명진은 탄광편합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웬걸, 편합에서는 도리어 그곳 형편을 알고 있으니 이왕이면 마지막까지 지배인을 잘 도와주라는 권고식의 답변이 왔다. 게다가 지선령감까지 변죽을 치니 그 감정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바로 자네같이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탄광을 넘겨주게 될가봐 그러는거야. 자기가 못다한 일을 남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 역시 그런 식으로 다음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나. 이미 해놓은걸 바라보면 더 나갈 생각을 못해. 그런데 자네들은 계획을 한답시고 그걸 다쳤거던. 농사꾼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고 탄부는 뒤사람들에게 물려줄 탄밭을 마련해놓고야 물려나는게 도덕이며 의무라는걸 알아야 해. 그래서 지배인이 저렇게 애쓰는걸세.》

명진은 지선로인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깊은 주름살이 얼기설기 얹힌 얼굴에서 가늘게 찌푸린 눈이 탄부들이 인차에 오르느라 붐비는 깡앞에서 떨어질줄 모른다. 지나간 탄부시절을 그려보는가.

명진은 그 주름살들마다에 탄광과 함께 흘러간 지선로인의 한생이 배여있는듯싶어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귀전에는 그가 언제인가 혼자 내뿜던 소리가 되새겨졌다.

《탄이 무슨 샘줄기인가 하는 모양이지.》

깊이를 알수 없는 땅밑을 손금같이 보는 그의 눈은 이미 지배인의 일을 다 알고있으며 하봉이 분별을 잃다싶이 다몰아대는 굴진의 광풍뒤에는 지선로인이라는 번침목이 든든히 서있음을 알게 했다.

깡안에 들어온 명진은 곧장 하봉을 찾아갔다. 채탄을 맡은 뒤로는 발길을 끊다싶이했던 굴진막장이었다. 불켜진 작업장이 나지자 암벽을 때리는

착암기소리가 귀청을 멍멍하게 했다. 물기가 번지르르한 암벽정면에는 《탄발까지는 앞으로 5미터!》라는 글발이 붙어있었다. 그 글발은 폭파와 함께 날려가고 남은 수자가 다시 암벽에 붙어질 것이다. 굴옆벽에도 《이달중으로 새 탄발을!》라는 글발이 화살표마냥 전진하는 방향으로 붙어있다. 여간 기백있는 선동이 아니었다. 착암기를 잡은 굴진공들의 얼굴도 물먹은 담벽 못지 않게 땀으로 번들거린다. 결눈 한번 팔지 않는 그들의 불붙는 눈빛이 그대로 암벽을 뚫어내는듯 했다. 한 착암수에게 지배인이 어디 있는가고 물었으나 대답할 겨를도 없는지 턱짓으로만 대피굴쪽을 가리킬뿐 굴뚝기에 여념이 없다.

대피굴은 얼마간 되돌아나오다 있는 절굴이었다. 안에는 판자로 긴의자를 만들어 랑전 굴벽에 붙여놓았는데 하봉은 그우에서 정신없이 자고있었다. 크지 않은 앞타자에는 물주전자와 몇술 뜨지 않은 밥그릇이 놓여있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귀를 메우는 착암기소리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데 의자밑으로 늘어진 손에 쥐여진 탄광지질조사도만은 놓지 않고있었다. 더 희어져 윤택을 잃은 머리칼, 두드러져나온 판골, 깎지 못한 수염, 더 갈린 입술... 세상모르게 입술무를 불고있는 하봉의 모습을 보는 명진은 측은함이나 동정보다도 예리한 금선이 가슴 한복판을 찢고 지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다음순간 그것이 곧 가책으로 바뀌어지는 것임을 알았다.

깡으로 들어올 때 지선로인이 하던 말의 의미가 충격적으로 되살아올랐다. 지배인에 비하면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를 돕는다는것이 고작해야 채탄을 책임지고 로력타발한것밖에 더 있는가, 있는 로력을 짜고들어 지배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지휘를 잘했다라면 얼마든지 계획을 할수 있었겠다는 때늦은 후회가 가슴을 찔다.

명진은 저도 모르게 착암기의 진동속에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그의 잠에 방해줄을 저어되어 밥그릇을 조심히 놓고 발걸음을 죽여가며 자리를 뚫다. ...

월의 마지막날 하봉은 몇년은 잘 캐먹을수 있는 탄발을 마련해놓고 새 지배인에게 사업을 인계했다.

새 지배인, 그는 명진이었다. 준비없이 받아안은 뜻밖의 중임에 명진은 어안이 빙빙해졌다.

《...동무가 탄광지배인으로 된것을 알고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다름아닌 하봉지배인이요. 그는 새 탄발을 마련하기 전에는 자리를 내줄수 없다며 한달이라는 시간을 받았던거요. 그래서 오래동안 계획을 넘쳐수행하군 하던 그가 초과계획을 못한 지배인으로 사업을 마치게 되었소.》

임명끝에 말하는 일군의 말을 명진은 꿈속에서처럼 들었다. ...

새삼스런 눈길로 달빛에 드러나보이는 탄광마을

의 전경을 둘러보는 명진의 감회는 깊었다. 지배인으로 임명받던 날, 명진은 하봉과 함께 너럭바위우에 나란히 앉아 지나간 나날을 돌이켜보았었다. 그때 하봉은 바지가랭이를 무릎까지 걸어올린 두발을 물에 잠그고 몸을 뒤로 젖힌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가늘게 쪼프린 그의 눈가에는 해바라기를 하는 천진한 어린애마냥 시름없는 웃음이 실려있었다. 시선을 떼지 않은채 울리던 그의 목소리 ...

《난 말년에 와서 한생에 지을수 없는 허물을 남기는줄 알고 가슴이 다 섬찔했됐네. 이젠 됐네. 탄발은 넉넉히 마련됐으니까 마음껏 퍼올리라우. 그저 래일의 탄광을 잊지 않으면 되네.》

명진은 폐사롭게 울리는것 같은 하봉의 말속에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음을 느꼈다.

《래일의 탄광!》

그것은 인생의 시작과 끝은 있어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래일은 오늘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정알박히듯 가슴에 마쳐왔었다.

하봉은 지금 이 탄광에 없다. 자주 나와 탄광일을 뒤받침해달라는 명진의 권고에 그는 현현히 웃으며 《새로운 시대에 현대적인 기술로 준비된 새 사람들이 주인으로 당당히 들어서는데 내가 보탬줄게 뭐가 있겠나. 더 늙기 전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자네들의 〈재산〉을 불귀주는것뿐이야.》하고는 썩썩한 젊은이들의 뒤바라지라도 하겠다며 탐사대를 따라 산중으로 들어갔다. 험한 산관을 오르내려야 하는 탐사길에 나이드는 사람이 무슨 큰 도움이 되랴만 본인이 요구해나설 때에야 그가 어떤 각오를 가졌겠는가를 누가 모른다고 하랴. 탐사대원들은 기꺼이 응했다. 하봉을 잘 아는 그들은 그가 자기들의 걸음걸음에 정신적기둥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을것이다.

명진은 오늘을 맞고보니 그 모습을 잊을수 없어 지선로인을 찾아가던 걸음이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잠들지 못하고 산중에 있을 하봉을 생각하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가슴 그들먹이 차오르는 그리움으로 하여 그와 나란히 앉았던 이 너럭바위로 발길을 돌리었던것이다.

명진은 풀어놓았던 웃웃단추를 채웠다. 자기는 오늘 축하의 높은 연단에서 꽃다발속에 묻혀있었다. 그것은 모두 하봉이 받아야 할것이였다. 그는 비록 오늘을 위해 초과계획을 못하고 사업을 인계했지만 그가 지닌 공민적량심은 지심속깊이에 묻혀있는 석탄처럼 불수도 젤수도 없는 값높은것이였다.

이제부터 나는 탄광의 래일을 위한 나의 몫을 위해 새로운 출발진지에 서야 한다.

명진은 이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탄광의 야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꺼지지 않는 탄광마을의 불빛, 가로등처럼 늘어선 불빛아래 꼬리를 물고 흘러나오고 들어가는 탄차들, 저탄장에 쌓여지는 석탄산...

잠들줄 모르는 탄광의 밤이였다.

강철로만 통한다

김 학 룰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누구나 나누는 첫말도
쇠물에 대한 이야기
새해의 첫 축배를 들어도
강철을 위해 높이 드나니

철드는 아이들도
길가에서 쇠붙이 하나 보아도
강철을 생각하고
청춘들 노래를 불러도
《강선의 노을》을 먼저 부른다

강선땅 여기에선 누구나
천리마의 억센 나래를 펼치던 그날을 추억하고

누구나 여기선
한여름에도 시련의 그날
12월의 눈송이를 마음속에 엮고 산다

쭉 쭉— 올라가는
경쟁도표앞에 서도 하늘이 낮아보여
서둘러 경쟁심에 로앞으로 달려가고
강철 실은 차량들을 바래우며
온 나라와 마음속 말도 나누나니

그렇다
강선땅 여기에선
그대가 누구이든
조국앞에 강철로만 통한다

배짱도 커지고 욕심은 더욱 커져

백 정 남

쇠물빛노을에 붉게 물든
대동강은 출렁이며 발아래 흘러가고

교대마친 용해공들은
무슨 생각 깊은지 오래도록 거닐고

바라보기만 해도 멋이로구나
새로 일떠세운 전기로엔 쇠물이 끓고

넘쳐한 계획량도 적은듯
용해공의 가슴에선 욕심이 끓고

버드나무아래서 울려오는 기타소리
《강선의 노을》 선물은 더더욱 가슴 흔드네

장군님 세워주신 새 전기로에서
배짱도 커지고 욕심은 더욱 커져

쇠장대 쥐던 손에 돌 하나 쥐여들고
대동강물위에 휘뿌리며 마음속에 하는 말

내 너처럼 쉬임없이 흐르는
쇠물의 《대동강》을 펼쳐놓을테다!

종구나 날마다 이어지는
이런 날 이런 저녁은

발아랜 대동강이 노을빛에 출렁이고
마음속엔 쇠물의 《대동강》이 언제나 출렁이고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인민

금 속 활 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다.》

고려인민들은 꾸준한 노력과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나무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는데 성공하였다.

나무활자에 의한 인쇄기술의 발전면모는 1101-1122년에 인쇄한 《석원사림》이라는 책을 나무활자로 찍은 사실을 통하여 알수 있다.

나무활자의 창안과 리용, 금속주조 및 가공기술의 가일층의 발전에 토대하여 마침내 금속활자의 주조와 그에 의한 인쇄방법을 창안해낼수 있었다.

금속활자의 사용과 관련한 가장 오랜 기록은

1234-1241년에 재판된 《고금상정례문》(《상정례문》이라고도 한다.)의 서문이다. 이 밖에도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들이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13세기 초엽에 이르러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널리 진행되고있었으며 따라서 그 발명시기가 12세기 전반기라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15세기 중엽 유럽에서 처음으로 도이칠란드사람인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한것보다 300년이상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들은 금속활자를 계속 발전시켜 1436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활자를 만들어냈으며 인쇄기술면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김 병 수

재경처녀



동 의 회

오늘도 출석률은 100프로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여전히 재경군에서 작업반장을 한다는 강진숙이 오지 않은 탓이다.

강의가 끝난 오후에 학부장이 나를 찾았다. 그동안 강의총화를 지었는데 우리 학급이 출석률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고 미간을 찡그리었다.

학급장이 무슨 대책을 세웠는가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나는 은근히 불이 부었다.

(글쎄 그가 아직 오지 않은걸 난들 어쩌란 말인가. 학급장이라고 하지만 나도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어쨌든 나의 자존심은 적지 않게 상했다.

무슨 일을 해도 첫번째에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인 내가 강진숙이라는 여자때문에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도대체 강진숙이라는 녀자는 공부할 생각이냐 하고있는가? 아니면 졸업중이나 타자는건가?)

호실에 들어와앉았는데도 나를 쳐다보던 학부장의 눈길에 송곳끝처럼 자극했다.

우리 학급은 농업대학 재직특설반이다.

단기간에 강의, 시험, 실습 등의 강의내용을 다 걸치자면 사실 첫시작부터 다른데 눈돌릴 짬이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리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더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끝내 체신소로 달려가 강진숙이 있는 농장관리위원회를 찾았다.

관리위원회는 어느 방도 나오지 않았다. 그제야 지금은 관리일군들이 이미 퇴근한지 오랜 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부지런히 돌려보았다. 그 찰나 어느 번호인가가 걸리었다.

《김제원리 당위원회입니다.》 하는 웅글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침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여긴 ××농업대학입니다.》 하고 나는 숨돌릴 사이도 없이 맞대답하였다.

《아, ××농업대학이요? 우리 진숙동무가 가는 대학이군요.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서글서글 웃는 얼굴이 눈앞에 보이는듯 한 사회의 말앞에서 잔뜩 솟았던 모난 말들이 스르르 잦아들었다.

《그 동무에게 혹시 떠나지 못할 무슨 사정이라도 생겼습니까?》

《사정이야 있었지요. 그러나 이젠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야 결심했다구?) 어이가 없었다.

결이 난김에 소대의 출석률이 낮은것때문에 겪는 학급과 학급장의 딱한 처지를 력설했다.

《이제라도 공부할 생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면 생각을 돌리는게 더 좋겠는데요.》

《다른 목적이라니요? 그 동무가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결심만 가지고서야 어림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피씩 웃음이 나갔다.

《아니, 우리 강진숙동무는 꼭 갑니다. 그 동무야 제대군인인데 어련할라구요.》

(제대군인?!...)

이때까지 피어만나던 불만이 순간에 기여들어갔다. 제대군인이라면 결심한대로 하고야마는 실천가들이다.

활달하면서도 대담하게 달라붙어 끝장을 보고야마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인 제대군인, 그들이야말로 맺고 끊고 절도있는 생활에 습관된 선

군시대의 전형적인 인간들이다. 제대군인이라면 결코 다르지는 행동하지 않을것이다. 나 역시 제대군인이기에 그렇게 믿고싶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별렀던 뺨은 싱겁게 사그라든듯 했지만 내 마음은 창공을 솟구치는 날새마냥 가벼워지었다.

그때로부터 이들이 지난 토요일 저녁무렵이었다.

오후부터 바람질이 시작되는통에 창문들을 닫던 나는 곧바로 내려다보이는 대학정문앞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짐차 한대가 서있는것이 보이였다. 줄이 간 풀색양복을 입은 한 녀자가 차우에서 내려 보내는 짐을 받아내리고있었다. 그옆에 뜻밖에도 우리 소대에서 제일 날랜 호남이와 두 동무가 그와 함께 짐을 내리우고있었던것이다.

(강진숙이 온게 아니야?)

아닐세라 《황남》이라는 글자가 적재함뒤에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교실을 빠져나가 정문으로 달려갔다.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짐을 다 부린 뒤였다.

차꼭대기에서 끼끗하게 생긴 늘씬한 젊은이가 처녀에게 손을 흔들어보이였다.

《강동무, 공부 잘하십시오.》

《고마워요. 인차 만나자요.》

차가 후진하여 방향을 꺾을 때까지 그들은 서로 손을 흔들었다. 이만저만한 사이가 아닌듯 했다.

혹시 애인일지도 모르지.

뒤늦게야 나를 발견한 호남이가 강진숙이에게 돌아섰다.

《강동무, 우리 학급장동무요.》

《어마나, 전번에 전화했다던...》

별에 감실감실 깎슬린 처녀의 얼굴이 발그레해지였다.

《미안한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호수같이 청청한 처녀의 눈가에 죄스러움이 비끼였다.

그러나 실상 내 마음은 그 맑은 눈동자에 그전날의 노여움이 말끔히 씻겨여진듯 했다.

그만하면 첫인상이 팬찮았다.

《됐소. 그래 미진된 일은 다 처리했는가요?》

《예.》

처녀는 흘날리는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방싯 웃었다. 입가를 가리는 손이 엄청나게 크고 거무스레했다. 해말쭉한 얼굴이 아니라 들일에 치여난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그에게서는 온몸에 들쭉을 둘러감는듯 들항기가 풍겨나고있었다.

《자, 우선 짐들을 빨리 올려갑시다.》

나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두 동무가 날새게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 앉았다. 아직도 남아있는 짐이 여러개이다. 작은 트렁크 그리고 지함이 두개, 나는 지함들을 랑손에 들고갈 생각으로 포장끈을 잡았다. 순간 지함의 중량이 나와 겨루기라도 하듯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비칠했다.

《아니 여기다 살림이라도 펴 생각이요?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가져오다니...》

《이제부터 여기서 생활하겠는데 그게 어디 간단합니까?》

미안해하는 기색은 꼬물도 없이 처녀는 웃었다.

그 청청한 눈가에 생글생글 미소가 피여났다. 역시 제대군인이라 활달했다. 이상하게도 그 성격이 싫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톤을 그저 넘길수가 없어 목소리를 죽여 물었다.

《혹시 쌀고장에서 오니 쌀집이라도 있는게 아니요?》

《쌀?!...》

강진숙의 눈동자가 반짝했다.

《신통하게 맞추네!》 온 얼굴에 감탄의 빛이 비끼였다.

(공부하러 오면서 쌀을 싣고 오다니?...)

온몸에 흐르는 실감감으로 삼시간에 지함을 들고 갈 기운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하지만 애써 참고 더 캐묻지 않았다.

지금은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고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

나는 별로 더 무겁게 느껴지는 지함을 든채 정문으로 들어갔다. ...

강진숙은 하나 남았던 나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보기와는 달리 그는 강의에 직심스레 달라붙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미진된 강의를 보충하느라 늦도록 교실에 붙어있었다. 하루종일 가야 말 한마디 건넌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쓰고 또 썼다. 그런 속에서도 진숙은 일요일만 되면 교외에 있는 월천농장으로 가군 했다.

한번은 오전에만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학습토론준비를 해야했는데 강진숙이 또 외출을 제기했다. 이번에도 역시 월천농장이었다.

도대체 월천리에는 왜 자주 나가는지 시비를 걸며 승인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녀성인것만큼 그에게만은 특별히 아량을 보이였다.

강진숙을 제외한 모든 학급성원들은 강의실에서 토론준비를 착실히 했다. 그다음에는 집체적으로 식사하러 갔다. 그때까지도 강진숙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보온밥통에 그의 저녁밥을 넣어가지고 식당을 나왔다. 소대에 하나밖에 없는 녀동무여서 특별히 원심이 씌여지였다.

저녁시간은 마치 날아가기라도 하듯 훌쩍훌쩍 지나갔다. 식사후 목욕밖에 한게 없는데 어느 사이 아홉시가 되어가고있었다.

(아차, 그럴줄 알았으면 목욕가기 전에 올라가볼걸...)

나의 불찰로 그가 아직 저녁밥도 못 먹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했다. 그달음으로 밥통을 들고 강진숙의 호실로 달려갔다.

아닐세라 그가 있는 호실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문앞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니 《예.》 하는 진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별 생각없이 문을 열던 나는 말뚝처럼 굳어

지였다.

호실 한가운데 놓인 원탁우에는 마치 다과회라도 차린듯 과일이며 당과류들이 무덕무덕 쌓여있었다. 원탁앞에는 펍 낮은 의자 몇 개가 놓여있었다.

(어디서 보았드라?)

이런 의문속에서 또다시 나의 기분을 잡치는 것이 있었다. 강진숙이 도착하던 날 크게 실망시키었던 《쌀지함》이 아직도 한켠구석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 더 서있고싶지 않았다. 다행히 손님이 있다는 것이 좋은 구실이 되어 그의 손에 보온 밥통을 들려주고 돌아섰다.

《아니, 학급장동무.》

다급하게 찾는 진숙의 목소리가 잔등을 두드렸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호실에 오니 함께 있는 호남은 어디에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책을 펼치었다. 글줄들이 범벅이 되어 돌아갔다. 불쑥 싱긋이 웃으며 들어오라고 한마디 하던 미남자가 얼른거려였다. 그제야 적재함에서 손을 흔들던 그 멧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엔 한켠에 있던 《쌀지함》이 떠올랐다. 그 지함이 마치 내 머리꼭대기를 누르거나 하는 것처럼 숨이 답답했다.

나는 끝내 더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났다.

창문을 활 열었다.

물려있던 어둠이 금시 나를 덮칠듯 안겨왔다.

나는 우두커니 서서 어둠속을 노려보았다.

어디에 숨었겠는지 훌쩍 튀어나온 별이 반짝반짝 빛을 뿜었다. 그러고보니 그 별 하나만이 아니었다. 또글또글 여문 별들이 나를 놀리거나 하듯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이군 했다. 그 별 하나 하나가 다 강진숙의 웃는 얼굴같이 생각되었다.

(강진숙은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대학에 온 기회를 자기 운명에서의 전환의 계기로 여기는 건가?)

그렇게 단정하자니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이는 듯 한 그의 맑은 눈동자가 나의 생각을 살래살래 훑어놓았다.

(그렇다면 시간만 있으면 외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가 외출을 제기할 때마다 허락한 나의 아량을 진숙은 이렇게 보답해야 하는가? 물론 처녀이니 애인파도 만날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찾아야 할가?)

그럴바에 대학에는 왜 왔는지 처음 그를 놓고 저울질하던 의혹이 되살아올라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한껏 믿었던 벗에게서 배반당한것 같은 심정이였다.

어느 호실에서인가 가느다란 선물의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왔다. 파들파들 떠는듯 한 그 선물이 나의 생각을 더더욱 심연속으로 이끌어갔다.

이때였다. 온몸으로 문을 밀며 호남이가 들어섰다.

《학급장동무, 이거 좀. 이거...》하며 아부재기를 치며 떠들어댔다. 나는 받을념도 못하고 어정쩡해있었다.

한아름 안고 온 보자기에서는 복숭아, 도마도를 비롯한 과일이 쏟아져 나왔다.

《아, 학급장동무 강동무가 찾는데도 그냥 나와서는 이 고생 시켜요?》

호남이가 얼굴의 땀을 씻으며 땀지 않게 눈을 흘기었다.

(강동무?)

당장 도로 가져가라고 소리치려던 나는 그만 멈춰버렸다. 강진숙이가 문가에 나타났기때문이었다.

《학급장동무의 수가 보통이 아닌데요. 음식상 앞에서 피하니 그대로 옮겨올수밖에 있어요?》

《...》

나는 입도 못 열고 강진숙이만 쳐다보았다.

《학급장동무, 변변치 않아요. 그럼...》

강진숙이 어색해서 굳어져있는 나에게 눈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호남이가 그를 바래주러 뒤따랐다. 나만이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그대로 서있었다.

원탁우의 동글동글한 도마도가 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하나하나가 방싷방싷 웃으며 나를 쳐다보는 진숙의 얼굴같이 생각되었다.

(내가 수가 높다구?)

불끈 솟구치는 감정만 가지고도 꽤 성을 낼수도 있었다. 그러나 호남이가 보는 앞에서 그럴수는 없었다. 그러니 정말로 수가 높은건 내가 아니라 강진숙이 아닐가?

방안에는 연연한 향기가 풍기었다. 그것이 과일 향기인지, 그가 남긴 체취였던지. ...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 우리는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실습지는 학급성원들의 특성에 맞게 중간지대와 산간지대 그리고 대학 주변의 시외농장으로 구분했다. 나는 우리 동무들의 마음에 맞게 하느라 밤늦도록 학부와 토론해서 실습지를 결정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동무들 앞에서 농장 이름을 발표했다.

《학급장동무, 저는 월천농장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일먼저 일어선 강진숙이 하는 말이였다.

(월천리?!... 실습지도 그곳으로 정하는가?)

이마살이 찌프러지며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다.

《월천리엔 왜 꼭 가야 한다는거요?》

《아이참, 그건 제가 대학에 오기 전부터 생각한겁니다.》

강진숙이 당돌하게 맞대답했다.

《그렇다?!... 그럼 그 농장과 이미 약속이라도 있었소?》

《그래요. 그곳에 있는 연구사선생과 약속했어요.》

(연구사?)

눈앞으로 피끗 미남자가 지나쳤다. 전날 호실에서 있었던 일까지 생각되며 할말이 없어지었다.

나는 강진숙이때문에 학부에 다시 제기하고 교무부로 오가며 몇번씩 사정해서 그의 실습지를 월천농장으로 바꾸었다. 이젠 보내기만 하면 되었다.

강진숙은 농장에서 차가 오기로 약속이 되어있으니 먼저 떠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교정을 혼자 떠나는 녀동무를 학급장인 내가 배려해주는것이 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대학정문앞에서 할일없이 서성거리며 차를 기다리었다.

기다리는 차는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집만 신게 되면 나도 인차 떠날수 있었다.

그런찰나 강진숙이 제일먼저 안고나온 짐은 그 전날의 그 《쌀지함》이었다.

금시 기분이 잡쳐지었다.

(이 지함은 왜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실습지까지 끌고다니나?)

편잔의 말이 목구멍을 채웠으나 나는 애써 참았다.

나는 그전날처럼 량손에 하나씩 거머쥐고 반달음을 놓았다. 자동차적재함우로 들어올리는데 공교롭게도 포장끈이 끊어지며 지함이 터져나갔다.

《어?!》

터진 지함에서는 쌀이 아니라 흙이 휘뿌려져나온게 아닌가?

《어마나!》

강진숙의 입에서 비명이 터지었다. 그는 땅바닥에 꿇어앉아 진귀한 보물이기라도 한듯 조심히 긁어모아 목수건에 정히 닦는것이였다.

흔하디 흔한 그 흙이 목수건보다 더 귀하단 말인가. 의문은 그것뿐이 아니였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시꺼먼 흙을 무엇때문에 대학까지 끌고왔담?... 아니 그 흙을 왜 쌀이라고 거짓말했을까?

일시에 맥이 쑥 빠지였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일어날념을 못했다. 그런 속에서 그 지함이 쌀집이 아니라는것으로 하여 마음은 홀가분해지였다.

이윽고 진숙은 목수건에 싼 흙을 안고 차에 올랐다.

흙을 안고 다니는 처녀— 강진숙!

분명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소중한 간직한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자신이 강진숙이에 대해서 많은것을 모르고있다는 생각을 하며 강진숙이가 타고가는 차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실습이 시작된지 열흘이 지나갔다.

학부에서는 각지에서 활동하고있는 실습조들의 활동을 료해할데 대한 파업을 나에게 주었다.

제일먼저 걱정되는게 혼자 나간 강진숙이였다. 아무래도 그가 나간 월천리부터 나가보아야 할것 같았다.

월천리는 내가 군국토환경보호부에서 일할 때 자주 나가서 정을 남긴 곳이었다. 그곳 공예반장과는 지금도 친형제와 같은 편계를 유지하고있다.

오래간만에 봄기운이 뽕얇게 서린 들판을 보니 날개가 돋힌듯 했다. 마음이 앞서는데로 공예반 휴계실로 반달음을 놓았다. 거기에 하숙을 정했던 진숙의 편지를 받아서였다.

휴계실은 농장과수원이 보이는 둔덕말에 있었다. 3년전에 내가 오르내리던 낮익은 산자드락에 새파란 잔디가 주단처럼 덮여있었다. 줄줄거리는 시내물소리도 처녀의 속삭임처럼 정다왔다. 물도 어찌나 맑은지 밀바닥을 노니는 송사리떼가 뻥히 들어다보였다.

나는 한달음에 꽃밭으로 둘러싸인 휴계실마당에 들어섰다.

문양고운 도배지와 밝게 비쳐드는 해별이 조화를 이룬 휴계실은 신방처럼 산뜻하고 아담했다. 그런데 창문턱의 꽃가지만 맞아줄뿐 방안에는 호젓한 정적만 깃들어있었다.

텅 빈 방안을 기웃거리던 나는 낮은 책상우의 유리판밑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거기에 어떤 기와 집앞에서 찍은 진숙이의 독사진이 끼워있었다.

저 멀리 창공에 시선을 준 그의 얼굴은 어쩐지 근엄해보이였다. 입술을 옥물고 눈초리가 쏘박하니 이제까지의 강진숙이가 아니라 깔끔한 성미의 다른 처녀를 보는것 같았다.

《아니 언제 오셨어요?》

반갑게 울리는 탄성에 깜짝 놀라 돌아섰다.

강진숙이 하늘에서 똑 떨어지거나 한것처럼 내앞에서 웃고있는게 아닌가? 방금 사진에서 보던 인상과는 전혀 다른 그를 보니 마음이 싱싱해지였다. 노르무레한 여름옷에 작업복을 걸치고 하르르한 수건으로 머리칼을 감싼 그의 모습은 튀어나는 고무공처럼 탄력이 있었다. 그결에 서있는 예쁘장한 녀인은 강진숙이에 비하면 그늘속에서 피어난 나리꽃같았다.

녀인이 강진숙의 손에 들린 빈 지함을 들고 열린 방안으로 들어갔다.

《강동무, 잘있었소?》

나는 성큼 토방에서 내려와 그앞으로 다가갔다.

《아이참, 기별이라도 할게지.》

발췌 옷은 입술사이로 하얀 이가 가쁘히 드러나는것이 얼마나 기분좋은지 나의 입에서는 룡이 튀어나왔다.

《그럼 뭐 가마라도 가져오자구?》

《가마는 몰라도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끌고 마중가지요.》

《아... 그것 참 멋있는 자전거산보가 되였겠는걸.》

나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흥떠져 싱글거리였다.

방안에서 아까 그 녀인이 나왔다.

《옥심선생, 우리 학급장동무예요. 저 그 연구사선생 있잖아요? 그 선생의...》

《그럼 그 연구사선생이?》

나는 아연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리없이 웃음짓는 강진숙의 등뒤에서 녀인이
살뜻이 고개를 숙이었다.

(그 연구사에게 이런 색시가 있는걸 참...)
어이없는중에도 어째서인지 가슴속이 시원해
짐을 느꼈다.

《우리 강동무를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나의 입에서는 인사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아이참, 우리가 도움을 받는걸요. 그럼...》
녀인이 고개를 숙여보이며 마당을 빠져나가자
나는 더한층 기분이 떠서 이렇게 물었다.
《강동무, 그 흫지함 말이요. 그걸 왜 여기까지
끌고왔소?》

《그건 우리 작업반 흫이에요.》

(작업반흫?)

그가 하는 말은 별로 의미가 깊게 들려왔다.

《우리 작업반에는 물론 이미전부터 알고있기는
했지만 바다물의 영향으로 염기성분이 배여있는
땅들이 더러 있어요. 어떤 배미는 특별히 심해서
예정된 소출이 나지 않아 애를 먹고있답니다. 그
런데 고맙게도 농업과학원의 연구사선생들이 그
땅을 개량하겠다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밤낮
으로 포전에서 애를 쓰고있는걸 보고서야 어떻게
작업반을 틀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제가 대학가는
것을 망설이자 공부는 꼭 해야 한다며 고무해주었
고 올해 가을까지는 대학에서 가까운 월천농장
에서 연구사업을 하게 된다고 알려주었답니다. 월천
농장의 어느 한 작업반과 우리 작업반을 시험지로
정하고 연구사업을 하게 되었다면서... 그러다가
월천농장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기간에 제가 우리
작업반흫을 가지고가서 대비적으로 시험하면 하루
라도 빨리 연구가 완성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
게 좋겠다고 하기에 대학에까지 흫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흫지함이 따라왔구만. 난 진짜 쌀
집인가 해서 가슴이 다 덜컥했겠지. 허 참...》

《왜요? 이 흫에서 백옥같은 쌀이 나오는데 그
게 어디 단순한 흫인가요? 그야말로 흫이자 쌀이
지요.》

진숙이가 열정적으로 주장했다.

《웁소, 동무 말이 다 웁소.》

나는 그저 마음이 즐거워나서 빙긋빙긋 웃었다.

《학급장동무, 연구사선생이 연구하고있는 세척
제가 얼마나 신통한지 몰라요. 토양속의 염기성분
을 세척하는것과 함께 성장촉진제의 사명도 수행
하게 될뿐아니라 덩어리로 뿌리니 작업하는것도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그 선생은 제가 대학에
다니는 기간에 연구를 꼭 완성하겠다고 나와 약속
까지 했답니다.》

《연구사와 한 약속이라는데 그거요?》

《그래요. 그 약속을 지키게 도와준 학급장동무
에게 이제야 인사를 하는군요. 학급장동무, 고마
워요.》

나는 그의 치사에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었다.

창턱에 놓인 꽃가지의 뽀족한 끝이 내 눈을 꼭
찌르는듯 했다.

《어마, 반가운김에 내 말만 했네.》

강진숙이 그제야 생각난듯 얼른 일어섰다.

《아, 그만두오. 내가 아무렴 밥먹을데 없
어서 동무에게 신세지겠소?》

나는 속으로 공예반장네 집생각을 하며 따라 일
어섰다.

《그건 또 무슨 섭섭한 말씀인가요? 잠간이면
되겠는데.》

진숙은 펄쩍 뛰며 수도가에 있는 마늘바구니를
나에게 안겨주었다. 픽하고 웃음이 나왔다.

마늘을 까는 일을 도와달라는건지, 아니면 마늘
몇톨 까는 사이면 된다는건지...

나는 한숨을 쉬며 마늘을 집어들었다.

성격이 시원시원한건 좋지만 실상 그가 밥을 몇
번 해보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들에서 살다싶이 하는 작업반장에게 있
어서 뛰어다녀도 모자라는것이 시간이다. 그런
속에서 언제 밥을 해볼 생각이나 하겠는가?

오늘 점심은 언제 먹게 될지 막연했다.

이제라도 공예반장네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으로 마늘바구니를 남겨놓은채 마당을 나
섰다.

둔덕우에 올라서니 무연하게 펼쳐진 논배미
마다 줄을 맞춘 벼포기들이 제일먼저 눈에 안
겨왔다.

논배미끝의 밋밋한 등판에서는 밀보리가 설렁거
리고있었다.

밀밭사이길로 한쌍의 남녀가 걸어오고있었다.
그들은 다름아닌 연구사부부였다.

강진숙이가 자랑하던대로 세척제를 완성했다
니 존경이 가고 부부연구사라니 부러운 생각이 들
었다. 이렇게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마음도 지향
도 하나가 되어 연구사업을 하고있으니 저런 부부
야말로 혼치 않을게다.

저 부부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한쌍인가?

빨간 머리수건이 허리를 굽힌다. 녀인의 깔깔거
리는 웃음소리가 창공을 날아 내 귀에까지 쟁쟁히
들려왔다. 뒤따르는 남자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합
쳐져 흡사 화음을 이룬 혼성2중창처럼 듣기도 좋
았다. 또다시 그들이 걸어오는게 보이였다. 늑실
거리는 밀보리에 실린 그들의 모습은 설레이는 밀
보리파도에 실려 흥떡흥떡 춤을 추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 멋있는 장면감상도 그만 깨지고말았
다. 강진숙이가 빨리 오라고 손짓하고있었다.

방안에는 벌써 김이 문문 내뿜기는 밥상이 차려
져있었다. 좀더 있어야 점심을 먹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나의 예상이 대번에 뒤집어지였다.

색갈도 고운 파란 애호박장이 별맛이였다. 먹음
직스러운 갓김치, 빨강게 고추물이 든 조개젓도
좋았고 미역나물도 특색있었다. 붕어줄임은 어
떻게 했는지 감탕내도 비린내도 나지 않을뿐더러
통채로 씹어도 아삭아삭했다. 그중에서도 제일 인

상적인것은 호박전이었는데 초간장에 발라먹으니 허까지 빨려들어가는것 같았다.

《변변치 않아요.》

강진숙이 음식그릇들을 밀어놓으며 수집게 웃었다. 나는 랑볼이 발가우리하게 상기된 강진숙을 처음 보거나 한것처럼 바라보았다.

(이런 녀성을 밥도 할줄 모르는 덜통한 녀자로 알았됐구나.)

《정말 잘 먹었소. 이 붕어줄임이랑 모두...》

《학급장동문 이런 민물고기찬을 좋아하는군요. 언제든 우리 고장에 오세요. 제가 이런 붕어줄임이랑 잉어국을 대접하지요.》

《거기엔 그런것이 흔하오?》

저도 모르게 군침이 꿀꺽 넘어갔다.

《우리 작업반이 있는 재령강에 그런 물고기가 많아요. 벌을 꿰지르며 흘러가는 강물덕을 특별히 본답니다. 판수도 하고 고기도 낚고...》

진숙은 열린 창가로 저 멀리 하늘가에 시선을 돌리었다.

《땀을 흘린 홀리며 일을 하고 돌아오는 저녁이면 강쪽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유유히 흐르는 재령강에서는 푸들쩍푸들쩍 뛰여오르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기분을 흥뜨게 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런가하면 이쪽 동네에서는 구수하게 밥맛은 냄새가 풍겨오구요. 학급장동문 하얀 쌀밥을 벼짚불에 찌는 독특한 냄새를 모르지요? 밥맛이 참 좋아요. 이젠 우리 고장에서만 있는 멋이랍니다.》

그의 얼굴에 자기 고장에 대한 한없는 자랑과 긍지가 질게 어러지었다.

《지금쯤 모내기가 한창이겠는데 모두 얼마나 수고가 많을가? 아마 1분조장이랑 힘들어서 앓을지도 몰라요.》

《아, 큰 소 나가면 작은 소 구실한다고 어련히 제몫을 하지 않으리.》

《그래요. 그래서 더 마음이 씩여지는군요.》

강진숙은 혼자소리처럼 읊조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밤 나는 공예반장네 집에 잠자리를 뒀다.

《홍일이, 그 강동무라는 처녀와 같이 공부한다지? 녀자는 그런 녀자가 진짜야. 한가지 일을 해도 열가지 일을 해도 정성스럽다니까. 그런 녀자를 곁에 두고도 아직도 총각으로 있다니. 쫓쫓...》

공예반장이 혀를 차며 눈을 흘기었다.

나는 얼굴이 벌개져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눈앞으로 낮에 보았던 진숙의 얼굴이 새록 새록 살아났다. 공예반장말이 맞았다.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한끼의 점심을 준비해도 정성을 다하는 진숙이. 나는 바로 그런 녀성을 찾고 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다가왔다. 그와 끝없이 걸었다. 갑자기 앞에 강이 나타났다. 당황해났다. 그런데 어느새 진숙이가 쪽배를 끌고왔다. 배는 작

은데 노대는 장대기처럼 길었다. 그가 노대를 박고 힘을 주자 배는 주르륵 미끄러지었다.

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목이 저절로 젖혀지었다.

《이 사람 홍일이!》

곁에서 반장이 찾는 바람에 나는 후닥닥 깨어났다.

《좋은 꿈을 꾸게로구만. 노래까지 뽐을 땐...》

공예반장이 의미있게 눈을 끄쩍했다.

나는 얼굴이 벌개지었다. 반장이 더 캐묻지 않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

아침밥을 먹은등만등한 나는 급히 휴게실로 향했다. 빨리 진숙이를 만나보고싶은 생각뿐이었다. 생각갈아선 그가 차려주는 밥상을 다시 마주하고 싶었고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싶은게 나의 심정이었다. 그의 곁에 있는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로 될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앞서지는 마음을 안고 둔덕에 올라서니 뜻밖에 휴게실은 비어있었다.

방안에는 상보를 씌운 밥상이 있었고 그우에 놓인 착착 접은 종이가 눈에 띄었다.

《포전에 나갑니다. 식사하십시오. (강)》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거나 한듯 맥이 풀리었다. 종이쪽지를 천채 굳어진 나를 보고 유리판밀의 강진숙이가 말끄러미 지켜보는것 같았다.

나는 사진을 꺼냈다. 예리해보이던 그 눈끝에서는 반대로 미소가 흐르는것 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정히 사진을 안주머니에 넣고 그를 찾아들로 나갔다. ...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다. 우리가 입학하여 낮을 익히기 시작한것이 어제같은데 어느새 그 이듬해 겨울이 되었다.

어느날 한창 시험준비를 하는 우리에게 반갑게도 강진숙이네 작업반청년들이 견학을 왔다.

《반장동무!》

《반장언니!》

청년들이 달려와 강진숙이를 에워쌌다.

《반장언니는 대학에 오더니 더 고와졌구나.》

《어마!》

《반장언니, 대학왔다구 우리 작업반을 잊은 건 아니지요?》

《엔 쓸데없는 소리.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왔니?》

강진숙이 처녀들의 말을 도중에서 자르며 이렇게 물었다.

《청년동맹에서 우리를 대표로 보낸셈이지요. 참, 기술원동지가 언니한테 이걸 보냈어요.》 한 처녀가 보자기에 썩 큼직한것을 꺼냈다.

《토끼곰이야요.》

《나두 1분조장이 보내는걸 가져왔어요.》

《나두.》

《나두요.》

청년들이 저마다 자기의 가방을 여느라 부산을

피웠다.

혈육인들 이보다 더하랴!...

언제인가 작업반을 그리며 줄곧 외우던 진숙이의 심정이 이제야 리해되었다. 그가 작업반을 위하고 반원들을 그리워하며 정을 기울이니 가는 정에 오는 정인셈이다.

우리 학급은 다음날 일요일을 전학온 청년들과 함께 보냈다.

우리가 동물원을 나와 식물원으로 들어서는데 소리도 없이 숨덩이같은 흰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수림에서 보는 설경은 정말 매혹적이었다.

나는 손바닥을 펼치고 흰눈을 받았다.

눈송이들은 한들한들 훑날려갈듯 하다가 내 손바닥에 소복소복 덧쌓이였다.

내릴 곳이 하 많지만 꼭 나의 손바닥에 내리고 싶은것처럼 쌓여지였다.

내 마음도 눈송이처럼 훨훨 날았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드는 곳에 내려앉을수만 있다면, 과연 내가 내려앉을 곳은 어디일까?

어디선가에서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녀들이 달려와 나를 잡아끌었다. 사진을 찍자는것이다. 이런 기회를 은근히 바랐던 나는 진숙이를 가운데 앉히고 찍는 사진들에 여러번 내 얼굴을 박았다. 어느때는 진숙이와 가운데 나란히 있게 되는 때도 있었다.

진숙은 얼굴이 발칵해서 저쪽옆의 처녀와 한덩어리가 되어 나와 될수록 간격을 두곤 했지만 나는 좋기만 했다.

진숙이와 같이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그와 사진찍는 일이라면 찍고 또 찍어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인상적인 이날로부터 이들이 지난 오후과외시간이었다.

강진숙이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달라고 제기했다.

《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답지 않게 몹시 주저주저하며 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럼 앞자리로 말어요?》

진숙은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이었다.

한쪽팔이 떨어져나갔다 한들 이보다야 허전하랴. 해빛 찬란한 대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처럼 앞이 안 보였다. 밥맛까지 잃으니 기운이 없었다.

점심시간마다 흥을 돋구던 탁구장에도 발길을 끊었다.

그때부터 그와 나란히 앉아 강의를 받는것에 습관되었던 나의 생활에서는 구새먹은 나무마냥 커다란 구멍이 생기였다.

며칠후야 겨우 마음을 수습한 나는 진료소를 찾아가 우리 학급성원들의 시력검진을 조용히 해줄것을 요청했다. 진숙이에게 맞는 안경을 사주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시력검진표를 보던 나는 입을 딱 벌리였다. 진숙의 시력은 정상이 아닌가?

《?!》

한방망이 얻어맞은것처럼 머리가 땡했다.

강진숙은 결국 내가 싫어서 눈을 핑계대고 자리를 바꾼것이다.

(내가 처녀에게서 배척받은 꼴이 되다니.)

그것을 인정하자니 자존심이 꺾꽂이 살아났다.

인물로 보나 체격으로나 무슨 일을 제끼는데서나 두번째로 밀려본적이 없는 이 최홍일이다.

그날 저녁 나는 그전날 간수했던 그의 사진을 꺼내놓고 중얼거리였다.

《강동무, 나를 어떻게 보고 거짓말했소?》

《...》

시선을 높이고 그 어딘가를 바라보는 강진숙은 여전히 도고해보이였다. 그 모습을 보니 그대로 새기기가 힘들었다. 이제 단 한가지 그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를 만나기가 꽤 힘들었다. 늘 곁에 있는것 같은데도 단둘이 만나게 조건이 되지 않았다. 방금 있었던것 같은데 만나려면 벌써 어디론가 갔고 말을 걸지 못하게 늘 동무들속에 묻혀있곤 했다.

후날에야 그 모든것은 진숙이 나를 우정 피하느라고 이런저런 장애그물을 친탓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졸업식을 끝내고 떠나는 시각만 기다리는 마감날에야 겨우 만날수 있었다.

《진숙동무, 나 좀 만나지요.》

왜서인지 진숙은 흠칫 몸을 떨더니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왔다.

《강동무, 이제 졸업했는데 어떡하겠소?》

《나야 일하던 작업반으로 가지요.》

그는 태연스럽게 나의 말을 받았다. 얼굴엔 알릴락말락 미소까지 피어나있었다.

《작업반?!... 대학공부까지 하고도 말어요?》

《아이참, 대학공부야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거지요.》

진숙은 생글생글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내 동무에게 한가지 말할게 있소.》

나는 정색해지며 그에게 다가섰다.

갑자기 진숙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였다.

그것을 보니 저도 모르게 긴장해지며 헛기침이 나갔다.

《난 승인없이 동무의 사진을 건사했소.》

강진숙은 고개를 숙인채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나를 감싸안는듯 했다. 은근히 숨이 가빠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 또다시 헛기침이 나갔다.

《그전날 월천리에 갔을 때...》

《알고있어요.》

뜻밖에 강진숙이 또렷하나 나직하게 대답했다.

《안다구? 그런데 왜 가만 있었소?》

《홍일동무.》

나의 가슴이 쿵 뛰였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강진숙이 나를 보고 학급장이라 찾지 않고 내 이름을 불렀다. 이건 무엇을 의

미하는가? 나는 성큼 그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강진숙이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다.

《제발 저의 말을 막지 마세요. 저의 소원은 공부 해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재령벌 저 무연한 곳에서 총알처럼 땅땅 여문 벼알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는것이랍니다. 이것은 제가 군복을 입고있던 시절부터 바라던 일이었어요. 지금도 제 마음은 재령벌을 날고있어요.》

《그렇게는 안될걸. 나는 동무를 놓아주지 못하겠소.》

강진숙이 힐끗 올려다보았다. 웬일인지 청청한 눈가에 핑 물기가 어리었다.

《그러지 말아요.》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었다.

《동무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한마디로 자르지는 못할거요.》

나는 진숙이처럼 내 마음도 떨릴가봐 우정 통명스레 내쫓았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동무도 김제원농민을 알고있지요? 해방후에 처음으로 애국미를 바친 그 애국농민 말이예요. 대학을 때 가지고 왔던 그 흙이 바로 그 애국농민이 농사를 잘 지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땅, 또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그곳, 바로 그 땅에서 파온 흙이예요. 지금도 그 땅에는 김제원영웅의 붉은피가 배여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서 나는 알곡의 소출이 높지 못해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애국농민의 땀이 깃들어있는 그 땅이 제 값을 못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젠 해결됐어요. 그 연구사선생이 약속대로 세척제를 완성했거던요. 이젠 우리도 농사를 잘 지어 그 애국농민처럼 나라에 애국미를 바칠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됐어요. 제 결심이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으로 떠나올 때 바로 김제원애국농민의 살림집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이 문제를 꼭 해결하리라 결심했거던요.》

《사진찍은 그 집이 동무네 집이 아니요?》

《우리 집이라니요? 그 집은 수령님께서 찾아주시었던 김제원농민의 집이예요.》

《...》

나는 아무말도 못하고 발기우리 상기된 강진숙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 마침 차가 오네!》

강진숙이 대학정문으로 들어서는 차를 알아보고 반달음을 놓았다.

차는 그전에 왔던 그 차였고 이미 낮을 익힌 그 연구사가 타고있었다.

《반장동무, 세척제를 실었소. 이건 사용지도서요.》 연구사가 진숙이 앞으로 다가왔다.

《고마와요.》

《고맙긴, 난 동무덕에 현장에서 가치있는 논문을 완성했소. 그러니 오히려 내가 인사를 해야지.》

나는 오고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창공을 향해 날으는듯 한 강진숙이를 보았다.

나 하나의 생각에 싸여있을 때 강진숙은 얼마나 원대한 포부와 지향을 꽃피웠는가?

진숙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납작한 봉투를 내밀었다.

《제가 떠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럼...》

강진숙은 한창 피어나는 꽃송이같은 웃음을 남기고 떠나갔다. 연구사가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나는 떠나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호실에 들어와서 나는 편지봉투를 뜯었다.

《홍일동무, 저도 녀성이예요. 저라구 왜 마음에 드는 대상자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겐 그럴 권리가 없답니다. 김제원농민에게 있던 하나 밖에 없는 딸이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원썹들에게 학살되었어요. 그 딸이 살아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얼마나 훌륭한 주인으로 자라 이 땅을 가꾸어나가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딸이 되어 김제원농민의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의 마음이 약해질가봐 거짓말을 했던 저를 리해해주십시오. 진사하고있는 사진은 후날 돌려주십시오.》

(진숙이! 이악한 재령내기!)

나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의 편지를 꼭 싸쥐었다. 불덩어리를 끌어안은듯 가슴이 달아올랐다. ...

×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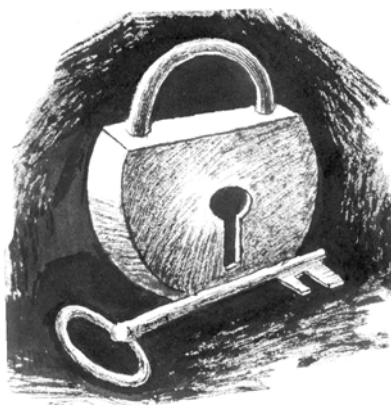
서른전의 총각이던 나에게 소학교에 다니는 딸애가 생기고 지금은 군인민위원회에서 한개 부서를 책임지고 일하고있다. 후날 나의 안해가 된 강진숙도 지금 한 작업반이 아니라 한 농장의 농사를 책임진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있다. 그가 일하는 농장은 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그는 1년치고도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이 별에서 살다싶이 하고있다. 그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때면 나는 이 저녁처럼 이따금 사진첩을 펼쳐놓고 대학시절을 돌이켜보곤 한다.

대학시절의 동무들을 잊지 말자고 독사진첩에 이름들을 박아넣은 그 졸업사진을 마주할 때면 나는 강진숙의 사진첩에 이름대신 씌여진 《재령내기》라는 별호에 눈길을 멈추곤 한다.

자기가 일하는 교장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 땅에 자기의 심혼을 깡그리 바쳐가는 재령처녀 강진숙에게는 재령내기라는 이름이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되었다.

재령내기 강진숙, 그의 이름을 입속으로 가만히 불러보느라하면 총각시절처럼 가슴이 설레이는것을 어쩔수 없다. ...

그해 가을, 나는 안해가 일하는 농장의 농장원들이 애국미를 싣고 평양으로 떠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



자물쇠

박성진

인민군대에 나갔던 아들이 제대되어 내가 다니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아들에게 나는 우리 집안의 가보로 간수해오던 자물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의 한생과 깊이 얽혀져있는 투박한 자물쇠, 선반기로 깎아만든 커다란 자물쇠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

1

해방전 아버지에 대하여 인상깊게 남는 추억은 별로 없다. 다른 아버지들보다 목이 한기장정도 작은 체소한 몸이 술을 무척 좋아했다는 생각밖에 없다.

저녁마다 집에서는 식구들이 철공소에 나간 아버지가 혹시 쌀이라도 사들고 오지 않나 해서 기다리곤 했는데 쌀자루대신 술냄새를 풍기며 비칭 비칭 들어와 어푸라지곤 하는 날이 드문했다. 그러면 품팔이에 지친 어머니와 울망줄망한 네 남매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다. 말미인 나는 울지 않고 성이 나서 고주망태가 된 아버지를 막 흔들려대곤 하였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입금을 낮게 지불하는 왜놈철공소 주인놈을 욕하곤 했다.

왜놈이 경영하던 철공소는 말이 철공소이지 실제로는 각종 포의 부분품인 방순을 만들어내는 병기공장이나 다름없었다. 방순을 찍고 남은 강판조각으로 호미, 낫을 비롯한 농쟁기를 만들어 돈벌이를 했는데 이 일은 주로 조선인노동자들이 맡아하였다. 이 철공소에서 시달려 마흔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의 강마른 철색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로 되었고 쭈뼛하게 솟구친 짧은 머리칼은 희뿌연 반백의 머리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해방전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해방후 아버지에게는 운명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처음으로 닥친 일은 아버지가 왜놈들이 감춰둔 특수강판을 찾아낸것이다. 왜놈들이 망한것도 모르고 특수강판 상차에 동원되었던 아버지는 밤이 깊어서야 흡족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그날은 아버지가 철공소에 입직한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눈을 홉뜰만큼 많은 돈을 쥐여본 날이었다.

그 돈때문에 왜놈들이 권하는 고급술도 뿌리치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버지는 집에 와서야 왜놈들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뭐야, 쪽발이가 망해?!... 그게 정말이야?》

아버지는 미덥지 않은듯 작은 눈으로 나를 쏘아보더니 일제의 항복과 관련하여 뿌려진 뼈라를 보고서야 입을 하나 벌렸다.

《어제 저녁엔 별스레 쪽발이들이 아양을 편다 했더니... 허, 그렇게 기광을 부리던 쪽발이들도 망할 때가 있구나!》

아버지의 왼쪽눈귀가 푸들푸들 떨렸다. 몹시 흥분할 때면 아버지의 왼쪽눈귀가 그렇게 떨리곤 했다.

아버지가 나를 보며 갑자기 소리쳤다.

《아직두 이러구있으면 어떻게 해?》

《예?!》

《냉큼 술 사오지 않구?》

느닷없이 호령하는통에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지만 나는 아버지를 리해했다.

그렇게도 악착하게 고혈을 짜내던 왜놈들이 하루아침에 폭삭했는데 아버지의 중추신경이 정상일 수가 있겠는가.

《막걸리가 아니구 소주를 사와야 한다. 오늘은 마음껏 마셔보자. 으흠, 쪽발이놈들!...》

원췌의 송장을 보니 더 밋더라구 왜놈이 망했다니 쌓였던 분노가 자꾸 치미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은 아버지의 밤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어느때보다 더 많이 마셨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은 술집도 밤새껏 문을 닫지 않았다.

초저녁부터 만세의 고성으로 흔들리던 노동자촌이 잠들지 않으니 술집도 잠들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작은 몸전체가 파도란 쪽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구하여 거나해진 아버지의 걸그렁해진 목소리가 찢어진 천정지를 드렁드렁 울리었다.

《만세! 해방 만세! 만만세!》

아버지가 자못 경건한 표정으로 만세삼창을 려 발하는데 이때 낡은 밤색फल모자를 쓴 김덕부라는 청년이 헐썩거리며 들어왔다. 내가 늘 무릅없이 대하며 《삼촌》이라고 부르던 그 청년은 철공소에서 파업에 앞장섰다가 몇달전에 불잡혀갔었는데 해방이 되어 놓여나온 모양이었다.

덕부를 보자 아버지는 일순 놀라면서도 한편 반가워했다.

《너 어... 덕부로구나! 마침 잘 왔다. 여기 와 앉아. 데, 봉수야 (나의 이름), 술 서너병 더 사 오너라.》

이젠 술과 《결판》이 났는가 했는데... 내키지는 않았지만 옥살이하고 나온 덕부청년을 봐선 안갈수도 없고... 또다시 사기병의 모가지를 쥐는데 그가 나를 놀려앉혔다.

《원삼(아버지이름)형님, 지금 술이나 마실 때가 아니우다.》

그가 충혈진 눈길로 아버지를 보며 계속했다.

《왜놈들이 우리 철공소 설비들을 빼내가고 마스고 야단이요. 지금이야말로 한을 풀고 왜놈들과 해볼 때가 아니유?》

아버지가 작은 두눈을 습벅였다.

《그야 물론 그럴테지...》

《내가 옥에서 풀려나올 때 김일성장군님 령을 받고 나와서 싸우던 한 〈사상범〉이 얘기합디다. 이제 김일성장군님이 조국에 개선하시여 정사를 펴시겠는데 그때까지 기계설비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이우. 그래서 내 부리나케 달려왔는데 제 철소가 말이 아닙디다. 우리 철공소 설비들도 다 없어지고 창고에 쌓여있던 특수강판을 어디다 치웠는지 한장도 없다질 않소.》

아버지는 그 말에 꿈쩍 놀랐다.

《특수강판?!...》

아버지는 무엇을 뜯어내기라도 하는것처럼 두손으로 작은 얼굴을 우악스레 쥐어뜯으며 쓸어내렸다.

아마 술기운이 얼굴에 뻗치는 모양이었다.

아버지의 왼쪽눈귀가 푸들거렸다.

《그건 내 알아보지. ...》

아버지가 비칠거리며 일어섰다. 일순 비칠거리더니 이내 몸을 가다듬었다. 덕부가 따라일어서면서 근심스레 입을 열었다.

《원삼형님, 오늘은 안되겠소. 그만 쉬시우.》

아버지가 덕부를 쏘아보더니 탁 밀쳤다.

《저리 비켜! 쪽발이들 특수강판 상차는 내가... 내가 했어. 그러니 내가 찾아야지.》

아버지는 두눈을 부릅뜬채 더는 비칠거리지 않고 문밖으로 나갔다. ...

2

그때부터 사흘동안 아버지는 집에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초조와 불안속에 아버지를 기다리다 못해 우리 남매가 모두 찾아나섰는데 행처를 알수 없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사흘째 되는 날 불쑥 집에 나타났다. 그런데 아버지의 정상이 말이 아니었다.

얼굴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고 다리를 절뚝거렸다.

어머니가 실색을 하여 기겁을 하고 동생들이 매달려 엉엉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세는 자못 대단했다. 작은 눈에서 불이 펄펄 이는데 난생처음 기고만장해서 소래기를 내질렀다.

《쪽발이새끼들! 이 강원삼이가 다 죽은줄 알아. 뻔뻔 맛을 보여줬지. 쪽발이새끼들!...》

알고보니 왜놈들이 실어가려고 바다기슭 동굴속에 감추어두었던 특수강판을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강판을 지키던 왜놈들과 격투가 벌어져 아버지는 머리에 심한 타박상까지 받았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열흘남짓한 기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덕부가 보위색군복을 입은 한 청년과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글어글한 눈매로 하여 푹푹치 않은 기품이 느껴지는 그 청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아버지의 손목을 꼭 감싸쥐었다.

아버지는 얼떠름한 표정으로 마주보았다.

《다친 몸은 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불깃을 제치고 힘겹게 일어나앉으며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직도 지끈지끈하네. 헌데 임자는?...》

덕부가 그 청년을 소개했다.

《원삼형님! 이분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하신 파견원동지입니다.》

《어... 영?!...》

아버지의 작은 눈이 엄청나게 커다래졌다.

《그게... 저... 정말인가?》

파견원이 덕부와 마주보며 빙긋 웃었다.

《그런 말도 거짓말하겠습니까? 그저 친동생처럼 생각해주십시오. 저도 장군님품에 안겨서야 글도 배우고 왜놈치는 법도 익힌 류별공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황송해서 얼이 나간듯 한 표정이었다. 파견원이 말을 이었다.

《그새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길을 허둥거렸다.

《나야 그저... 왜놈 미운 생각에... 그 악독한 놈들이...》

파견원이 머리를 끄덕이며 가볍게 수궁했다.
《그게 바로 애국입니다. 원주를 증오하고 우리 의것을 지킬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우리 장군님께 특수강판을 지켜낸 그 소행을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펄쩍 놀랐다.

《장군님께 제가 한 일요요?》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 매우 만족해하십니다. 지금 장군님께선 새 나라를 일떠세우시느라 매우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계십니다. 나라가 바로 잡힐 때까지 기계설비들과 원료, 자재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야 물론이지요.》

파견원이 손목시계를 보더니 랑해를 구했다.

《해방전 살아온 이야기랑 좀 더 듣고싶지만 자위대조직때문에 나가봐야 하겠습니다. 후에 다시 들리겠습니다. 몸조리를 잘하십시오.》

아버지는 너무 황송해서 인사말도 변변히 올리 지 못하였다. 덕부가 뒤따라 일어서며 아버지앞에 무슨 꾸레미를 내놓았다.

《이전 파견원동지가 오는 길에 사온 약인데 처방대로 써보십시오.》

《영?!...》

《자요.》 덕부는 아버지의 손에 약꾸레미를 쥐여주고는 서둘러 파견원을 따라나섰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난생처음 사람대접을 받아보는구나. ...》

다음날부터 아버지는 제철소구내결에 자리잡고있는 철공소에 출근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그날은 아버지가 별스레 희색이 만면해서 집에 들어섰다.

철공소도 안 돌아가니 돈을 줄리도 만무한데?...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영문을 몰라하는데 아버지가 흥분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여보, 내가 이제 그전날의 강원삼이가 아닐세. 허허... 내가 글썄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부하가 되였네. 글썄 내가 말이지. ...》

사람들속에 묻혀가면 키가 작아 잘 보이지도 않던 아버지가 의기양양한 눈길로 어깨를 뒤로 잔뜩 젖히고 날 바라 했다.

어머니도 나도 어리둥절해 가무잡잡한 아버지의 얼굴만 지켜보는데 끄끙거리며 허리춤에서 무엇인가 끄집어내려고 애썼다. 혹시 하고 기대어린 눈길로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손에 쥐어져나온것은 만년필대만 한 열쇠였다. 그 열쇠만 봐도 자물쇠가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할만 했다.

두눈이 마룩마룩해서 바라보던 동생들의 감승감승한 얼굴에 한순간 침울한 빛이 어렸다.

모두 실망한 얼굴로 아버지를 보고있는데 아버지는 그 열쇠를 점도록 바라보며 시뭇이 미소짓고

있었다.

《파견원어른이 나에게 자물쇠를 쥐여주며 말하더구만. 우리 장군님 전사들의 마음은 이렇게 찢러서 열려지고 저렇게 비틀어서 열리는 그런 헛쇠가 돼선 안된다구 말이야. 참, 사람구실하는 리치가 그 자물쇠에 새겨져있더라니까...》

그 말의 의미를 헤아리기에 그때 열세살 내 나이가 너무도 어렸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그 자물쇠에 아버지의 운명과 편결된 그 어떤 신비한것이 깃들어있다는것만을 어렴풋이 느끼었을뿐이었다.

허나 그 자물쇠는 결코 고스란히 잠그어져있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피눈물에 젖기도 하고 돈주머니와 부딪치기도 했으며 사나운 희오리바람에 시달리기도 했다.

3

나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밥심부름을 해주었다.

아버지는 거의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철공소창고에 붙어있는 경비실에서 살았다.

그날도 저녁밥을 가져갔는데 아버지는 밥보자가 아니라 내 손목부터 잡더니 경비실에 얹혀놓는 것이었다.

《내 잠간 다녀올데가 있으니 그동안 꼼짝말고 여기 있거라.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무작정 전화로 자위대를 찾아라. 인차 자위대원 한사람이 올게다. 알겠냐?》

《예!》

아버지는 못미더운듯 불안한 눈길로 쏘아보더니 젼걸음으로 사라졌다.

황혼이 깃들기 시작한 주위에는 어둠의 장막이 서서히 드리우고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고철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창고문에는 어찌 보면 커다란 수류탄갈기도 한 큼직한 자물쇠가 묵직하게 채워져있었다.

그 누가 함부로 다치기만 해도 폭발하든지 손가락이 잘리우든지 무슨 변이 날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두려운 눈길로 말없는 《파수병》을 점도록 바라보고 서있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제철소구내쪽에서 총소리가 야무지게 울렸다.

나는 후두둑 뛰는 가슴을 부여안고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분명 제철소사무실쪽 같은데 아리송했다.

(웬 총소리일까?)

나는 급히 짐작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파피된 제철소구내에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건물자리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몇번씩이나 넘어지며 내달리는데 어떤 그림자가 맞받아오더니 왁살스럽게 나의 옷깃을 거머쥐었다.

《이놈, 어딜 가?》

《에쿠!》

펄쩍 놀라 올려다보니 아버지의 성난 얼굴이 나를 노려보며 씨근거리고있었다.

《넌 거기서 자릴 뜨지 말라고 했는데... 어서 가!》

아버지가 나를 되돌려세웠다.

《예, 예...》

나를 돌려세운 아버지는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졌다.

《무슨 일인가?》

온밤 나는 교묘한 정적이 깃든 경비실에서 무서움에 시달리며 앉아있었다. ...

다음날에야 나는 여기 제철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날 경비실에서 자리를 뜬것은 당세 포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제철소사무실에 거의 다달았을 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들이 사무실을 습격하였다.

일은 눈앞에서 눈깜박할새에 벌어졌다. 검은 그림자들은 회의준비에 여념이 없던 당원들을 한순간에 사살하고 바람같이 사라져버렸다. 나라가 해방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어느 길로 나가야할지 갈팡질팡하던 그 소연한 시절에 당조직의 첫 산아들이었던 세명의 당원이 희생된것이였다.

세포위원장 덕부만이 중상을 당하고 병원에 후송되었다. 뒤늦게야 자위대가 추격했지만 반동들의 행처는 묘연하였다. 이 사건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누가 누구를 하는 계급투쟁의 첨예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파견원동지를 만나려고 했으나 평양에 올라가고 없어 만날수가 없었다. 시당에라도 찾아갈까 하였으나 창고가 못미더워 떠나지 못했다. 그속에서 또한 가정의 경제적타격이 아버지의 심중을 번거롭게 했다.

당장 끼를 꿇일 쌀이 없었다. 한쪽에선 슬금슬금 제철소와 철공소의 설비들을 내다팔아 횡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땀독았다.

아버지는 눈이 시퍼래서 자위대원들과 함께 제철소구내를 빙빙 돌았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문득 집에 들어왔다. 두 끼짜나 밥을 못 날라다주니 시장기를 참을수 없었던 모양이였다.

아버지가 들어선 집안팎은 말이 아니였다.

나타나다 기운 옷을 걸친 자식들은 말할것도 없고 아버지를 반겨맞을 기력도 없는듯 두눈만 멀뚱거리고있는 막내 봉록이의 정상이 더 불쌍했다. 양철판 쪼각들을 뒤집어쓴 천정에선 가을바람에 흩먼지가 부시시 떨어지고 찢어진 문풍지가 풀뚝거렸다.

아버지는 김이 새뽕얇게 서린 부엌을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어머니는 두부장사를 시작했는데 잘 안되어 본전도 못 찾는 형편이였다.

어머니가 부엌바닥에서 크고 순한 두눈을 습벽이며 올려다보았다.

《뭘 좀 잡수셨수?》

《어디서?》

아버지가 대답지 않은 눈길로 마주보며 소리쳤다.

《물어보는데 성은 왜 내우?》

어머니가 시름겨운 눈길을 내리깔며 두부짢 비지밥을 올려보냈다.

아버지가 수저를 들다말고 측은한 눈길로 우릴 둘러보았다.

《너희들은 뭘 좀 먹었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이 마름마름해서 새초롬히 앉아있던 동생들이 머뭇머뭇 다가들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보며 지청구를 하였다.

《저것들 보지? 굶었어, 굶었어?... 굶었나 말이야?》

아버지는 말없이 수저를 놓으며 담배쌈지를 꺼내 펼쳤다.

아버지가 담배연기를 길게 뿜으며 시름겨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조금만 참자꾸나. 해방이 되었는데 이제 달라지는게 있겠지. ...》

이때 밖에서 《형님, 계시우?》 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아버지가 방문을 여니 황혼깃든 마당에 중절모를 눌러쓴 얼굴이 가름한 젊은 사람이 서있다가 누가 불세라 제잡담 들어왔다.

밖의 동정을 흘끔흘끔 살피며 도적고양이 기여들듯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은근히 마음이 질렸다.

아버지는 초면이 아닌듯 울퉁불퉁한 눈으로 치며 보며 성가신 어조로 물었다.

《왜 또 왔나?》

중절모가 곰상곰상해서 아버지곁으로 다가왔다.

《형님, 내 값을 좀 올려놔수다.》

《응?! ...》

중절모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더 바싹 다가왔다.

가로치짜진 눈길 돌아가는 품이 어쩐지 심상치 않게 보였다.

《한장당 8원에 말이우.》

뭇가 8원이란 말인가? 돈소리에 나의 귀가 솔깃해졌다.

아버지가 썩살이 박힌 손바닥을 뻗어 내저었다.

《8원이구 100원이구 안된다질 않아, 가게!》

한순간 중절모의 눈길이 표독스러워지더니 인차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중수다. 장부일런 중천금이라 선금을 먼저 놓수다.》

중절모가 웃웃 안섶에서 꺼낸 봉투를 터치자 시

빨간 지폐뭉치 한귀통이가 드러났다.

《?!...》

나는 저도 모르게 입을 짝 벌리었다.

지금껏 저런 돈뭉치를 본적이 없었다.

사이문턱너머에서 거꾸시한 머리를 들어올린 어머니도 얼이 나간듯 한 표정이었다.

중절모가 새하얗고 가느다란 두손가락으로 그 봉투를 아버지앞에 쑥— 밀며 혼시조로 말했다.

《아직 등록된 적산도 아닌데 뭘 걱정하시우? 누가 파고들면 절반쯤 분실됐다고 뻔뻔판이지.》

아버지의 왼쪽눈귀가 가볍게 떨리었다.

그리고는 착잡한 눈길로 지폐뭉치를 바라보며 괴롭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중절모가 여유있는 몸가짐으로 가치담배를 꺼내 물더니 나에게로 돌아앉았다.

《넌 술이나 몇병 사와라, 고기도 사오고. 너희들 사탕도 사오고...》

중절모가 다른 주머니에서 또 지폐 몇장을 꺼냈다. 내가 어쩔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짹 소리쳤다.

《건어넣게! 이것두...》

아버지가 돈봉투를 확— 밀어버리었다.

《아니?!...》

중절모는 뜻밖인듯 작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쏘아보더니 어이없다는듯 눈웃음을 쳤다.

《형님! 이제라도 어디서 훔 실어가면 그땐 후회해도 필요없어요. ...》

아버지가 찌뻗한 눈길로 중절모를 바라보며 손으로 문을 가리켰다.

《가게! 나가!》

중절모가 쓴웃음을 짓고 돈봉투를 다시 안주머니에 쑥넣으며 력설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호박잡을 기회라는게 늘쌍 있는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버럭 소리질렀다.

《당장 사라져!》

중절모는 여전히 곰상곰상했다.

《예, 갑니다, 가야지요. 좌우간 생각 좀 해보시우.》

그놈이 조용히 사라졌다.

아버지가 문짝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거간군같은 놈, 특수강판을 먹자구. 흥!》

나는 그때야 지금껏 특수강판을 놓고 흥정했음을 깨달았다.

《8원! 강판 한장에 8원이란 말이지.》

심장이 쿵쿵 뛰었다.

40~50원에 소 한짝이 왔다갔다하던 때이니 아버지는 정녕 수십마리 소를 건사하고있는셈이다. 강판 한장만 있어도 며칠동안 흰쌀밥을 먹을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표정을 흘끔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찢어져 너풀거리는 문풍지를 쏘아보며

무슨 생각에 골몰해있는것 같았다.

나는 마른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아버지! 저... 강판 한장이면...》

갑자기 《예끼— 이녀석!》 하며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금시 자라목이 되었다.

아버지가 커다란 손바닥을 허공에 번쩍 쳐들며 벌떡 일어섰다.

나는 눈을 꼭 감으며 어금이를 앙다물었다.

그런데 철썩! 하는 귀뺨치는 소리대신 쿵 하고 문닫기는 소리가 났다.

조심스레 눈을 떠보니 사라지는 아버지의 뒤모습이 문틈으로 얼핏 보였다.

나의 두눈엔 눈물이 그렇게 흘렀다.

(흥, 백번 그래보지. 저렇게 살아서야 언제 팔자를 고친담!...)

어머니가 불군 콩소랭이를 들여보낸다.

《애 봉수야, 망질이나 좀 하렴. ...》

그러나 어머니의 침울한 목소리는 나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한장당 8원!) 중절모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떠나지 않고 웅웅거렸다.

그게 몇장만 있으면...

4

그날도 아버지의 밥심부름을 해주고 돌아오던 나는 우리 집에서 울려나오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아우성소리를 들었다.

상서롭지 못한 예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무슨 일일가?》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간 나는 마당에 거품을 물고 늘어져있는 막내동생을 보게 되었다.

《봉록아! 봉록이가 웬일이야?》

내가 급히 다가가 막내동생을 잡아흔드니 이미 싸늘하게 식은 시체였다.

애록애록하던 입술이 검푸른 빛을 띠고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사연을 묻기 전에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불구가 된 다리를 끌며 땅바닥을 허비는 어머니의 곡성이 나의 가슴을 옥죄여들게 했다.

《어이구 불쌍해라, 우리 봉록이 불쌍해라.》

나는 동생들이 떠듬떠듬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충 사연을 알게 되었다.

막내동생은 너무도 배가 고플 나머지 며칠전에 쓰레기장에서 변질된 음식을 주어먹고 식중독에 걸려 앓더니 끝내 죽은것이였다.

해방이 되여 이젠 흰한 세상이 오는가 했는데 네가 죽다니?!...

너무도 억이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쇠뿔등이에 얻어맞은듯 눈앞이 어질어질해왔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아버지, 봉록이가 죽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봉록이가 죽은것도 모르고 돌부처처럼 나무의자에 앉아있을것이다.
 아, 너무도 무정한 아버지구나!
 연약한 어머니에게 가정의 중하를 통채로 떠맡기고 자식들의 지지같은 몰골에도 그리도 무관심하다니...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는 이윽도록 막내를 그러안고 장알박힌 마디굵은 손으로 막내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막내의 식은 얼굴에 아버지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었다.
 동네사람들이 막내를 내갈 때도 덤덤히 담배만 태우고있을뿐이었다.
 (아버지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가정형편을 더 보구만 있지 않을것이다. ...)
 허나 그것은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였다.
 생활에서 그 어떤 미봉책도 없는 아버지를 믿고 가만 앉아있을수는 없었다.
 어느날 나는 아버지를 구슬려볼 결심을 내리었다.
 나는 아버지의 저녁밥보자기에 외상술을 세병 받아다 찢어넣었다.
 경비실에서 밥보자기를 받아든 아버지는 술병을 보자 자못 놀라와했다.
 《아니, 이게 웬거냐?》
 《어머니가 돈을 좀 벌었어요. 아버지가 속이 상해있겠는데 한잔 드리라고 해서...》
 나는 본의아닌 거짓말을 했다.
 《그래!》 아버지가 머리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쪽창의 석양빛에 술병을 비쳐보며 색깔을 눈여겨보았다.
 저게 술마시는 순서인가?
 오늘은 좀 별스럽다.
 혹시 술병 가져온 내막을 눈치챈건 아닌지?...
 아버지가 느슨한 미소를 짓고 사려깊은 눈길로 이윽도록 나를 보더니 술병을 보자기에 도로 싸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빛이 추연해졌다.
 《봉수야, 너도 이 술주정뱅이아버지때문에 그동안 속을 많이 썩었지? 내 언젠가는 너희들에게도 용서를 빌자고 했다. 왜놈세상에선 취하지 않고서는 살수가 없었지. 그러나 내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중한 일을 놓고 술을 찾는다면 그게 어디 장군님앞에 머리들 일어나. ...》
 나는 그만 아연해져 입을 딱 벌리었다.
 아버지가 나의 손목을 꼭 잡으며 자기의 결심을 재삼 표명했다.
 《너도 미덥지 않은 모양이구나. 믿어라! 이제 절대로 술에 취해서 살지 않겠다. 이 아버

지를 믿겠지?》
 나는 슬며시 손목을 빼며 눈길을 허둥거렸다.
 《아 그럼... 믿지 않구요! 믿어요. ...》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거렸다. 일은 참 공교롭게 되었다.
 술이 없이는 세상살이를 못한다던 아버지가 술병을 밀어놓다니?!...

다른 때 같으면 이제 술을 안 마시겠다고 호언하는 아버지앞에서 나는 너무도 감지덕지해 세번 절을 했을것이다. 그러나 그 시각엔 술병을 밀어놓는 아버지앞에 어지간히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듯 하던 아버지가 침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난 네가 오늘 무엇때문에 술병 가지고 왔는지를 다 안다. 봉수야, 내 말을 명심해들여라. 농군은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으랬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 제 근본은 버리지 말라는 소리다. 이 강관은... 나라의 재산이다. 이 강관을 지키지 못하면 난 다시 벌레같은 인생이 되고말아. ...》
 아버지의 저력있는 목소리가 나의 심금을 흔들었다.
 《그래서 내 지키자고 한다.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정신을 간직하고 지키는 길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기에... 내 죽더라도 지키자고 하는거란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투박한 말투에 숨겨져있는 의미를 다 헤아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특수강관이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아버지의 전부라는것만은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두눈을 슬며시며 그 자물쇠를 점도록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나 그 자물쇠는 또다시 무지한 권력의 《열쇠》앞에서 부대껴야 했다.

5

그날도 나는 밥을 싸들고 철공소창고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가 경비실에서 한창 식사를 하고있는데 한 자위대원이 급히 찾아왔다.
 시당에서 내려온 간부가 아버지를 찾는다는것이였다.
 《시당에서?!...》
 아버지는 한동안 작은 눈을 슬며시더니 천천히 수저를 놓고 일어섰다.
 《그럼 잠깐 여길 좀 봐주오!》
 자위대원에게 창고경비를 부탁한 아버지는 옷맵시를 바로하며 휘적휘적 밖으로 나갔다.
 나도 천천히 뒤따라 일어섰다.
 아버지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싶어하

는 소년의 호기심이 나를 앓아배겨있지 못하게 하였다. 제철소사무실쪽에서 자위대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던 장발의 사나이가 아버지를 보며 반색을 지었다.

입가엔 분명 미소를 지은것 같은데 눈길은 사람을 중편보는듯 한 거만한 눈길이었다.

해방전 《로조》 간부로서 자신을 《옥중투사》로 자처한다는 시당의 《어른》이었다.

로씨야제고급승마복에 승마장화를 신은 《어른》은 아버지에게 소탈한 몸가짐으로 손을 내밀었다. 허리를 굽석이는 아버지는 몹시 황송한 얼굴이었다. 그 《어른》이 다심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적산물자〉를 지키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소!》

아버지가 뜨직뜨직 대답했다.

《나야 응당 할 일을 했지요. ...》

《좋아, 종단 말이야! 프로테타리아 우리 로동계급은 항상 이렇게 성실하거든. 내 여기 내려왔던 파견원동무에게서 동무의 이야기를 들었소. 어쨌든 이렇게 볼셰비크당원을 여기서 만나니 반갑소!》

아버지의 두눈이 축축해졌다.

《그런데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른》이 아버지를 격려했다.

《알고있소. 첨예한 계급투쟁과정에서 우리의 선혈이 이 땅을 적시는건 불가피한 일이요. 고독했겠지? 내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내려와 동무를 만나주는게 아니겠소.》

아버지는 황송한듯 어깨를 좁히고 감심한 표정이었다.

《내가 내려온건 다르게 아니구 이젠 그 〈적산물자〉를 시당에 올려가자고 하오.》

《그럼 나도 한시를 놓겠수다.》

만족해하던 아버지가 정색해졌다.

《헌데... 그건 어디 쓰자구...》

《어른》이 꺾꺾 웃었다.

《내 오늘 우리의 당원앞에서 뭘 숨기겠소. 다르게 아니구 그거로 프로테타리아혁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자는거요.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로조를 못고 로동자들을 일시키자고 해도 그들에게 줄 돈이 없소. 생각해보오. 왜놈들도 임금을 지불하며 일을 시켰는데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해 싸워온 우리 공산당이 무보수로동을 강요할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렇기도 한데...》

그자가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아직도 석연치 못한것이 있소? 허허, 그동안 수고가 많았는데 동무에게 특별한 보수를 지불하겠소. 동문 그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소. 자, 그럼 매일 차를 보내겠소.》

《예. ...》

《어른》이 인사하는 자위대장에게 흰 장갑 낀 손으로 답례하며 풍을 친 차안에 올랐다.

차는 곧 떠나갔다.

차가 남긴 배기가스가 고즈넉이 떠돌며 후각을 자극했다. 그속에서 아버지는 한동안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 주위에서 락엽이 스텝스텝 딩굴고있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던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고 우뚝 멈춰섰다.

《넌 왜 여기 서있느냐?》

《저... 집으로 가던 길에...》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있지 않았다.

나를 뚫어지게 보았지만 실상 그 눈길은 그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눈길이었다.

아버지가 느닷없이 물었다.

《봉수야, 너도 차가 떠날 때 그안을 봤느냐?》

《아니... 못 봤어요!》

《분명 나를 찾아왔던 그 거간군이야!》

아마 그 종절모가 시당 《어른》과 함께 동행했던 모양이었다.

《봉수야, 넌 경비실에 좀 가있거라. 내 잠깐 시병원에 다녀와야겠다.》

아버지는 인츰 사라졌다.

그날 아버지가 찾아간것은 중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고있는 세포위원장 덕부아저씨를 만나 특수강판처리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후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공장 첫 당원들의 심장이 어떻게 고동쳤는가를 짐작할뿐이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자위대원들을 휘동해서 철공소창고앞에 모이게 하였다.

모두 어리둥절하여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마라초봉지를 돌리며 모두 한대씩 피워물게 하고는 자위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다.

《임자가 당에 들 준비를 한다는게 사실인가?》

덕부후임으로 자위대장이 된 키가 큰 청년이 뜨아한 눈길로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예?!... 아닌 밤중에 그건?》

《사실인가 말일세?》

《그렇수다. 헌데 왜요?》

아버지가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내 너무 좋아서 그래!》

자위대장이 그때야 생각난듯 누가 듣지 않나 사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참, 봉수 아버지가 이미전에 당에 들었다는게 사실이요?》

그때당시 첫 당세포는 공개되어있지 않았다.

시당 《어른》이 볼셰비크당원이요, 뭐요 하는 소릴 듣고 어지간히 놀랐던 모양이다.

아버지가 어깨를 쭉－ 폈다.

《그래, 난 당원일세. ... 하지만 실상은 나도 당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는 몰라. ... 파견원동지가 이야기하더구만. 그저 우리 장군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받들면 된다고... 우리 장군님 세우시는 나라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세상이니 그런 새세상을 세우기 위해 장군님 따라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말이우, 지금 시당에선 이 특수강관으로 무슨 〈자금〉을 마련한다는데 임자 생각은 어떤가?》

《글쎄요. ... 그거야 어른들이 어련히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요.》

자위대장의 애매한 대답에 아버지의 이마에 주름살이 더 늘었다.

《그러니 임자 우리가 주인된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이익과 관계없으니 특수강관이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 소린가?》

자위대장이 두눈을 디룩거렸다.

《아니, 이거 사람을 어떻게 보구 하는 소립네까?》

《알지, 자네들을 내가 왜 모르겠나.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면 다르게 없네. 그저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사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지키는거야!

그래서 내 결심은 오늘 밤중으로 특수강관들을 가스관이 들어간 지하실로 옮기고 매몰해치우자는 결세. ... 그래야만 보존할수 있을것 같네.》

자위대장이 두눈이 멀뚱거렸다.

《래일 당장 시당에서 차가 나오겠는데 아바이가 무사하겠수?》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버지의 왼쪽눈귀가 푸들거렸다.

《흥, 무사하지 않으면 어쩔텐가? 파견원어른은 분명 말했어. 특수강관을 지키는것은 장군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진 임무라고! 그래 생각들해보게. ... 우리 장군님이 찾아주신 이 나라 재산을 장군님의 말씀이 없이 누가 감히 손댄단 말인가?》

《웁수다.》

《오늘 밤중으로 치웁시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자위대장의 손을 잡았다.

《후에라도 내 신상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자네들은 간참할바가 아닐세. 다만 파견원동지가 오게 되면 한 당원이 끝까지 장군님의 뜻을 받들었다고 자위대장 자네가 대신 보고해주게!》

그날 밤중으로 특수강관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 다음날 나는 온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철공소에서 서성거리었다.

아버지가 몇번씩 들어가라고 일렀지만 나는 일이 어떻게 번져질지 몰라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시당에서 보낸 석대의 자동차는 그날 저녁 황혼이 깃들무렵에야 나타났다.

나는 신경을 도사리고 발뼉발뼉 창고가 보이는

곳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경비실에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있다가 운전사가 깨워서야 일어섰다.

몇명의 젊은 녀석들이 차적재함우에 버티고 서있었다. 아버지는 한껏 기지개를 켜더니 《강관 말이우? 예, 어제 지령을 받았지요.》했다.

《열쇠를 내놓소!》

젊은 녀석이 조금하게 다물아댔다.

아버지가 허리춤에서 열쇠를 뽑아들었다.

《자, 옛소! 후— 이제 한시름 놓이는군.》

그들이 다가가 자물쇠를 여는 사이 아버지는 담배를 말았다.

스르륵... 썬르륵... 열쇠비트는 소리가 신경을 팽팽하게 자극하더니 덜컥 자물쇠가 고리에서 빠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이제 일이 터질것이다.

철문이 썬— 하며 야단스레 열리었다.

갑자기 쥐죽은듯 정적이 깃들더니 《령감!》하는 째는듯 한 소리가 울리었다.

천연스레 담배를 빨던 아버지가 눈을 습벅이었다.

《왜 그러우?》

《강관이 어딜 갔소?》

《영? 강관이 없다니?!》

아버지가 허겁지겁 창고로 다가가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허... 그럼 내가 지금껏 빈 창고를 지켰는가?》

젊은 녀석이 심악스러운 눈길로 치훔고 내리훔고 하더니 맞갖잡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빈 창고?... 령감도 강관을 못 보았다는거야?》

《허... 나야 열쇠 하나 넘겨받구 언제 창고문을 열어나 봤나? 여기에 강관이 있겠거니 했지. ...》

《응?》 그들이 아연했다.

《여기 전화기가 있소?》

《저기...》 아버지가 턱짓했다.

한 녀석이 종이 난 걸음으로 경비실로 들어갔다. 우에다 실태를 알리려는 모양이었다.

잠시후 나타난 그 녀석이 아버지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차에 오르시오. 함께 올라오라는 지시요!》

아버지는 피우던 담배가 아까운듯 한모금... 두모금 더 빨더니 이내 집어던지고 천천히 자동차에로 향했다.

숨어서 지켜보던 나는 더 다른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총알처럼 튀어나가며 울음질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버지! 어데 가요? 아버지—》

아버지가 흠칫 멈춰서더니 침착한 눈길로 나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와 안긴 나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뜨직뜨직 입을 열었다.

《내 인츰 온다. 저 자물쇠를... 잘 잠그고 있어. ...》

미구하여 자동차들은 굳어져 서있는 나에게 먼지와 배기가스를 들썩우며 떠나갔다.

어디로 갈까?...

나는 한동안 차를 따라 달리다가 우뚝 섰다.

정녕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6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났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제철소와 철공소에 당세포들이 다시 조직되고 질서가 잡혀갈무렵 아버지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옆의 사람도 속이 탈 정도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후에 안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때 처벌을 받은 몸이었다.

특수강관을 누구와 공모해서 어디로 빼돌렸는가?

새로 조직된 보안기관에서 아버지를 취급했다. 문초가 대단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돌려세울수 없었다.

시당에선 파견원이 내려올 때까지 당분간 이 문제를 미결로 남겨놓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처벌문제를 취급했다.

《무슨 할 말이 없소?》

《없수다!》

《흠, 우리 시당내에 저런 당원이 있었다는게 수치요!》

아버지는 한동안 갑자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엇이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장군님이 절세의 애국자라는것만은 잘 알고있수다.》

이것이 처벌이 결정되던 날 아버지가 한 말이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철공소에 나가 살았다. 자위대원들이 말없는 눈인사를 보낼뿐 누구도 아버지에게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밥을 날라다주고 나오려는데 낮익은 보위색군복을 입은 파견원동지가 인기척도 없이 문득 들어섰다.

밥보자기를 싸던 아버지의 손이 굳어졌다.

미구하여 왼쪽눈귀가 푸들푸들 떨리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기다리던 사람인가. ...

하지만 예상외로 그 상봉은 뜨거운 격정의 포옹이 일지 않았다.

그 상봉이 너무도 미미하여 의아해할 정도였다. 한동안 침묵속에 서로 눈여겨보는것 같았다.

파견원이 다감한 어조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내 도당에 들어서 그간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참, 막내아들이 잘못되었다던데 아주머닌 몸져눅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왼쪽눈귀가 더욱 세차게 떨리었다.

《파견원어른! 창고가 비어있었다는 소릴 들

었겠는데 왜 그걸 먼저 묻지 않소?》

파견원이 믿음어린 눈길로 아버지를 보았다.

《왜 비어있겠습니까, 난 믿습니다. 특수강관은 아바이의 심장속에 깊이 간수되어있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만에야 두사람이 와락 그러안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리었다.

《왜 이제야 오우?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파견원도 두눈을 습벽이었다.

잠시후 파견원이 아버지를 나무의자으로 이끌었다.

《그동안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제기되는통에 미처 내려올수가 없었습니다. 참,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봉수 아버지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우리 로동계급이 참 장하다고, 자신께선 그런 로동계급을 믿고 새 조국 건설을 하려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봉수 아버지가 찾아내어 지키는 그 특수강관은 앞으로 창설될 국방공업의 큰 밑천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내려가시면 그 동무를 한번 꼭 만나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지의 왼쪽눈귀가 더욱 세차게 떨리었다.

《장군님! 특수강관도 장군님 찾아주신 이 땅의것인데 제가 한계 뭐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으로 높이 쳐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장군님, 내 장군님을 모시는 그날 장군님앞에서 꼭 자물쇠를 열겠습니다.》

나의 눈가에도 눈물이 그렇게 고이였다.

아, 아버지! 아버지가 가정잡사앞에서, 흔들거리는 돈주머니와 무지한 권력앞에서 순간이나마 저 자물쇠를 열었다면 장군님앞에 어떻게 떳떳이나설수 있으랴. 저 자물쇠를 열자고 나도 애원의 《열쇠》가 되어 달라붙었고 중절모는 돈주머니 《열쇠》를 들고 다가들었으며 어떤 인간들은 쇠몽둥이 《열쇠》로 내리치기도 했다.

《헛쇠》라면 백번도 더 열렸을 자물쇠!

세월이 흘러 마지막당비를 바치고 운명하던 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 자물쇠를 유산으로 넘겨주며 마지막말을 남기었다.

《〈헛쇠〉가 되지 말아라. 우리 전사들의 심장은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뜻으로만 열리는 그런 진짜배기자물쇠가 되어야 한다. 아무 열쇠나 찢어서 쉽게 열리는 〈헛쇠〉가 되어서는 우리의 소중한 모든것을 지켜내지 못해!》

×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석양비끼 창가에서 아들은 생각깊은 눈길로 그 자물쇠를 소중히 쥐고 점도록 보고있다.

어떻게 잠그어지고 어떻게 열려야 하는가를 말없이 이야기하는 그 자물쇠!...

불 타 는 노 을

정 철 학

노을아 붉은 노을아 붉게만 타는 노을아
뜨거운 너의 불길 언제나 내 심장에 담아두네
그러면 나의 가슴은 낮도 없이 밤도 없이
아 뜨겁게 탄다네 나의 태양 따라서
—주인공이 사랑하는 노래중에서—

부상병을 업은 홍룡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등뒤에서는 적땅크의 무한게도소리가 아츠럽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이 강철괴물이 그들을 죽이지 못해 이를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광— 땅크가 또다시 굉음을 내뿜었다. 그 순간 홍룡은 오른쪽다리를 후려치는 강한 충격과 함께 폭풍에 날려 나가넘어졌다.

깜박하고 의식이 혼미해질듯 한 한순간이 지나간 후 홍룡이 머리를 들어보니 부상병은 몇걸음쯤 떨어진 곳에 쓰러져있었다.

몸을 일으키려던 홍룡은 신음소리와 함께 주저앉았다. 오른다리에 심한 아픔이 느껴졌던 것이다.

홍룡은 가까스로 기여가 부상병을 마구 흔들었다.
《동무—》

부상병의 눈시울이 바르르 떨리더니 입술사이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살았구나.

이때 곁에서 또다시 포탄이 터졌다.

부상병을 깔고 엎드렸던 홍룡은 피진 눈으로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땅크를 쏘아보았다. 품에 안긴 부상병은 또다시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이를 사려물고 반땅크수류탄을 꺼내들었다. 적땅크가 그들을 깔아뭉갠듯 코앞으로 다가드는 순간 홍룡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수류탄을 내던졌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것은 적땅크에서 솟구치는 화염에 비껴 더욱 붉게 타오르는 저녁노을이었다. …

홍룡은 눈을 떴다. 노을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있었다. 그는 무심결에 오른다리를 만져보았다. 땀뻑한 의족이 손에 마쳐졌다. 뒤미처 50여년의 기나긴 세월이 그의 의식속에 찾아들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자기 집 침대에 누워있으며 눈앞에 보이는 노을은 창가에 비낀 아침노을임을 깨달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어제꼈다. 그의 눈앞에서 붉은 노을은 차츰 금빛으로 변하였다. 그에 따라 길가의 가로수잎새며 잔디들이 모두 짙은 녹색으로부터 비취색으로 바뀌었다. 창문앞의 수삼나무가지가 불그레하게 물들고 날새들의

날개도 금빛으로 반짝이었다. 만물이 모두 령롱한 웃음을 띠었다.

홍룡은 나직이 속삭이었다.

《전쟁때 일이 꿈에서 보였구나.》

홍룡이 사는 락랑구역 승리1동의 고층살림집뒤 나지막한 둔덕은 원래 나무 한대 찾아볼수 없는 텅 빈 공지였다. 그런것을 홍룡이 양묘장을 찾아다니며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한대한대 얻어다 애써 가꾸어 오늘은 제법 무성해진 수림을 이루었다. 누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나 사람들은 이곳을 《로병림》이라고 부른다.

그날도 홍룡은 《로병림》에서 나무를 가꾸고있었다. 머리우에서는 새소리가 유정하게 들려오고 발밑에서는 지난해의 락엽냄새가 풍겼다.

《저… 리홍룡동무가 아니요?》

어린 나무의 반침대를 고쳐매는데 골몰하던 홍룡은 뒤를 돌아보았다. 어깨에 큼직한 별 두알이 번쩍이는 한 장령이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있었다. 그의 앞가슴에서는 영웅메달이 나무의 잎새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해빛을 받아 유난스레 빛을 뿌렸다. 홍룡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어딘가 낯이 익어보였으나 안타깝게도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뉘신지…》

장령은 모자를 벗었다.

《날 모르겠소? 나 인택이요, 한인택이란 말이요.》

《아니?!》

홍룡의 눈이 빛났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초여름의 신틱이 한껏 질어가는 수림에 마음이 이끌렸던지 목주위에 흰 무늬가 진 까치 한마리가 함치르르하게 물이 오른 연청색잎으로 단장한 버드나무가지에 재롱스레 매달려 깉깉 하고 우습강스럽게 목을 뽑아 지저귀고는 부리로 날개를 쓰다듬었다.

수십년만에 만난 두 전우의 회포는 끝이 없을상 싶었다. …

《난 지금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 동무가 날 구원해주던 일이 종종 떠오르군 하오. 동무도 기억나겠지?》

인택의 말에 홍룡은 가볍게 미소지었다.

《그걸 어떻게 잊겠나요. …》

그들은 어느덧 과거의 추억속에 빠져들었다. …

정말 딱한 일이었다. 홍룡은 혼자인데 부상병은 둘이었던 것이다. 소대장 한인택은 두다리가 골절되었고 애어린 전사는 복부에 심한 중상을 입었다. 마지막탄알조차 다 떨어진 그들은 홍룡이 발견했을 때 산중턱웅덩이에 누워있었다. 산밀의 도로에서는 부르릉거리며 적들의 땅크며 군용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사동무를 업고가요. 난 너무 무거워서 준의 동문 일어서지도 못할거요.》

인택의 말에 전사는 황급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안됩니다. 우리 소대장동지를 업고가십시오.》

인택은 어성을 높였다.

《동문 중상을 당해서 빨리 수술을 받지 못하면 위험해. 준의동무, 어서 전사동무를 업고가요. 이젠 명령이요.》

홍룡은 전사를 들쳐업으며 나직이 말했다.

《기다려요. 꼭 돌아오겠어요.》

홍룡과 전사가 떠난지 이틀이 지났다. ...

의식이 혼미한 속에 누워있던 인택은 인기척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몸을 일으켜 살펴보니 먼발치에서 미국놈 하나가 흔들흔들 다가오고있었다.

인택은 죽은듯 눈을 감았다. 발걸음소리가 차츰 가까와지더니 인택의 바로 곁에서 멎었다. 머리를 숙이고 인택을 들여다보는 모양인지 그놈의 숨결소리가 짐승같은 노린내와 섞여 풍겨왔다. 순간 인택은 벼락같이 그놈의 목줄기를 움켜잡았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만 인택은 피를 많이 흘렸던지라 끝내 그놈에게 깔리게 되었다. 목을 조르는 손에 점점 힘이 가는 반면에 인택의 의식은 차츰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젠 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놈이 《억—》 하는 외마디비명을 터치더니 풀썩 인택의 몸우로 무너져내렸다.

《후유—》

인택은 한참만에야 숨을 돌리고 그놈을 밀어치우고 몸을 일으킬수 있었다. 카빙총을 거꾸로 든 홍룡이 눈에 띄어있다. 그 총은 인택이 덮칠 때 미국놈이 떨어뜨린 것이었다.

《전사동문 어떻게 됐소?》

《차를 만나 태워보냈어요.》

홍룡은 그를 일으켜 업었다.

《이젠 가자요.》

이렇게 그들의 간고하고 시련에 찌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길이 시작되었다. 그 나날들은 매 순간마다 인택에게 계속되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상처의 동통도 굶주림도 공포도 다 참고견딜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괴로운것은 수백리길을 순전히 연약한 처녀의 등에 업혀가야 하는 것이었다. 홍룡은 체소한 처녀였으나 인택은 구척의 장골이었다. 홍룡이 그를 아무리 들쳐업어도 인택의 발은 땅에 질질 끌리우곤 하였다. 그럴 때면 인택은

속으로 신음소리를 씹어삼켰다. 부상당한 다리가 땅에 쓸려서가 아니었다. 식은땀을 바질바질 흘리며 자기를 업고가는 애어린 처녀의 모지름이 그의 잔등을 거쳐 인택의 가슴을 예리한 칼날인듯 마구 찌시는 때문이었다.

어느날 홍룡이 인택을 산중에 두고 식량을 얻으러 마을로 내려갔을 때 그는 결심을 내렸다.

(이대로 갈순 없다. 이러다간 둘 다 잘못되고말게야.)

그는 기다리라고 한 장소를 벗어나 기기 시작했다. 홍룡이 돌아오기 전에 한치라도 그곳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있는 힘껏 기고 또 기었다. 나중에는 경사급한 비탈에서 몸을 마구 내리굴렀다. 그러다... 끝내 의식을 잃었다.

그는 홍룡이 찾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소대장동지—》

인택은 얼른 주변의 잡관목틈에 몸을 숨겼다. 그의 곁을 지나 차츰 멀어져가는 홍룡의 애타는 부름소리를 들으며 인택은 문득 이전의 일을 상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첫날에 있는 웅진해방전투때 일이었다. ...

시내중심의 커다란 건물안에 들어박힌 적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맹렬한 화력으로 아군의 공격을 막고있었다. 인택이 속한 대대는 건물주위의 도랑에 었드려 좀처럼 일어서지 못했다.

이때 대대장 문성혁이 《날 엄호하오!》 하고 웨치며 손에 수류탄을 들고 기여나갔다. 건물마당에는 포탄과 탄약상자, 연유도람통 같은 군수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대대장의 의도를 알아차린 대대는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일순간 적들의 화력이 증증해진 틈을 타서 성취대대장은 비호같이 허물어진 담장을 뛰어넘으며 수류탄을 내뿜었다. 순간 도람통들이 폭발하면서 무서운 불길이가 그를 휘감았다. 건물주위와 마당은 삼시에 충전하는 화염에 휩싸이였다. 이제 한순간이 지나면 포탄상자들이 튀면서 건물은 하늘로 날아날 것이었다. 이때 누군가가 화살처럼 건물마당에 뛰어들었다. 길길이 치솟는 불길속에 사라졌던 그의 모습은 잠시후 다시 나타났다. 그의 등에는 대대장이 업혀있었다. 건물에 갇힌 적들의 단말마적인 맹사격으로 그의 주위에서는 적탄이 콩튀듯 하였다.

빨리 빨리— 온 대대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는 찰나 굉장한 폭음이 일어났다. 건물은 송두리채 떠올랐다가 산산조각이 되어 무너져앉고 그들은 폭풍에 날려 나가넘어졌다.

인택은 전사들과 함께 허둥지둥 달려갔다. 대대장을 업은채로 쓰러진것은 다름아닌 대대준의인 홍룡이었다.

먼저 정신을 차린것은 대대장이였다.

《홍룡동무—》

홍룡은 빠끔히 눈을 떴다. 그의 입술사이로 흘러나온 첫마디 말은 이러했다.

《대대장동진… 무사해요?》
 눈물을 모른다는 역센 사나이인 대대장의 눈가에 맑은것이 고였다.
 《무사하오. …》
 《그럼 됐어요. …》
 홍룡은 다시 눈을 감았다. 성혁은 갈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소. …》
 인택을 비롯한 대대전사들은 이 말이 홍룡이 처음 대대로 배치되어왔을 때 어린 처녀라고 성혁이 마뜩지 않게 대하던 일을 두고 하는 말임을 깨달았다.
 성혁은 말을 이었다.
 《동문 참… 훌륭한 동무요. …》
 인택은 그때 대대장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속삭이였다.
 《동문 정말 좋은 동지요. 잘 가오. 내 만일 살아남게 된다면 평생 잊지 않겠소.》…
 깊은 밤 하늘의 별들을 가리우며 먹장구름이 밀려들었다. 그 두터운 구름갈피를 찢어발기며 번개불이 번쩍하고 뒤미처 어디선가 우르릉 천둥이 울었다. 후드득 비방울이 선뜻하는가싶더니 샅시에 창살같은 소낙비로 변하여 억수로 쏟아져내렸다.
 인택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온몸이 물침봉이 되었지만 왜선지 기분좋은 나른함이 그를 감쌌다. 번개도 우뢰도, 그를 후려치는 폭우도 다 판세계의 일 같고 이대로 누워 영영 잠들어버리고만싶었다.
 이때였다.
 《여기 있었군요.》
 홍룡의 목소리였다.
 이제 꿈이 아닌가. 인택은 머리를 힘껏 털고 다시 보았으나 분명 홍룡이었다. 홍룡이 장대같이 퍼붓는 차거운 가을비를 맞으며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어서 가자요.》
 홍룡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듯…
 《싫소.》
 인택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동문 왜 왔소?! 왜 왔는가 말이요.》
 《그러지 말아요.》
 홍룡이 그를 달래듯 말했으나 인택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마구 고함을 질렀다.
 《가오, 어서 가오. 난 여기 있겠소!》
 홍룡은 아래입술을 감쳐물더니 아무 말없이 그를 잡아 일으키려 했다.
 《이걸 놓소!》
 인택은 옆의 잠판목가지를 꼭 붙잡았다.
 《이러지 말고 어서 가자요.》
 홍룡이 안타깝게 사정했으나 인택은 요지부동이였다.
 《동무 혼자 가오! 이러다간 둘 다 죽겠소.》
 홍룡이 인택을 아무리 잡아끌어도 잠판목가지를

꼭 움켜진 인택은 움쩍도 하지 않았다.
 《날 정 두고 가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한방 먹고 가오. 나한텐 그게 더 편하오!》
 홍룡은 손을 멈추고 몸을 꺾듯이 일으켰다. 무섭게 캄캄한 하늘을 쪽 가르며 시퍼런 총창처럼 비껴지나가는 번개불에 파랗게 질려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권총을 꺼내어 안전장치를 풀었다.
 우르릉— 황 무시무시한 퇴성이 땅뿌리를 우르르 흔들며 아득한 공간으로 메아리쳐갔다. 그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야무진 총성이 뒤따라 울려 퍼졌다. 순간 인택이 그러쥐었던 잠판목가지가 휘친하더니 똑 부러져나갔다. 홍룡이 그 가지를 쏘아 잘라버렸던것이다.
 홍룡은 권총을 집어넣고 인택을 잡아일으켰다.
 《어서 가자요!…》
 인택의 얼굴로는 눈물이, 비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홍룡의 등에 업힌 그의 손에서는 잘라진 나무가지가 여전히 쥐어져 데를거렸다. …
 《… 그런데 다리는 어떡하다 부상당했소?》
 인택의 물음에 홍룡은 저도 모르게 의족한 다리를 쓸어보았다. 간밤에 꾸 꿈이 언뜻 떠올랐다.
 《1211고지 앞계선에서였지요. 부대가 적들의 배후에서 빠져나올 때 난 부상병을 업고 뛰다가 그만 땅크포에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지요.》
 《그때… 그런데 어떻게 구원되었소?》
 홍룡은 나지막하게 대답하였다.
 《그 부상병이 나를 구원해주었어요.》
 《뭐라구?!…》
 인택의 얼굴에 의문이 짙게 어렸다.
 홍룡은 가볍게 웃었다.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
 사람은 자기 생명의 한계를 의식할 때가 있다. 지금 홍룡이 바로 그러했다. 그는 자기 몸안의 생명의 불길이 이제는 거의 사그라들어 희미한 불꽃만이 꺼질듯말듯 가물거릴뿐이라는것을 느끼고있었다. 하지만 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이 왜선지 심상하게만 여겨졌다. 온몸이 안온하고 무기력해지며 의식은 어두운 장막뒤로 끝없는 안식을 찾아 발뼘발뼘 다가드는듯 했다.
 홍룡이 막다른 고비에 빠져든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때마다 그는 부상병들에게 이렇게 외우곤 했다.
 《맥을 놓아서는 안돼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영영 일어나지 못해요. …》
 이렇게 말할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말에서 자각을 얻고 힘을 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글렀다. …
 지난 닷새동안 심한 부상을 당한 몸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부상병을 끌고 적진속을 기고 또 기여 여기

까지 이른 홍룡은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맥조차 남지 않았다. 그도 강철로 빚어만든 몸은 아닌 것이다. …

저녁의 어스름은 새벽의 안개처럼 하늘공중에서 뭉게뭉게 떨어져내려오는것이 아니라 땅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차츰 퍼져나오는것이다. 그래서 땅거미라는 말이 생긴것인지. 이 땅거미는 홍룡과 부상병이 숨어있는 나지막한 절벽밑의 구석마다에서 기어나와 앞에 키높이 자란 무성한 새초무지의 짙으로 스며들어 주위에 차츰 검은 장막을 드리워나갔다.

바위벽에 기대인 홍룡은 눈을 감았다. 무수한 별들이 캄캄한 허공에서 춤을 추고 온몸은 땅속으로 찾아드는듯 했다.

《홍룡동무!—》

이건 어디서 들려오는 목소리일까. 홍룡의 눈앞에 난데없이 별결게 상기된 대대장 문성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덧 홍룡은 과거의 환영속에 빠져들었다.

… 그때 홍룡과 마주선 성혁은 마치 당장 적진속에 뛰어들 형국같았다. 무섭게 부릅뜬 눈우의 슬진 눈썹은 일직선으로 맞붙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쉰쉴 틈는데다 너무도 긴장한 탓에 잔뜩 찌그러진 얼굴은 꼭 몹시 성난 사람처럼 보였다.

당황스럽기는 홍룡도 매한가지였다. 문득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전 성혁의 대대로 처음 배치받아왔을 때가 떠올랐다.

주체37(1948)년에 입대하여 최현 려단장의 담당한호장으로 송악산, 은파산전투에 참가한 구대원이고 또 은파산전투때에는 혼자서 수십명의 부상병을 구원하여 《호랑이간호장》으로 온 려단에 알려졌던 홍룡이었으나 성혁은 애리애리한 처녀준의가 최전방에 나타난것을 몹시 달갑지 않아하며 미심쩍게 대하였었다.

그후 웅진해방전투에서 홍룡은 성혁의 목숨을 구원해주었다. 그때부터 홍룡을 대하는 성혁의 태도가 달라지는듯싶더니 서울과 대전을 거쳐 락동강가에 이르는 사이에 참 별나게 번져졌다. 글썽 마주치기만 하면 공연히 무뚝뚝하고 엄격하게 굴어 홍룡은 이상하게 여긴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설마 자기를 마음에 두고있는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

《난 사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말하지 않으려 했겠소. 그런데…》

성혁은 말을 더 잇지 않았으나 홍룡은 그의 심정을 이해하였다. 홍룡은 곧 사단군의소로 소환되게 되었던것이다.

성혁은 용기를 낸듯 홍룡의 눈을 면바로 바라보았다.

《전쟁이 끝난 후 내가 찾아가도 되겠소?》

성혁의 두눈이 숏불처럼 이글거렸다. 홍룡은 어

쩔줄 몰라하며 눈길을 내리깔았다. 《호랑이간호장》으로 소문이 자자한 그도 이 순간에는 평시의 당돌함과 용기를 다 잃어버린듯 수줍게 얼굴만 붉힐뿐이었다. 한참후야 홍룡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저… 한가지 제기할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다우쳐묻는 성혁의 목소리는 저르기 떨렸다.

《제가 오늘 밤 도하전투에 참가하고 떠나도록 해주십시오.》

정열에 불타던 성혁의 눈빛에 어느 정도 어느때의 지휘관다운 빛이 깃드는듯 했다. 그제서야 홍룡은 성혁의 눈을 마주보기 좀 편해졌다.

《그건 안되요. 동무를 당장 올려보내라는건 상급의 명령이요. 그리고 우리 대대는 1차도하란 말이요. 위험하오.》

홍룡은 엄폐부창문밖을 내다보았다. 거기로는 락동강의 검푸른 물결이 지척인듯 바라보였다.

《전 락동강을 눈앞에 두고 전우들결을 떠날수 없습니다. 리해해주십시오.》

홍룡의 어조는 나지막했으나 쇠소리나는 강단이 느껴졌다. 그가 이런 어조로 말할 때에는 그 누구도 그의 결심을 꺾지 못한다는것을 온 대대가 잘 안다.

성혁은 뭐라 할말을 찾지 못해하는듯 홍룡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다가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할수 없지. 동무 고집이야 누가 당하겠소. 그 문제는 우와 토론해봅시다. 그런데 동무는 아직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답을 주지 않았소.》

홍룡의 얼굴이 다시금 휘딱 붉어졌다. 그는 발끝으로 땅바닥만 허비다가 모기소리만 하게 말했다.

《그 문제는… 도하전투가 끝난 후에…》

성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사랑에 빠진 심장에 는 락관적인 예측보다 비판적인 단정이 더 쉽게 찾아드는 법이다. 그는 맥없이 말했다.

《미안하오. … 돌아가보오.》

홍룡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까닭없이 눈물이 솟구쳤다. 대대장의 엄폐부를 나서며 그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성혁을 은연중에 사모해왔음을 깨달았다. …

락동강은 초연과 포화속에 몸부림쳤다.

우박처럼 쏟아져내려오는 총포탄들로 도처에 크고작은 물기둥들이 연방 솟아올랐다. 밤하늘의 별들을 틈없이 가리우는 탄막으로 하늘은 통채로 불붙는듯 했다.

홍룡은 강을 가로질러 매놓은 바줄을 잡고 한걸음, 한걸음 물살을 헤가르며 나갔다. 물밑에 모래가 마니를 쌓아 수중다리를 만들었지만 홍룡에게는 키를 넘는 곳이 많았다. 그런 곳에서 발을 헛디디었던 홍룡은 그만 바줄을 놓쳐 빠른 물살에 떠밀려내려갔다. 이때 누군가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짜 잡소!》

성혁이었다.

홍룡은 갑자기 눈물이 났다. 총포탄이 비발치는 이 창황중에 문득 돌아간 어머니생각이 떠올랐다. 앓아누웠을 때 이마를 짚어주던 어머니의 손길이 금시 와닿는듯 한 심정이였다.

《고마워요.》

홍룡은 입안에 쓸어드는 물을 내뱉으며 말했다. 그 순간 그의 손을 짚어주었던 성혁의 손이 별안간 스르르 맥이 풀리는것이 느껴졌다. 성혁은 천천히 모로 쓰러지더니 강물속에 가라앉았다.

홍룡은 삼시에 온몸이 싸늘해왔다.

《대대장동지!—》

홍룡은 물속에 뛰어들어 성혁을 붙잡았다. 강물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으나 성혁을 놓을수 없었다. 이때 한쪽손에 수중다리를 만들어놓은 모래가마니가 잡혔다. 홍룡은 초인간적힘으로 성혁을 끌고 모래가마니를 더듬어 수중다리위에 올라섰다. 작렬하는 총포탄의 화광에 비친 성혁의 얼굴은 창백하였다.

《대대장동지!》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성혁은 이미 숨이 저어있었다.

《성혁동지...》

홍룡은 그의 가슴을 치며 오열을 터뜨렸다. 내가 왜 그때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을 주지 못했을까. 왜...

홍룡은 성혁의 시체를 안고 불타는 락동강을 헤쳐갔다. 그때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랴, 무슨 말로...

홍룡은 눈을 떴다. 그리고 곁에 누워있는 부상병의 거의 숨기없는 얼굴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그 얼굴위에 문성혁의 얼굴이 겹쳐보이더니 그의 앞에서 희생된 수많은 전우들의 모습이 엮바뀌어 떠올랐다.

(아니, 난 죽을수 없어. 살아서 이 동무를 살려야 한다. 희생된 전우의 눈을 감겨줄 때마다 가슴이 갈가리 찢기우던 일을 그래 잊었던 말인가. 그런데 부상당한 전우를 곁에 두고 나약한 생각을 하다니, 전우를 살려야 한다. 꼭 살려야 한다.)

홍룡은 텅 빈 위생가방의 한구석에 요행 남아있는 깨어진 주사기찌박을 꺼내어 자기 손가락끝을 베었다. 날카로운 유리찌박이 선평하자 흰 살갗위에 붉은 줄이 가는가싶더니 살이 찢 헤쳐지며 피가 뿜어나왔다. 홍룡은 부상병의 입가에 피흐르는 손을 가져갔다.

《살아야 해요. 기어이 살아서 돌아가야 해요...》

홍룡은 다음날 날이 밝자 부상병을 끌고 아군을 향해 기고 또 기었다. 그러다 전신을 넘어 정찰나왔던 정찰병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구원하였다.

그날은 홍룡이 부상당한지 6일째되는 날이였다.

그때 홍룡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부상병에게 나직이 속삭이였다.

《동무, 고마워요. ...》

이 한마디를 남기고 홍룡은 끝내 의식을 잃었다. ...

후날 홍룡은 그때 자기가 주저않지 않고 살아날수 있는것은 부상병때문이였다고 생각했다. 비록 전혀 의식은 없었어도 전우가 곁에 있었기에 홍룡은 사선을 헤쳐올수 있는것이였다. ...

×

인택은 손수건으로 주름진 눈가를 닦으며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동문 정말 영웅이요.》

홍룡은 빙그레 웃었다.

《내가 무슨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때에야 다들 그렇게 싸우지 않았나요.》

인택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하긴 나도 전쟁때 영웅칭호를 받았지만 자신이 그 어떤 특별한 위훈을 세웠다고 생각되진 않소.》

홍룡은 생각깊은 어조로 말했다.

《빛나는 생을 별에 비기지만 실은 그 빛을 자기가 내는건 아니지요. 태양의 빛이 없다면 별들은 광막한 공간을 헤매이는 한갓 막돌덩이에 불과해요. 하지만 태양은 자기의 주위를 따라 변함없이 충직하게 돈다면 그것이 아무리 불품없는 막돌이라도 은혜로운 해발로 감싸안아 밤하늘에 보석으로 빛내준답니다.》

난 지금도 40여년전 조선로동당창건 20돐 경축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 가까이 만나뵈던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군 해요. ...

... 함흥시 산원 기술부원장으로 일하던 나는 당창건 20돐 경축대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그날 저녁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연회에 초대되는 커다란 영광을 지니였어요.

거기에는 항일혁명투사동지들과 수많은 영웅들이 참가했어요.

연회가 시작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축배잔을 손에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이 자리에 참가한 동무들은 모두 락동강의 불바다를 헤치며 싸워 승리한 혁명가들이라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혁명렬사들과 혁명전사들을 위해 이 잔을 들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어요.

그때 나는 뜨거운 눈물을 건잡을수 없었어요. 불비흐르던 락동강이며 포연에 잠긴 1211고지가 떠올랐고 내 무릎을 베고 숨진 수많은 전우들이 금시 곁에 있는듯이 느껴졌어요. 아, 정말로 그들이 모두 살아 영광의 이 자리에 함께 설수만 있다면...

그 연회에서 나에게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 차례졌어요. 글썽 내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뵈 가까이 만나뵈을줄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저에게 녀성영예군

내 삶의 자욱

김 춘 길

땀배인 세대배낭을
여기 동력기지에 풀어놓고
위훈으로 이어가는 조국의 초소
이밤도 정든 일터 대동력기지를 지켜
더 높은 전력증산의 불을 지펴가는
나는 보이라운전공

탓하지 않노라
총대신 공구가 나의 무기라고
한계단 한계단 쇠계단을 올라
내 살펴보는 계기의 눈금들에서
만부하의 세찬 동음소리가 울리고
은빛송전선을 타고 전류가 흐르거니

거리에 나서면 나를 아는이 없노라
하나 나의 가슴은 크나큰 공지로 뿔뿔노라
질주하는 궤도전차의 동음소리
불밝은 창가에서
아기를 안고 한껏 미소짓는 어머니의 기쁨도
내 여기서 다 안아보나니

그 자랑높고 긍지높은 일터에 내가 있다
내가 하는 일 전기로 흘러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되고
평양의 밤거리에 아름다운 불빛으로 빛나거니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그 누가 우리 위훈 모른대도 좋다
다만 성실한 로동의 땀방울로 하여
한와트 또 한와트의 전기가 더 생산된다면
하여 질 좋은 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우리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진다면

기꺼이 바치리라 나의 삶을
조국이 세워준 로동의 초소
이름없는 전호가에서 빛낸 청춘시절처럼
보이라에 더 세찬 불길을 일으켜
생의 빛나는 자욱을 뚜렷이 새기리라

바친 그만큼 더 앞당겨질
강성대국 찬란한 래일을 위하여
나의 힘과 열정을 다 쏟아 바치리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제손으로 가꿔가는
선군조선의 로동계급의 본분을 안고
나는 이밤도 보이라운전공의 자욱 새기거니

믿어다오 조국이어
병사시절 초소에서
그대 안녕 길이 바라던 그 나날처럼
밝아오는 붉은 노을속에서
전력증산의 불길을 높이 들어
그대의 부강번영을 길이 바라노라

인동무가 수고한다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한없는 격정에 휩싸인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영예군인들은 항상 원수를 무찌르던 그때의 그 기
백으로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며 모든 면에서
다 앞장서야 한다고 힘있는 고무의 말씀도 해주시
였어요.

그날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심장속깊이 맹세를 다지었어요.

(저는 영원히 불타는 락동강을 넘나들던 전화
의 그 나날처럼 살겠습니다.)

그후 나는 늘 자신을 돌이켜보며 살아왔어요.
내가 지금 그날의 맹세를 지켜 살고있는가 하
고...》

인택은 이야기를 들으며 홍룡의 집을 찾기 위해
동사무소에 들렀을 때 그곳 일군들이 해주던 말을
상기하였다.

몇해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
령도를 받드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리홍룡의 기특한 소행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애국심이 높은 동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고 한다.

인택은 홍룡이 심어 가꾸어 《로병림》이라 불리
운다는 수림을 새삼스럽게 둘러보며 생각하였다.
(홍룡동무는 정말 그날의 맹세를 지켜 평생을 살
아왔구나. 전화의 그 나날처럼...)

그날 밤 홍룡은 꿈을 꾸었다.

고지는 불타고 포연은 자욱한데 달려드는 적땅
크를 맞받아 수류탄을 높이 주켜든 녀전사는 놀랍
게도 지금의 자기자신이였다.

찬란한 노을빛에 감싸여 백발의 머리카락이며 주
름진 얼굴이 붉게 타오르고 머리속에서는 그가 즐
거부르곤 하던 노래구절이 쟁쟁히 울려왔다. ...

노을아 기폭과 같이 이 몸을 감싸주려마
눈바람 몰아쳐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주렴
그러면 나의 가슴은 영원히 불타리라
아 어버이수령님 나의 태양 따라서



뿌리와 열매

최 상 기

해마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이 오면 농장에서는 가을철 체육대회를 떠들썩하게 벌리곤 한다. 일명 《뿌리와 열매운동회》라는 동화적어감이 다분한 명칭으로도 불리우는 이 행사는 올해에 와서 그 어느해보다 더 크게 열리게 되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초만원을 이룬 리중학교운동장은 이른아침부터 폭풍을 안은 바다처럼 웅실거렸다. 관람석에 질서있게 들어앉은 각 작업반의 응원단들이 시작부터 기세를 올렸고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은 각기 맡은 종목들의 발맞춤을 해보고있다.

이날 일정의 첫 경기는 예전그대로 대형그림판에 벼와 강냉이를 형상하는 경기였다. 매 작업반들에서 열명씩 선발하여 뿌리와 대, 잎, 이삭들로 구분된 그림조각들을 붙이는 경기였는데 여기서는 속도와 함께 조형적인 예술미를 다같이 중시하였다. 누구나 체육경기라고 하면 축구나 바줄당기기 같은것을 가장 대표적이고 인기있는 종목으로 보는것이 상례이지만 농장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곡식형상이어달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정도이상의 참가열의들을 드러내보이곤 하였다.

이 특별종목과 함께 운동회에서는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전시기부터 사람들속에 존재해온 지역적인 승벽심, 즉 소재지마을을 분기점으로 나뉘어진 앞지구와 뒤지구의 경쟁열이었다. 이 경쟁열의 바탕을 력사를 거슬러 고찰해보는다면 농업협동화의 초창기 서로 다른 조합들로 분리되어있었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들어야 할것이다. 또한 지형학적인 전지에서도 앞지구는 무연한 평야지대요 뒤지구는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산골》이었다.

어느해인가 익살군으로 소문난 관리위원회 로동부원이 앞지구와 뒤지구를 갈라 《뿌리》팀과 《열매》팀을 편성하자는것을 제의했다. 이 류다른 제의는 뜻밖에도 만장의 지지를 받았다. 어느지구가 뿌리가 되고 어느 지구가 열매로 되겠는가에 대해서도 앞지구에 속한 로동부원의 주장을 따랐다. 체육에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있는 그의 주장에는 그럴듯한 근거가 안받침되어있었다. 농장지형도를 보라. 생김이 꼭 벼를 베어 큼직

하게 단을 묶어 쿵 세워놓은것 같지 않은가. 앞지구는 이삭들이 풍성하게 고개숙인 열매들의 모습이고 뒤지구는 폭이 좁아진 대와 뿌리갈지 않은가.

어쨌든 이때부터 점수계시판에는 각 작업반들의 점수와 함께 《뿌리》팀과 《열매》팀의 종합점수가 나붙곤 했다. ...

운동장의 한복판에는 곡식형상이어달리기에 나온 선수들이 작업반별로 정렬했다.

《열매1》이라는 명판을 가슴에 단 작업반의 선수들앞에 나서서 무엇인가 강조하던 1작업반장 조성덕은 말을 중동무이었다. 확정기에서 울려나온 목소리때문이었다.

《1작업반 기술원 김용범동무는 빨리 주석단으로 와야겠습니다. 빨리 와야겠습니다.》

조성덕은 얼핏 열번째 마지막선수로 서있는 다부진 체구의 김용범을 보았다. 주석단쪽을 돌아보던 김용범도 조성덕과 눈길이 마주쳤다. 무슨 일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서로의 눈길에 어리었다.

조성덕은 주석단쪽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다. 당장 경기가 시작되겠는데 선수를 불러가면 어떤다는건가, 그것도 기동선수를... 체격은 크지 않아도 달리기에서는 무척도 날랜 김용범인 것이다.

이어 경기시작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후보선수를 소리쳐 불러오고 선수들과 함께 격동되어 돌아가는 속에서도 조성덕은 주석단앞에 서있는 김용범을 주시했다. 리당비서와 관리위원장이 무슨 말인가를 하고있는데 김용범은 고개를 약간 숙인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첫 경기가 끝났을 때 김용범은 이미 외출복을 갈아입고 응원단쪽에 서있었다.

조성덕이 다가가자 그는 무거워보이는 안색으로 입을 열었다.

《군에 좀 갔다와야겠습니다.》

《군에?... 무슨 일로...》

《그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원들쪽을 피끗 보는 기색이 선뜻 말할수 없는 사정이 느껴졌다.

조성덕이 멀어져가는 김용범의 뒤모습을 이윽로
록 지켜보고있는데 푸른 운동복을 입은 녀인이 다
가왔다. 용범의 안해 홍정옥이다. 언제 보나 인상
이 밝던 녀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실려있다.

《무슨 일이... 제기됐나요?》

몹시 저어하는듯 한 물음이다.

성덕은 말없이 고개만 가로저었다.

조성덕은 어쩔수없이 갈마드는 불안한 심리를
안고 운동회에 참가했다. 씨름이나 배구 같은 중
목들엔 빠지지 않고 선수로 나서던 그였지만 오늘
은 그러지 못했다. 응원석에 앉은 성덕은 체육열
기로 들끓는 운동장을 내려다보며 피가 지게 입술
을 깨물었다.

(혹시 그 일때문에...)

성덕의 뇌리에는 작년 늦여름부터 시작되어 올
해 여름까지 끌여오던 《ㄱ》재배법도입문제가 또
다시 재개되는것이나 아닌지 하는 위구심이 서서
히 갈마들었다. 예상했던것보다 썩 시원하게 되진
못했지만 그런대로 올해 가을의 실제적인 농사작
황으로 이체는 가라앉았을것이라고 생각했던
《ㄱ》재배법도입문제였다.

작년 늦여름 조성덕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에 불리워갔었다. 동기는 뻔했다. 작업반에서 새
롭게 도입한 0.4정보의 《ㄱ》재배법도입이 물의
를 일으킨것이었다. 초시기부터 종자가 제대로 싹
트지 못하여 벼대들이 엉성하기 짝이 없는데다가
그나마 늦장마에 두들겨맞다보니 일제히 이삭을
뽑기 시작하는 다른 포전들과 달리 아직 상태가
좋지 않았던것이다.

무슨 험담인들 없었으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조성덕
과 담화하였다.

《...오성농장이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반장동무가 더 잘 알
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군에 평도의 첫 자옥을
새기신 곳이고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까지 찾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

그렇다, 그것은 이 땅에 새겨진 지울수 없는 력
사의 자옥이었으며 오성사람들이 품고있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 남다른 존엄이었고 재부였다.

이곳에 태를 묻고 자라난 조성덕이 어찌 이것을
망각할수 있으랴. 그러나 그는 본의아니게도 그
모든것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다. 머리를 쳐들수
없는 죄 많은 인간이 되었다.

조성덕이 마음속으로 자기를 타매하고있을 때
문득 김용범이 들어섰다. 마흔을 갓 넘긴 단단한
체구, 해별과 바람에 그슬린 적동색의 얼굴에서는
땀기가 번지르르 흐르는데 때이르게 수북해보이는
장미가 움썩거리며 조성덕을 힐난하는듯싶다.

위원장은 묻지 않고도 상대를 알아보았다.

《우린 동무를 찾지 않았소.》

《압니다, 하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
니다.》

《용범동무!》

조성덕은 책망의 빛으로 용범을 보았다. 하면서
도 부럭부럭 다가와 자기옆에 눌러앉는 그가 얼마
나 고마왔던가.

돌아오는 길에서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
다. 자전거를 타고 약속이나 한듯 ㄷ논으로 향했
다. 큰 수로가 ㄷ자모양으로 둘러싸여 ㄷ논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작업반을 수령에 빠뜨린 《ㄱ》재
배법을 도입한 포전이 있는것이다.

두사람은 논두렁가에 침울한 기색으로 섰다. 해
가 진 하늘가에는 재빛구름이 뿌연게 떠돌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며 가뜩이나 어설픈 논판을 더 어수
선하게 휘저어놓았다. 어여쁘게 이삭들을 뽑기 시
작하는 다른 포전들과 대비하면 유치원아이들까지
망했군요 하고 천진한 얼굴을 흐릴 정도로 황량해
보인다.

《이걸... 이걸... 어쩌면 좋아요. 이 신성한 땅
에... 동무넌 무슨 상처를 입혔어요.》

나홀전 작업반에 나왔던 관리위원장이 마디마디
눈물을 깨물며 억함을 터뜨리던 처절한 부르짖음
이 아직도 메아리가 되어 울려왔다.

아아, 오영순관리위원장, 어버이수령님께서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농장에 찾아오셔서 남
기신 유훈을 그 누구보다 심장에 새기고 농사를
위해 그리도 애면글면하는 그앞에 무슨 면목이 있
었던가.

조성덕은 입을 꼭 다문채 논판 한가운데 들어서
허리를 굽히고 벼포기들을 헤쳐보는 김용범을 멍
청스레 보았다. 그것이 다 깨진 사발을 붙여보려
는 어리석은 행동같아 마음이 언짢아졌다. 아무리
그래보아야 무슨 뽕족한 수가 있단 말인가. 실패
는 이리도 흑심한데 그 어떤 미련과 배심이 있어
경영위원장앞에서 좀 더 두고보아달라고 서슴없이
말했는지 성덕은 리해할수가 없었다. 내가 용범이
란 인간을 지나치게 믿은것이 아니였을가.

사실 《ㄱ》재배법도입을 시작하기 전 김용범이
이 논벼재배법의 필요성과 우월성을 설명할 때 성
덕은 크게 공감했었다. 그가 오래동안 농업과학원
의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연구사업을 해온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의 우점은 물기를 섭취하기 위한 식
물체본성의 자세로부터 깊이깊이 뿌리를 뻗는다는
것입니다. 경반층을 돌파한 뿌리들은 땅속의 갓가
지 미량원소들까지 빠짐없이 섭취함으로써 벼대를
강하게 하고 열매를 마지막까지 충실히 여물게 합
니다. 누구에게나 공인된 사실이지만 우리 지방농
토는 력대적으로 초기생육이 좋은 대신 후기작황
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뿌리발육
의 지속성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

뿌리문제... 용범의 말그대로 그것은 이 지대 농
사에서 근본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수십년이나 농
사를 지어온 조성덕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
다. 그 뿌리썩음문제를 방지하자고 포화수식물
대기방법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탐구도입되었

다. 그 모든 방법들은 뿌리에 산소를 접근시켜 뿌리의 썩음을 막고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식물체에 있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어느해인가 《ㄱ-3》이라는 유충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일부 논판들이 작황이 고르롭지 못하여 사람들의 의아함을 자아냈었다. 이것이 《ㄱ-3》이라는 손으로 잘 잡을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유충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것들이 뿌리를 죄다 잘라먹어 벼의 생육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었다. 뿌리수를 허다하게 잃은 벼포기들은 생육을 억제당한 채 기를 펴지 못하고 그저 흙속에 꽂아놓았던 것처럼 조그마한 저항도 없이 쭉쭉 뽑혀나왔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을 새겨준 사건이었다.

농장에서 일하면서 농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농학자들과 자주 어울리며 리론도 풍부해진 김용범이 뿌리썩음을 방지하기 위해 남모르게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조성덕은 알고 있었다.

언제인가 작업반 초급일군들과 식탁을 같이했던 오영순 위원장은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용범이에게 은근히 침을 놓았었다.

《용범동문 좀 일면적인데가 있어. 그게 그렇게 쉬이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론점에 오르지도 오랬지만 누가 시원히 퇴치하지도 못했고 또 그런 속에서도 농사는 지어왔어. 난 동무가 그러다가 기본을 망그러뜨릴까봐 정말 안심치 않아. 뭐니뭐니해도 우린 알곡을 많이 내는 것이 임무가 아니겠어.》

이것은 침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일을 벌려나가려 하는 용범이의 고집스런 측면에 대한 사려가 비친 질책과 넘려였다.

사실 오영순과 김용범은 피치 못할 인연으로 얹혀 있었다. 이제는 30여년 전, 농사와는 거리가 먼 직종에서 처녀시절을 보내다가 출가해온 오영순은 이 땅에 정붙이기를 과연 힘겨워했다. 그러기에는 이 땅이 너무도 넓었고 녀인의 육체는 너무도 연약했다. 물론 생활에는 구김살이 없었고 랑만이 넘쳤지만 그것이 힘에 부친 농사일을 다는 데 해주지 못했다.

이러한 오영순에게 하나하나 농사일을 배워주고 이끌어준 것이 분조장이었던 용범의 아버지였다. 삽질은 어떻게 해야 하며 나래는 어떻게 엮어야 하며 모는 어떻게 뜨고 손제초기는 어떻게 요령있게 밀어야 하는가. ...

용범의 아버지는 늘 시간이 없이 돌아가는 사무원인 영순의 남편을 대신하여 부뚜막도 수리해주고 방이 골고루 덥게 온돌도 고쳐놓아주곤 했다.

년로보장나이가 된 용범의 아버지가 분조장을 놓게 되었을 때 오영순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소년시절에 아버지가 일하는 논벌에 자주 나가던 용범은 갖 농사일을 배우며 새 생활, 새 사람들 속에 자연스레 섞여들지 못하던 새로 온 아지미와

제일 먼저 친해졌다. 《새 아지미》, 《새 아지미》 하며 무렵없이 따르는 용범을 오영순은 막내 동생처럼 사랑하였으며 꾸러가지고 나온 간식도 슬그머니 쥐여주고 벼메뚜기도 잡아 풀대에 꿰여 주곤 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용범은 농장원이 되었다. 농장원으로 일하는 그에게 오영순은 이모저모 마음을 써주었다. 아버지를 닮아 고지식하고 일밖에 모르는 김용범에게 일하면서 농업대학에 다니도록 권고한 것도 그때 작업반장을 하던 오영순이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래일에는 더욱 많이 알아야 농사를 짓는다면 학용품들과 참고도서들까지 얻어다 주었다.

이러한 오영순이 어떻게 용범의 일에 무심할 수 있겠는가.

이웃반에서 다년간 분조장을 하던 용범이가 성덕이네 작업반으로 왔을 때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새 기술원을 맞이하던 날 성덕은 마음이 흐뭇했다. 농사꾼으로서의 용범의 금새를 잘 알고있던 그였던 것이다. 용범은 무엇인가 자기 나름의 농사지론이 있는 사람이었다. 해마다 농사를 짓는 전과정에 그의 분조는 일군들의 눈에 제일 많이 거슬리고 지적당하는 분조로 지목되곤 하였다. 하면서도 가을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이 해소되고마니 참 모를 일이었다. 수확고가 높은데야 무슨 할 소리가 있겠는가. 그것이 해마다 거듭되자 일군들은 음, 저 친구...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사람은 인차 마음이 통했다. 농사방법에서 깨진이 있어야 한다는 데로 견해가 일치되었다.

기술원이 된 김용범은 첫 사업으로 《즈》재배법의 도입을 들고나왔다.

그때 성덕은 선뜻 응해나서지 못했다. 로력과 영농자재를 적게 들이면서도 수확고도 떨구지 않는 실리적인 재배방식이어서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긴 하였지만 난점들도 동반하고있어 어느 곳에서 시원하게 성공한 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원고개를 넘긴 이 날까지 성덕은 20여년 가까이 작업반장을 해오며 별다른 탈선이 없었었다.

성덕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용범은 침통한 낯빛으로 입을 열었다.

《구태의연하게 농사를 지으려다가는 언제 가도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수와도 같이 성덕의 아픈 곳을 찔렀다. 물, 비료, 전기, 각종 영농자재들... 모든 것이 보장되는 속에서 문자 그대로 배부르게 농사를 지어온 조성덕이다. 이제는 그속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하루 골백번도 더 마음의 채찍질을 받아왔건만 갑속에서 활 뛰쳐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그 어떤 행운에 대한 기대, 앞으로 어찌 되겠지 하는 어설픈 희망... 생활의 궤도를 바꾼다는 것은 그리도 힘든 것이었던가.

조성덕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즈》재배법의 도입에 동의해나섰다.

그렇게 수년세월... 두해전 가을 군적인 농사총화에서 조성덕은 토론연단에게까지 나서게 되었으며 분조장들과 함께 많은 상품들까지 받아안았다.

《이거 일은 누가 하고 열매는 누가 가로채는지 모르겠습다.》

분조장들은 기술원앞에서 못내 미안해했다. 용범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것이다.

용범은 성덕이에게 눈을 끔벅이며 우스개소리로 받아넘겼다.

《나야 뿌리 주장과니까 응당한것이 아닐가.》

모두 웃으면서도 마음들만은 젖어있었다. ...

《스》재배법도입을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된 용범이란 인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성덕이로 하여금 《ㄱ》재배법도입도 결심하게 하였던것이다. ...

김용범은 여전히 논 한가운데서 벼포기를 들여다보고있다. 벼대를 헤집어보는것이 이삭이 생기기 시작했는가를 안타까이 찾는것 같다. 성덕이란 존재는 감감 잊은듯싶다. 투자와 공수에 있어서 《스》재배법보다도 더 적은것을 들이는 《ㄱ》재배법, 김용범이 더욱 미혹된것은 뿌리썩음을 막고 생육후반기락하를 결정적으로 막을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 점이 《ㄱ》재배법우월성의 골자였다.

《난 아무리 실리적이고 우월성이 있다 해도 안정된 수확고가 담보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뼈를 바스고 피를 쏟아서라도 알곡을 많이 내야 우린 자기 의무를 다하는것으로 될거예요.》

오영순의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의 합의하에 할당해준 0.4정보,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상실감은 컸다. 그로 하여 번져진 문제도 작지 않았다. ...

운동장에서는 와- 함성이 터져올랐다.

사람참기경기가 시작되었다. 젊은 녀인들이 모두 선수로 나섰는데 표에 적혀진 이름이 하나같은 모양 너도나도 《어머니!》, 《어머니!》 하고 청높이 소리치며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판관석에 있던 할머니들이 머느리들의 손에 허둥지둥 끌려나가는것이 몹시도 가관이다.

《아이구- 숨 넘어가겠다. 세상에 늙은이들까지 경주를 시키면 어쩐다는거냐.》

《누가 어머니보고 뭐래요? 출발선에서부터 제가 엮고 뛰게 돼있어요. 빨리요, 빨리...》

온 천지가 그야말로 웃음폭포로 떠나갈듯 했다. 쿵췌쿵췌 울리는 양푼소리, 고함소리, 응원소리...

다른 때 같으면 작업반선수들의 뒤통무늬를 따르며 《야 오길숙이, 시어미 공대는 왜 그리 잘해가지고 똥보로 만들었어. 그 값을 톡톡히 받을줄 몰랐지. 그래도 1등은 해야 돼. 1등만 못해보라, 작업반명부에서 지워버리지 않나.》 하고 결죽하게 흥을 돋굴 조성덕이었지만 오늘은 망두석처럼 앉아만 있다.

경기총화가 끝나자 작업반별로 야유회가 벌어졌

다. 조성덕은 기분이 저하된 상태에서 경기열에 들떠있는 반원들과의 식사에 동석했다. 벼들이지가 휘휘 그네를 뛰는 방축우에서의 더없이 유쾌하고 흥겨운 연회, 익살과 웃음과 서로 음식을 권하는 행복한 싱갱이로 하여 좌석에서는 흥그러움이 떠날줄 모른다. 이어 대자연의 가을풍경을 관객으로 삼고 펼쳐진 노래무대, 춤무대, 특기무대, 가없이 높고 푸른 하늘가으로 아름다운 선률과 가락, 룰동이 창창히 울려 퍼진다.

조성덕은 웃음과 랑만이 넘실거리는 생활의 바다에 융합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

너는 무엇때문에 불안해하느냐. 혹 다른 일로도 잦을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슨 일?... 성덕은 머리를 저었다. 아무리 굴려보아야 짚이는것이 없었다.

야유회가 끝나자 성덕은 종내 관리위원회로 발길을 돌렸다. 속 시원히 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다.

그러나 관리위원장은 사무실에 없었다.

성덕은 마당가에 우두커니 섰다. 집으로 찾아가볼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내 털어버렸다. 벌써 집에 들어갈리가 만무한 그였던것이다. 년로한 시어머니가 아직 정정하여 뒤패는 잘 보아주고있다.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는 성덕의 눈앞에는 얼굴이 새파래져 작업반농사대책안을 밀어던지던 오영순의 얼굴이 육박해왔다.

정초였다.

관리위원장의 방에서 작업반장, 기술원들을 모여놓고 새해농사계획안의 과학성여부를 따져보던 오영순은 불현듯 음성을 높였다.

《이건 뭐예요, 관리위원회를 우롱하는거예요?》

순간에 가슴을 열구던 매운 목소리... 그만큼 성덕이네가 제기한 작업반의 농사대책안은 어별이 컸고 첨예성을 안고있었던것이다. 거기에는 0.4정보의 도입에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ㄱ》재배법도입면적이 무려 8정보나 계획되어있었다.

관리위원회와의 충돌을 예견하고있었지만 오영순이 너무 돌발적으로 성격을 살리는 바람에 조성덕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술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성덕은 《ㄱ》재배법도입면적을 8정보나 결심하기까지의 사연을 일일이 다 털거할수는 없었다.

지난해 가을건이가 박두했던 어느날 저녁, 분조장들을 모여놓고 하루사업을 총화하던 조성덕은 별로 흥분하여 들어서는 김용범을 대하게 되었다. 평뜨기를 하느라 요즘은 늘 논벌에서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리고 살다싶이하는 그였다. 그는 두개의 주머니를 초급일군들앞에 내려놓았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손저울에 한 주머니를 꺾어들고는 성덕의 눈앞으로 내밀었다.

성덕은 얼퍼름한 상태에서 저울눈금을 보았다.

곡식의 됴됨을 육안으로 보고도 능히 측정할수 있을만큼 성덕은 농사물계에 흰하다. 예상했던 평당 무게와 별반 다른없는데 무엇때문에 이러는가?

《〈ㄱ〉 재배법을 도입한 포전집니다.》

용범의 목소리는 환희에 차있었다.

조성덕은 흠칫 놀랐다. 《ㄱ》재배법을 도입한 포전의것이라구?... 그는 리해되지 않는 눈길로 용범을 보았다. 침착하기 그지없는 이 사람이 《ㄱ》재배법에 미쳐있더니 다른 품종과 혼돈한것이 아닐가, 기울어졌다고 돌려놓았던 생명체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수 있는가.

용범의 검은 눈동자에서는 억제할수 없는 불꽃이 튀기고있었다. 그는 다른 주머니를 들었다.

《이건 〈ㄱ〉 재배법을 도입하지 않은 포전의것입니다. 보시다싶이 〈ㄱ〉 재배법을 도입한 포전의 난알생중량이 도입하지 않은 다른 포전들을 거의 따라서고있습니다. 건중량으로 하면 대등하리라는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성덕은 주머니안으로 손을 뻗었다. 싸락싸락하며 총총 여문 벼알들의 촉감이 온몸으로 짜릿하게 퍼져갔다. 그는 줌안의 벼알들을 직시했다. 한결같이 웅골지고 알차다.

《천알당질량과 이삭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용범은 한절반 자신을 잃고있었다. 군경영위원회결을 한 이후 더 자주 《ㄱ》재배법도입지에 가던 용범이었다. 그것을 두고 조성덕은 병신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부모의 애절한 심정으로만 여겼었다.

성덕은 벼알들을 소중히 감싸안았다. 생육후 반기에 들어서며 《ㄱ》재배법을 도입한 포전이 확연히 달라지고 국부적으로 유난스레 눈에 띄우는 지점들을 보아왔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됐을줄이야. 남들은 심상하게 스친 변화를 용범은 기술일군의 안목과 책임감으로 계속 주시하고 비배관리를 해온것이다.

탈곡때 《ㄱ》재배법을 도입한 포전 0.4정보의 수확량에 한한 가마니는 별도로 묶이워졌다. 그 총수량이 나왔을 때 용범은 물론 반원들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비꼈었다.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수 없어했다. 예상했던것보다는 다른 포전들의 평균수확량과 별로 차이가 없었던것이다.

김용범은 반원들앞에 두개의 벼포기를 대비시켜 보여주었다. 이삭의 크기, 손맛에 느껴지는 경중감, 더욱 차이가 심한것은 뿌리였다. 《ㄱ》재배법도입지의 제일 좋은 포기를 골랐다는데 뿌리가 얼마나 실하고 길었던지 저절로 《야—》소리가 날 정도였다.

작업반에서 새해농사계획을 토론할 때 용범은 《ㄱ》재배법의 다량도입을 주장했다. 그의 론거에 의하면 잘되였던 벼포기들의 생육상태대로 모든 포기들의 비배관리를 따라세운다면 능히 장훈을 부를수 있다는것이였다. 망했다고 두드려

맞았던 포전에서 그만한 수확을 거두었는데 경험과 교훈을 찾아 애써 가꾼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는 김용범이 《ㄱ》재배법도입때처럼 점차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8정보라는 어마어마한 수자를 부른데 있었다. 물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면 김용범이 기술원을 처음 하며 《ㄱ》재배법을 시도하던 때에 비해 키도 능력도 담도 어방없이 커졌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생활은 이미 조성덕에게 용범이란 인간이 고집은 있을망정 무모하지 않으며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해주었다. 하지만...

성덕은 어두한 얼굴로 용범을 보았다.

《이보라구 기술원, 그건 너무 배차구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립장도 생각해야지 않을가. ...》

농사는 결코 혼자 짓는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분조장이나 작업반장이 제 마음 내키는대로 하는것은 더욱 아니지 않는가. ...

용범의 안면에 검은 파도가 꿈틀거렸다.

《난 그것이 가슴아픕니다. 실지 농사를 짓는건 우리자신인데 눈치를 보구 주저하구... 반장동지,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반장동진 지금도 〈ㄱ〉재배법을 믿지 않지요. 나아가서는 이 용범이두 믿지 않구요.》

《아, 아니... 그런건 아니요.》

성덕은 두손을 내저었다.

《그럼 뭘니까. 〈ㄱ〉재배법이 좋다는것을 안 이상 무엇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조성덕은 용범이 지핀 불길에 어쩔수없이 타버리지 않을수 없었다. 하면서도 자신을 리해할수 없어했다. 어찌하여 용범에게 계속 지게 되는지... 그렇게 되어 작성된 계획안은 첫선을 보이기 바쁘게 도마우에 오른 고기신세가 되었던것이다.

관리위원장의 방에는 조성덕과 용범이만이 남았다.

오영순은 주먹으로 이마를 고인채 침묵했다. 용범이로부터 사연을 들으면서도 일언반구 없었던 그다. 그라고 어찌 일이 잘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랴. 그 안타까움과 욕망을 말한다면 오영순이 몇 곱절 더할것이다.

오영순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자요.》

밖에는 눈보라가 일고있었다. 대한무렵의 매운 날씨가 온 대지를 뽕뽕 얼구었다.

오영순은 맨머리바람으로 걸었다. 세찬 바람에 그의 머리칼이 훑날렸다.

세사람은 수십년전의 옛모습그대로인 초가이영의 사적건물들을 지나 논벌쪽으로 향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적표식비앞에 그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섰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적내용이 자자구구 안겨왔다. 영광의 그날, 오곡백과 무르익던 잇을수 없는 그 가을날에 선듯 오영순의 눈가에 뜨거운 걱정이 굵이친다. 이른아침 농장원들도 일터에 나오기 전에 포전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오영순은

얼마나 뜨거운것을 삼켰던가.

성덕은 용범의 얼굴에도 감격과 아픔이 엇갈려 내비치는것을 보았다.

바로 이 포전은 김용범이 분조장을 할 때 가꾸던 논밭이었던것이다.

성덕이네 작업반으로 온 용범은 언제인가 이야기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었다.

《...어쩐지 미흡한 포전을 보여드린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괴로웠습니다. 벼가 잘되었다고는 하지만 알알이 잘 여물지 못했고 이삭들이 충실치 못했으니까요. 생육후반기락하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하지만 전 거기에 위안을 가지고싶지 않더군요. 우리 아버지도 분조장을 할 때 늘 그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걸 퇴치해야 알숙있는 농사로 될수 있다고 자주 뇌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보면 김용범의 뿌리썩음방지에 대한 고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된것이였다.

오영순은 두사람을 데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성덕이네 1작업반 ㄷ논-《ㄱ》재배법을 도입했던 포전에는 거름무지들이 드러나보였다.

오영순은 서북쪽을 향하여 섰다.

그를 따라 눈길을 돌리던 조성덕은 혹 숨을 들이켰다. 도마천전너의 나지막한 구름봉이 뻗히 안겨왔다. 몇해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저 눈덮인 구름봉마루에 오르시여 력사적인 토지정리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그 나날에 일찌기 수령님을 모시고 찾으셨던 오성땅을 바라보시며 감회깊은 추억을 더듬으시지 않았던가. ...

《이 신성한 땅에...》

성덕은 마음이 아파 쓰러질듯 비칠했다. 잠시 말을 끊은 오영순은 무언의 질책으로 두사람의 뺨을 호되게 갈기고있다.

《우리가 ... 어떤 땅을 가꾸고있는가를 잊지 말자요.》

오영순은 이 말을 남기고 홀로 자리를 뒀다.

두사람은 오래동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천백마디의 꾸중과 욕설을 들쭉다한들 이처럼 생각이 많고 무거울수 있을것인가.

성덕은 오영순의 뒤모습에서 이윽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해폰 녀성관리위원장, 그 작은 어깨에 한개 농장이라는 큰 땅을 걸머지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 심정을 누가 속속들이 헤아리겠는가. ...

이틀후 작업반장들의 모임에서 오영순은 성덕에게 말했다.

《내 용범동무를 리해해요.》

성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리위원장을 찾아갔던 김용범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였는지 성덕은 다는 모른다. 그러나 자기의 진심을 터쳤으리라는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인간적으로 놓고볼때

그들 두사람사이에 하지 못할 말이 무엇이라. ...

조성덕은 힘없이 걸었다. 돌부리에 걸쳐여 몸이 비칠했다.

《반장동지세요?》

어스름이 내려앉은 앞길에서 누군가 반겼다. 고개를 드니 홍정옥이 서있다.

《항미 엄마요, 왜 여기 서있소?》

정옥은 말없이 읊으로 통한 길을 돌아보았다.

성덕은 그제서야 자기가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 이르렀다는것을 의식했다. 그는 녀인을 외면하며 큰숨을 내그었다. 남편에 대하여 더없이 지극한 녀인, 절대적이라 할만큼 남편의 모든것을 믿고 또 믿는 순진한 녀인이다. 이 녀자도 남편의 곁에서 이상한것을 감추한것일까.

성덕은 녀인을 향해 웃는다는것이 얼굴을 이치러뜨렸다.

《들어가보우다. 뭐 별다른 일은 없을거요.》

하면서도 성덕은 자신을 비웃었다.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너는 무엇때문에 안절부절하느냐. ...

마을쪽길을 버리고 수로쪽으로 한동안 걸음을 옮기던 성덕은 뒤를 돌아보았다. 녀인은 여전히 못박힌듯 서있다.

... 씨뿌리기가 끝난 화창한 봄날의 대지, 살초제를 뿌리느라 물을 잡은 논판들에는 파아란 하늘이 맑게 비끼었는데 그우로는 맵시쟁이제비들이 살같이 날아예고 뿔종다리들이 높이 떠 청고운 소리로 지저귄다.

그 아름다운 들가의 한복판에 조성덕은 흠뻑얼굴이 되어 장승처럼 서있었다.

새파랗게 질린 오영순이 성덕을 무섭게 다켰다.

《...가슴이 떨리지도 않아요. 심장이 떨리지도 않는가 말이에요. 어쩌면 그리도 모질게 배포유할수 있어요. 씨앗들이 싹도 못 터보고 썩어나면 이 넓은 들판을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당장 논물을 빼랴요.》

성덕은 항변 한마디 없이 눈을 부릅뜨고 논판을 쏘아보았다. 김용범이 웃으며 담보한 살초제, 토양결층에 작용하여 잡풀들이 싹트는것을 억제시키는 이 농약을 뿌리는것은 《ㄱ》재배법도입의 첫공정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농약이 벼씨앗의 발육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성덕에게는 희박하다. 5~7일정도는 물을 잡아두어야 살초제의 효과를 볼수 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어지러운 환영이 성덕의 눈앞을 어지럽게 했다. 굵아빠진 벼씨앗들, 기형적으로 머리를 내민 불충실한 싹들, 불탄 산천처럼 황량한 들판에 버대인지 풀대인지 엉성한데 그나마 폭풍이 태질하며 산산이 조각낸다. 비줄기가 휙휙 뿌려지는 음산한 하늘밑으로 지척지척 걸어가는 누군가의 뒤모습...

성덕은 물관리공의 손에서 와락 삽자루를 앓아들었다. 용범의 불이 펄펄 이는 눈동자가 금시 막아서는듯 했으나 세판게 떠밀치며 삽날을 꽉 박았다. 김용범이 군적으로 진행되는 기술원들의 비상

회의에 간것이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눈... 두눈... 성덕은 실성한듯싶다.
몇번째 눈두렁이었는지... 성덕의 앞을 한 여인이
막아섰다. 눈물이 그렇하여 원망스레 쏘아보았다.
《비키오.》

성덕은 거칠게 소리쳤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제가 마저 하겠어요.》

녀인은 울먹이며 삽자루를 부여잡았다. 거울
진 체격의 조성덕에게 한갓 녀자의 힘이 무엇이였
으랴. 했어도 성덕은 삽을 빼앗기웠다.

다음날에야 성덕은 홍정옥이 논판 두개는 그대
로 두었다는것을 알았다.

작업반에 돌아온 김용범은 오래도록 《ㄱ》재배
법을 도입한 포전에 서있었다. 근엄하게 굳어진
얼굴에서는 참을수 없는 격분의 폭풍이 소용돌이
치고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그것은 터쳐지
지 않았다. 밤새 눈물을 다시 잡는것으로 그는 오
영순과 조성덕에게 도전하였다.

하지만 이미 열지른 물이었다. 살초제는 효력
을 많이 상실하였던것이다. 홍정옥이 남긴 두개의
논만이 비교적 약효를 보았다.

후날 조성덕이 웃는 말로 어떻게 그런 담이 생
겼는가 물었을 때 녀인은 짙은 미소를 띄우며 한
마디로 답변했다.

《전 향미 아버지를 믿으니까요.》

믿음! 믿음이란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가. 하
다면 녀인의 믿음은 남편의 순수 인간됨됨에 대한
믿음이었을가. 성덕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

어둠이 내려앉는 수로둑우에 웬 사람이 거닐고있
는것이 보여왔다. 뒤머리를 간편히 휘둘린 녀인의
자세를 여겨보던 조성덕은 눈빛을 떨었다. 뜻밖에도
오영순위원장이다. 읍쪽을 자주 바라보는 그의
거동은 필시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데듯싶다.

(?!...)

한순간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성덕의 머리속에
고패쳤다.

불현듯 오영순이 뒤를 돌아보았다.

《반장동무가 아니예요?》

오영순의 어조는 의외로 밝아보였다. 성덕이
보다 두세살 우이지만 같은 반장을 할 때에는 흥
허물없이 통말도 주고받던 사이였다.

《왜 나왔어요? 경기피로를 좀 푸실것이지. ...》

《용범동무가 아직 안 왔기에...》

성덕은 오영순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
는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두 기다리는데 너무 늦는군요.》

젖은듯 한 오영순의 목소리는 성덕의 신경을 자
극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는 물음이 목구
멍까지 치밀었으나 애써 눌러버렸다. 오영순이 역
시 근심에 잠겨있다는것을 알아차린것이였다. 파
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아래사람의 신상에 상서롭
지 못한 그림자가 비꼈다면 그 누군들 마음이 순
편하겠는가.

《〈ㄱ〉재배법도입지에 가보자요. 용범동무
두 들리겠지요.》

《?!...》

조성덕은 멍하니 오영순을 지켜보았다. 갈피
를 잡을수 없는 판리위원장의 말이 그를 어리벉벉
하게 했다. ...

두사람은 《ㄱ》재배법도입지에 이르렀다.

눈두렁에 무릎을 꿇고 앉은 오영순은 아직은 고
개를 깊이 숙이지 않았지만 한없이 틈틈해보이는
벼이삭들을 어루쓸었다. 그러다가 문득 벼포기
를 하나 잡아당겨보았다. 손끝에 힘을 주며 이것
저것 당겨보던 그는 성덕을 돌아보았다.

《여느 벼포기는 수월히 뽑혀나오지요?》

물음인지 무엇인지 애매한 말투다.

《하지만 이 벼포기는 아주 억척같아요. 땅에
묻힌 바원들 이렇게 세졌어요.》

성덕은 침묵했다. 오영순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석연치 않다.

오영순은 또 하나 벼포기를 당겨보았다.

《전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군요. 이 땅
에 진정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 벼포기의 뿌
리처럼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말이에요.》

성덕의 가슴 한복판에 침범 바위돌이 던져졌다.
커다란 파문이 일어번졌다. 그 파문은 철썹 처절
썹 성덕의 가슴벽을 치고 또 친다.

조성덕은 자기도 모르게 벼포기를 당겨보았다.
정말 요지부동이다. 다른 포전의 벼포기들은 웬간
한 힘을 주어도 뽑혀나온다. 그런데 이 뿌리는 ...
이 《ㄱ》재배법도입지의 뿌리와 인간을 비교하여
오영순은 무엇을 새겨보는것인가.

성덕은 입술을 깨물었다. 혹시 자기는 같이층에서
만 맴도는 그런 벼뿌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였을가.
그래서 크지 않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지나간 늦봄의 어느날, 오영순은 조성덕과 김용
범에게 사업정지처벌을 주었다. 《ㄱ》재배법도입
지의 상태가 그런 극을 초래케 한것이다. 물속에서
살랑대는 미약한 모대들을 보며 가을에 가서
파연 수확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누구
나 품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더우기 앞그루작물
들의 가을과 뒤그루모내기를 하느라 김매기에 손
이 못 돌아가다보니 더욱 말이 아니였다.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어요. 더는 동무들에
게 이 땅을 맡길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성덕과 김용범의 머리에 내려진 최
후의 판결이였다.

이튿날 작업반에서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다.

《ㄱ》재배법도입지에 번들거리는 쇠보습들을
찬 석대의 트랙포르가 나타난것이다.

멀리 앞지구포전에서 논정리작업을 하고있던 조
성덕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천방지축 달려갔다.
거기에는 《ㄱ》재배법도입포전의 물관리를 맡
아보던 김용범이 두팔을 벌리고 오영순의 앞을 막
아서고있었다.

《동문 무슨 권리로 막아서는거예요?... 비켜요》
오영순의 목소리는 야멸찼으나 얼굴은 금시 울
가망이다.

《안됩니다.》

용범의 항변은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동무의 눈엔 이 눈썹이 보이지 않아요?》

오영순은 손끝을 내뻗치며 논판을 가리켰다. 다
른 포전들과 너무도 대조되는 논판의 광경이 송곳
처럼 눈을 찌른다. ...

가슴치는 통탄과 후회, 고심끝에 오영순은 단호
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막다른 결심을 하는데 이르
렀던것이다. 용범의 주장을 마지못해 용인했었
지만 뒤날에 일떠선다는것을 전적으로 믿을수 없
거니와 그 불안한 희망을 안고 가을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은 파열되고말것이었다.

《다시 한번 말해요. 비켜요.》

오영순의 음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위원장동지!》

《용범동무, 어쩌면 이럴수 있어. 이 오영순
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기를 쓰고 맞서?》

오영순의 눈가에 핑 물기가 고여돌았다. 용범의
입술이 떨리며 고개가 푹 숙어졌다.

《제가...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일은 제가 끝까지 책임질수 있게 막지 말아주
십시오.》

그것은 하소였던가 애원이었던가 피타는 녀의
웨침이었던가.

오영순은 눈을 크게 뜨며 용범을 보았다. 해별
과 바람에 그슬릴대로 그슬려 흠뻑처럼 된 거기에
정신적중압까지 겹쳐 새까매진 얼굴, 흐트러지
고 윤기를 잃은 머리카락, 흠뻑이 오른 옷자락...

오영순은 심장을 부여안으며 돌아섰다. 고개
를 숙인채 말없이 걸어갔다.

모여왔던 사람들의 눈가에 하나같이 소낙구름이
질게 드리웠다. ...

참으로 꼭절 많았던 잊을수 없는 봄이었다.

《저기 용범동무가 오는것 같군요.》

오영순의 소리에 성덕은 고개를 돌렸다. 별
빛이 내려앉는 포전길로 정말 김용범이 걸어오고
있다.

어둠속에서 두사람을 알아본 용범은 무척 놀라
는 기색이다.

《모두 어찌된 일입니까?》

《강가에 아이를 내보낸것 같은게 어디 마음이
놓이더라구. ...》

오영순이 흥그럽게 응대했다.

용범은 먼구스레 눈길을 숙이며 미소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영순의 목소리는 따뜻함에 넘쳤다.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글썄 도에 가서 토론
을 하게 되었다고 토론문을 어쩌나 간깐히 검토하
는지. ...》

성덕은 그만 숨을 멈추었다. 용범이가 이자 뛰

라고 했는가. 도에 가서 토론을 한다구? 하다면
이는 분명 《ㄱ》재배법에 대한 뚜렷한 긍정이 아
닌가. 《ㄱ》재배법도입의 실태를 료해한 일군
들은 당시 현장에서 좋다, 그르다 일체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다. 아직은 평프기도 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충실히 무르익혀 베고 털어서 계량하는 날
까지는 많은 기일이 남아있다. 그런데 ...

《반장동무, 들었어요? 우리 용범동무가 도의
연단에서 토론을 하게 됐어요. 〈ㄱ〉재배법도
입경험을 가지고 말이예요.》

그 내용을 어지간히 알고있었던듯 오영순의 얼
굴은 환하게 빛났다.

거대한 회오리가 성덕의 온몸을 아득한 하늘가
에로 휘말아올려가는듯싶었다.

미약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던 《ㄱ》재배법도
입포전들과 더불어 용범은 그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오영순도 하루 한번씩은 꼭꼭 《ㄱ》재배
법도입지를 돌아보곤 하였다.

가을이 다가올수록 《ㄱ》재배법도입포전의
생육상태는 나날이 변화를 가져왔다. 실향지
던 벼대들, 길게 자태를 드러내던 소담한 벼
이삭들...

그러나 그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마찰은
계속된다고 성덕은 생각했으며 서로의 가슴에 격
렬했던 심리전은 오늘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마
음을 조여왔었다.

《용범이!》

성덕은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뼈아픈 회오가 그
의 두릿한 눈가에 뿔어났다. 너무도 많이 입에 올
려온 농사의 주인이라는 말,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말, 이것을 피와 살로 체득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것인가. 만일 그 봄날의 번뜩
이는 보습앞에 몸을 내대지 않았더라면 용범이는
물론 조성덕도 《ㄱ》재배법도입지의 싹들과 함께
묻혀버리고말았을것이다.

《용범동무!》

오영순이 용범이의 손을 꼭 끌어잡았다.

오영순의 맑고 시원한 두눈에는 진정이 넘쳤다.

《참 위원장동지두...》

오영순은 무엇인가를 말하려다가 가볍게 소리내
여 웃고말았다.

조성덕도 시뭇이 웃어버렸다. 하면서도 녀인
이 하려다가만 말이 무엇이였을가를 마음속으로
음미해보았다.

조성덕은 밤바람에 흥치며 설레이는 벼숲의 바
다를 뜨거운 눈길로 둘러보았다.

식물체의 왕성함을 뿌리를 떠나 생각할수 없듯
이 이 대지의 풍요함도 그 뿌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 땅을 기름지우고 살찌우는 뿌리, 이는
다름아닌 우리 농사군들이 아니겠는가. 이 뿌리가
억세지 못할 때 열매는 허약해지고 이 땅의 무게
는 가벼워진다. 허나 실한 뿌리들이 깊이깊이 내
린 곳에는 언제나 알찬 열매가 무겁게 일렁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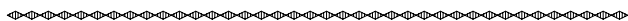
법이다.

오영순은 무릎을 꿇고앉아 탐스러운 벼이삭들을 애뜻이 어루쓸었다.

녀인의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두 사나이의 눈가에 미소가 황홀히 빛나고있었다.

그해 11월말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지식인대회가 성대히 열리었다.

군에서 떠나는 7명의 대회참가자들속에는 제진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김용범의 얼굴도 보였다. ...



시 초

내 고향의 영웅들

박 응 전

못 잊을 추억

인생의 하많은 추억중에도
세월이 흐를수록 생생히 떠오르는
못 잊을 추억이 내게 있어라

우리 마을 민청위원장이던
습격조영웅아저씨
전쟁이 한창이던 때
전선에서 고향으로 온다니
이 아니 경사론가

우리포대 아이들 눈길 헤치고
노루목고개로 마중 달려가던
그 서리꽃핀 아지에서
까치 울던 산촌의 겨울날이여

우리 마을 영웅이 온다고
아바이들은 산짐승을 잡아오고
녀인들은 메밀국수반죽을
누나들은 가슴 설레며
축하의 노래를 준비했었지

용감성이란 무엇인가
대담성이란 무엇인가
영웅의 위훈담에 홀딱 반하던
상봉모임의 가슴달던 걱정이여

그것은 한생토록 심장의 밑불이 되어
나를 돌격전의 앞장에 내세워주었고
위훈떨치고야 돌아올
귀향의 권리를 새겨주지 않았던가

영웅의 소식은 어떻게 오는가

소식은 어떻게 오는가
영웅의 소식은
서해갑문건설영웅 마흔한번째
《사관 최명철》
정령이 발표된 신문엔 고향주소 없으니
어이 알라
세상엔 같은 이름도 많거니

허나 알았다
읍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법석쿵—
우리 학교 영웅이다 우리 마을 영웅이야

너무도 들썹쿵해
평양에 올라가 물으니
《맞습니다 신평태생영웅이》

이 아니 경사론가

읍거리엔 대문짝같은 특보
영웅의 고향집은
축하의 인산인해

부대에선 아직 통지도 못했고
영웅의 편지는 오는 도중인데
우리 영웅이 났다고
스물두살 병사영웅이라고
온 군이 흥성거렸고
일터마다 신바람났다

아, 영웅은 영웅은
누가 먼저 알아주던가
정다운 고향이였네
모교였네
소식은 어떻게?
고향의 마음 그 믿음속에
맨 먼저 날아오는것이였네

《도라지꽃》의 고향

내 고향 대지리는
하람산기슭
골깊은 산골
예술영화 《도라지꽃》의 고향
그 처녀관리위원장 송림의 냇이
오늘도 산촌에 백화로 만발하는 곳

내 고향 대지리는
영웅이 많이 나는 산촌
영화에선 두명의 영웅을 낳았으나
이제는 더 늘어나
병사영웅, 로력영웅이 배출됐다네

하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마음 경건해진다네
영웅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땅
그들이 배운 학교가 솟아있고
그들을 키운 어른들이 살고있는 곳

아무렴 그렇지
《도라지꽃》의 고향이어서
산촌은 선경으로 꽃피어나고
그 냇을 이어 자란 아들딸들이어서
나라의 영웅으로 되는것 아니라

고향은 기다린다

우리 고향 영웅이 또 났다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서
《군관 한명칠》

기다렸다
하람산기슭 모교에서도
온 마을이, 온 군이
그렇듯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
그리도 힘있게 고무해준
안변의 영웅을

보고싶고 열싸안고싶은
우리 마음을 담아
로동신문은 소개했다
《고향은 영웅을 기다린다》고

려단장은 영웅을 불렀다
《이 신문을 보오
〈고향은 영웅을 기다린다〉 니

어서 떠나시오》

떠나간 자식들 많아도
위훈없는 빈 가슴 누가 반기랴
고향은 위훈자들의
주소와도 같아

언제든 기다린다 고향은
영웅된 아들딸들을
그러면 우리 영웅들 위해
고향은 예쁜 꽃 다 꺾어 안겨주리
고향의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리
고향의 고운 노래 다 불러 축하해주리

언제든 기다리면 오는 영웅들
그들처럼 한몸 다 바쳐
사회주의선경 꽃피운 자랑 안고
오늘도 래일도 기다린다 고향은
금별로 빛나는 나라의 영웅들을

우리 영웅은 왔다

고향에 왔다
우리의 고완철공화국영웅
먼 이역의 바다기슭에 쓰러졌어도
조국은 품에 안아왔나니

열다섯 영웅중 열세번째 사진
얼마나 대견하고 미더운 모습인가
저 멀리 바라보는 그 눈빛은
고향의 하늘을 지켜보는것인가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는것인가

태풍에 휘말린 석달표류속에서도
장군님노래를 불렀을
우리의 사랑스런 병사

한몸이 파도에 씻기여

이역의 기슭에 떠실려왔어도
끝까지 결사옹위한
백두산위인들의 빛나는 영상에서
세상은 얼마나 놀라고 경탄했던가

군과 모교의 연혁소개실
애끓은 영웅의 사진앞에서
사람들은 발길 떼지 못한다
아들은 어떻게
고향에 돌아와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뺏지 말라 얼룩진 마음으론
고향의 한치 잔디밭도
오지 못한다 살아도

고향과 조국을 배신한 역적은

허나 우리 영웅은 왔다
삶과 죽음의 진리를
망망대해우에
목숨으로 엮어 아름답게 새기고
참된 인생관의 교과서를

금별의 위훈으로 써안고

왔다 어머니고향의 품에
가장 성스럽고 장한 모습으로
영원히 왔다
무지개비낀 고향의 언덕에

새 영웅감들이 떠나간다

신입병사들이 떠나간다
환송의 꽃다발 꽃보라
리수복, 김광철, 길영조영웅처럼
장군님 아시는 영웅이 되자

가슴마다 붉은 꽃송이 달아주며
군당책임일군의 당부도 뜨겁다
고향의 영웅들처럼
위훈떨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신입병사들의 힘찬 대답소리

산천에 메아리친다
아 고향 고향은
영웅들의 위훈으로 성스럽고
영웅들의 전설로 아름답고
영웅들의 이름으로 빛나라

신입병사들이 떠나간다
새 영웅감들이 떠나간다
이제 더 많은 영웅들이 돌아올
고향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단 평

《군고구마매대》가 풍기는 향기

김 청 송

구수하고 감미로운 군고구마향기!

아마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군고구마향기를
마다할 사람이 없을것이다.

나도 수도의 거리마다 줄지어 늘어선 군고구마
매대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 유혹적인 구수한 냄
새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한봉지 사들고 후후 불
며 맛있게 먹곤 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런데 생활속에서 자주 맞닥들리게 되던 그 특
색있는 정서적향기를 문학세계에서 재음미하게 하
여준 작품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단
편소설 《군고구마매대》 [김승제 작, 《조선문
학》잡지 주체97(2008)년 10호] 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룬 우리 사회
에서 날에날마다 새롭게 발현되는 숭고한 인간미
는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참다운 인간미
의 세계를 《군고구마매대》라는 특색있는 《렌
즈》를 통하여 굴절시켜 보여준것은 작품이 남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된다.

부속품가공에서의 뜻하지 않은 오작사고와 누구
보다도 사랑하고 따르는 어머니의 불치의 병으로
인한 입원 등 여러가지 정신적충격으로 하여 성
격이 이지러질대로 이지러진 《나》, 《빠스줄에
서 몇분 기다리는것도, 맥주집에서 잠시 줄을 서
는것도 남먼저 부아가 나고 궤도전차에서 어쩌다
누구에게 발등을 한번 밟혀도 대뜸 짜증부터 터

쳐야 하는》 독선적인 인간—《나》, 조직의 비판
도 애인의 충고도 모두 《시시콜콜》한 《참견》
으로 《숨막》히게 생각하며 엇서나가기만 하던
거칠대로 거칠어진 《나》가 한 군고구마매대 판
매원녀인의 사회를 위한 헌신에 자기를 비추어보
며 《〈우리〉라는 부름속에 〈너〉와 〈나〉가
따로 없고 정을 나누어도 불명여리같은 진정을 나
누는 한가정, 한식술》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
정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나》의 부정적성격이 극복되
기 시작하는 계기점을 보통의 상식에서 벗어나 그
어떤 통제나 비판에서가 아니라 군고구마매대라는
특이한 세부에서 포착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선택은 결국 군고구마매대와 거
기서 일하는 한 평범한 판매원녀인의 아름다운 마
음씨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한눈에 그
려보일수 있도록 하여준 바탕으로 되였다.

우리 사회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세부와 소재들은
다른데서도 수없이 찾을수 있겠지만 사실상 생겨난
이야기부터가 평도자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전설
로 되어있고 사람들 누구나 웃으며 찾는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이 군고구마매대야말로 따져
볼수록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의 축도를 형상하
는데 매우 적합한 세부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누구나 매일처럼 스쳐지나고있는 이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세부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
월성이라는 《직관도》를 포착하고 그것을 재치있
게 형상의 꽃으로 피워낸 측면에서 작가의 독

창적인 탐구와 창작적기교를 찾아볼수 있다는 점이다.

주제와 소재, 세부의 선택에서도 특색이 있지만 작품은 그 구성형식에서도 참신성이 엿보인다.

작품에는 《나》의 성격적약점에 화살을 돌리고 직접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나》를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인물이 따로 설정되어있지 않다.

다만 《나》의 시점에서 묘사된 주인공의 미담과 그를 둘러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인정미만이 그려지고있을뿐이다.

세포비서 정국아바이, 아바이의 마음좋은 《동갑이》인 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식료연구사처녀 등 작중인물들중 누구도 《나》와 갈등을 이루고 교양적역할을 하도록 설정되어있지 않다. 애인의 비판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사랑의 일시적인 결렬상태로 극성을 보충해주는데이바지할뿐 《나》의 교양에 주도적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작품은 《나》가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군고구마매대와 그를 둘러싼 각이한 사람들의 후더운 인정세계,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고상한 흐름속에 이끌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만을 알던 세계로부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세계로 승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단순히 한 인간의 성격발전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성장을 담보해주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폭넓게 보여줄수 있도록 인물들을 배치하고 편결시켜주고있다.

이러한 인물관계의 설정은 작품이 제기한 무거운 형상과제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폭과 깊이를 조성하였을뿐아니라 《나》의 성격이 그 누구의 비판 몇마디라든가 생활의 어느 한 순간에 받은 충격으로 쉽사리 고쳐지는 식의 억지가 아니라 생활의 흐름속에서 성격론리를 타고 자연스럽게 성장할수 있는 전제로 되고있다.

어찌 보면 인간개조사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을듯싶은 자그마한 군고구마매대와 결부시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참신한 인간미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화했다는데 이 작품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작품의 마지막에 씌여지고있는 작가의 주정토로는 생경한 주장이 아니라 생활의 철학으로 독자들의 마음속에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기

는것이다.

《우리 생활의 그 어디서나 삶의 독특한 향기를 풍기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서는 그 어떤 특별한 계기나 비상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평사로운 생활의 매 순간순간이 시대 공민들의 본태와 진정한 인간미가 취할듯이 풍겨나오고있는것이다.

오, 감미롭고 구수한 군고구마의 향기여!...》 보는것처럼 작가는 《감히》 우리 시대 공민들의 인간미, 사회의 향기를 군고구마의 향기속에서 이야기하고있지만 이미 형상을 통하여 환기된 그 정서는 꾸밈이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안겨오는것이다.

확실히 《군고구마매대》—이 작품에서는 독특한 정서와 특이한 향기가 풍긴다.

물론 독특하고 특이한것이 곧 훌륭하고 완성된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작품에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측면들도 없지 않다고 보아진다.

크나작으나간에 당조직선으로 형상된 세포비서아바이의 형상이 《나》의 성격발전에서 한 군고구마매대의 판매원녀인에 비해볼 때 너무 피동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는지...

작품의 서두에 그려진 우등불가에서의 고구마구이장면도 인위적인감이 난다.

고구마가 거의나 귀물로 되고있는 백두산지구에서 감자라면 몰라도 우등불가에서 고구마구이를 한다는것은 어쩐지 군고구마매대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붙인것처럼 생각된다.

물론 지원물자로 실어온 고구마라고 체나름의 리해는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작품의 실감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리 긍정적인 느낌은 주지 않는다. 차라리 군감자를 보면서 군고구마매대를 회상하도록 한다 해도 별로 물의는 없었겠는데 보다 본이야기에 접근시킨다는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다.

그러나 평범한것에서 새롭고 무게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형상해낸 작품의 여운은 군고구마향기처럼 오래도록 감돌며 사라지지 않는다.

작가라면 누구나 이렇게 우리의 평범한 생활속에서 우리의 독특한 향기가 풍기는 작품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된다.

○ 가 사 ○

우리 섬 독도

곽 명 철

수수천년 긴긴 세월 이 땅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해온 조선의 독도
바다건너 오랑캐들 제땅이라니
이 가슴에 피가 끓어 참을수 없네

바다멀리 홀로 있는 섬이라지만
조선민족 가슴우에 솟아있어라

백년속적 오랑캐들 날뛰지마는
우리 독도 돌 하나도 다칠수 없네

한강토로 뻗어있는 우리 섬 독도
어머니와 자식처럼 가를수 없네
영원한 내 조국의 귀중한 독도
대대손손 가꾸어갈 우리 땅일세

시집 《진달래꽃》을 통하여 본 소월 시의 향토적특성

시집 《진달래꽃》(1925년)은 소월 김정식의 대표적인 시 127편을 묶은 작품집이다.

김소월은 해방전 우리 나라 문학사에 이름있는 향토시작품들로 자욱을 남긴 재능있는 시인이었다.

김정식은 우리 나라에 망국의 비운이 어리던 1903년 당시 평안북도 정주군 관산면(오늘의 구성시 왕인리)에서 태어나 남산학교와 정주오산학교를 거쳐 서울배재중학교를 졸업하였다.

학교시절부터 창작에 재기를 보이던 그는 주체 9(1920)년 《랑인의 봄》을 비롯한 5편의 시들을 《창조》잡지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장하였다.

시 《먼 후일》, 《풀따기》, 《금잔디》, 《달맞이》, 《엄마야 누나야》, 《제비》, 《진달래꽃》, 《가는 봄 3월》, 《님과 벗》 등 많은 작품들을 《동아일보》신문과 《학생계》, 《개벽》잡지 등에 발표하면서 시적재능을 자래운 그는 주체 12(1923)년 배재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가 간토대지진으로 귀국한 이후 전문적인 시창작활동을 벌리면서 주체 14(1925)년 12월 그동안 창작한 시들을 모아 시집 《진달래꽃》(매문사)을 출판하였다.

시집은 소제목들 단 1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소제목들을 보면 《님에게》, 《봄밤》, 《두사람》, 《무주강산》, 《한때, 한때》, 《반달》, 《귀뚜라미》, 《바다가 변해야 뽕나무발 된다》, 《여름의 달밤》, 《버리운 몸》, 《고독》, 《려수》, 《진달래꽃》, 《꽃초불 켜는 밤》, 《금잔디》, 《닭은 꼬꾸요》로 되어있다. 여기에 수록된 127편의 시들은 많은 경우 《동아일보》신문과 《개벽》, 《령대》, 《조선문단》잡지 등의 지면들에 이미 발표된것들이었다.

시집 《진달래꽃》은 김소월이 생전에 출판한 유일한 시집으로서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실려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몽기문학예술가운데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통탄하는 애수와 비애에 찬 작품도 있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정서를 담은 작품도 있습니다.》

해방전 우리 나라 문학사에는 일제침략자들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통탄하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시화한 진보적인 작품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러한 작품들가운데는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에 들어있는 시들도 있다.

이 시집을 고찰해보면 해방전 대표적인 향토시인으로 문단의 평가를 받고있는 김소월 시의 향토적특성을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시인의 시집에는 시단의 다른 시인들과는 대비되는 독특한 개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시집 《진달래꽃》은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나 정지용의 시집 《백록담》 등과 대비해 볼 때 제목에서부터 그의 창작적개성이 표현되어 있다.

《님의 침묵》— 여기에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기본주제로 하여 시들을 창작한 한용운의 일굴이 그대로 비껴있으며 《백록담》이라는 제목에는 조선의 이름난 산천경계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풍경시에 담은 정지용의 개성이 구현되어있다.

진달래꽃은 우리 조선민족이 아끼고 사랑하는 꽃이다. 이른봄 산기슭에 남먼저 피어있는 순결의 꽃— 진달래꽃을 시제목으로 단 김소월의 시집에서는 티없이 정갈하고 순결하며 진달래꽃잎같이 열렬한 그의 조국애, 향토애가 그대로 노래되고있는것이다.

시집 《진달래꽃》에서 소월 시의 향토적특성은 무엇보다도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에서 찾아볼수 있다.

시집 《진달래꽃》에는 여러 주제의 시들이 포함되어있다.

고향과 나라를 빼앗긴 설움과 비애를 《님》을 그리는 련인의 마음에 비추어 노래한 시들과 나그네의 심정에 비긴 시들, 또 우리 인민의 생활처지에 대한 동정, 인민들속에서 전해져오는 전설과 풍습에 대한 긍정 등을 시화한 작품들이 기본주제를 이루고있다.

시집 《진달래꽃》에 실린 시들에서 특징적인것은 시의 서정이 대부분 향토적인 정서와 밀접히 결부되어 노래되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시적소재도 향토적인것으로 선택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정토로도 아담하고 소박하게 노래하여 향토에 어울리는 양상을 보이고있는것이다.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파아란 불빛은
가신 님 무덤가의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산천에도 금잔디에도

시 《금잔디》에서 시적소재는 봄빛이 넘치는 《가신 님 무덤가》의 금잔디이다. 작품은 《님》을 잃은 련인의 쓸쓸하고 서글픈 감정을 심심산천의 봄정서를 더해주는 파아란 잔디에 비추어 2개련에 걸쳐 조용하면서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빼앗긴 조국을 잃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님》을 그리는 련인의 마음에 비추어 노래한 한 룡운의 시와 대비해보면 소월시의 향토적특성이 더욱 부각된다. 한 룡운의 시 《꿈 깨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님이머는 나를 사랑하련마는
밤마다 문밖에 와서 발자취소리만 내고
한번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도로 가니
그것이 사랑인가요

그러나 나는 발자취나마 님의 문밖에 가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랑은 님에게만 있나봐요

아아 발자취소리가 아니더면
꿈이나 아니 깨었으련마는
꿈은 님을 찾아가려고 구름을 탔었어요

이 작품에서 사상정서적내용은 《금잔디》와 엇비슷하지만 시에서 받게 되는 정서적충격은 서로 다르다. 이 작품에서는 나라잃은 민족의 설움이 애절하고 원통한 감정정서로 흘러나오고있지만 결코 소월의 《금잔디》에서처럼 짙은 향토적인 정서와 결부되어있는것은 아니다.

소월에게 고유한 향토적인 정서는 산천의 구체적인 대상들과 우리 인민들에게 친숙해진 전설과 풍속들, 당시 인민들의 생활세부와 같은 향토적인 시적소재의 선택 등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시집 《진달래꽃》에서 김소월시의 향토적특성은 개성적인 시꾸밈에서도 잘 찾아볼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운률조성과 어휘구사이다.

소월의 시작품에서 지배적인 운률은 7·5조이다. 7·5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작품에 따라 다양한 물조변화와 운률조성을 위한 여러가지 수법을 활용한것은 소월의 향토시에 독특하고 민족적인 운률을 더 잘 살릴수 있게 해주었다.

그립다
말을 할가
하니 그리워

그냥 갈가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저겁니다

앞강물 뒤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련달아 흐릅디다려

시 《가는 길》은 소월시의 운률적특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전통적인 3·3조나 4·4조의 운률을 그대로 살린 안서의 시들과는 달리 소월시들에서는 작품의 정서적내용과 흐름에 맞게 물조변화를 주면서도 7·5조의 음수물을 기본으로 시를 꾸민것으로 하여 소월의 시작품들은 그 향토적특성이 더 개성적으로 살아나고있다.

또한 소월은 아름다운 우리 말-고유어들을 적극 리용함으로써 시작품들의 민족적인 향취를 더 한층 돋우고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녕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분히 지레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시 《진달래꽃》에서 시어는 모두 고유한 우리말로 되어있다.

특히 《역겨워》, 《고이》, 《아름 따다》, 《사분히》, 《지레 밟다》, 《진달래꽃》과 같은 어휘들은 향토적정서를 짙게 해주며 시의 정서적내용을 더 실감있게 하고있다.

소월의 시들에서는 일부 방언들과 고어들을 포함하여 당시 우리 인민에게 널리 애용되고 익숙되었던 고유한 우리 말에서 시어를 선택하고 내용과 운률에 맞게 구사함으로써 작품의 향토성을 잘 안받침하고있다.

김소월의 시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을 일제를 반

대하는 무장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는 혁명적인 시작품들과 대비해볼 때 명백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뚜렷한 방도를 알지 못했던 시인의 세계관적제한성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소월의 대부분의 시들은 강도 일제에게 모든것을 빼앗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민족에 대한 사랑,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자신의 뼈와 살로 간직할수 있는 열렬한 사랑을 깊이 새겨주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작품들이라고

볼수 있다. 시인이 이런 성과작들을 낼수 있었던 것은 소월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민족애, 향토애가 흘러넘쳤기때문이었다.

시집 《진달래꽃》에 실린 김소월의 시들은 그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1920년대 시문학의 민족적성격과 근대적특성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 자유시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근대 우리 나라 시문학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김 송 미

자 료

반일애국적인 작가 리륙사의 소설에 대하여

리륙사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가장 극심하였던 시기인 1930년대 후반기—1940년대 전반기에 활약한 반일애국작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1904년 5월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촌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원록이고 어린시절에는 대체로 원삼이라고도 불렸으며 문필활동을 벌리면서 리활 또는 리륙사라는 필명을 주로 썼다.

그가 리륙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쓴것은 《조선은행대구지점폭파사건》〔주체16(1927)년〕의련투자로 지목되어 대구감옥에 잡혀 1년 7개월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부터였다. 주체19(1930)년 10월 《별건곤》잡지에 시사론평 《대구사회단체개관》을 발표할 때 그는 리활과 《대구264》라는 필명을 썼다.

《264》라는 번호는 륙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수인번호였다고 한다. 그는 수인번호(264)의 음절을 본따서 륙사라는 뜻으로 이름을 썼다.

자료에 의하면 그의 이름에는 자기는 일제식민지사회에서 영원한 죄인이라는 반일의지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겠다는 투쟁의지가 비껴있다고 한다.

리륙사는 이름처럼 자기의 문학을 반일구국의 한 부분으로 여기었으며 반일독립의 길에서 투쟁을 벌리다가 해방을 한해 앞두고 감옥에서 순국한 애국지사였다.

륙사의 이러한 애국정신은 그가 남긴 문학작품에 그대로 비껴있다.

리륙사는 1930년대 중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창작활동기간에 시 《청포도》, 《절정》을 비롯한 40여편의 특색있는 시작품들과 번역소설을 포함한 소설 3편, 수필 14편과 가치있는 평론 16편 등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여기에서 리륙사의 소설(번역소설 포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해보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멸되었거나 과몰허있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하며 작가와 작품을 우리 나라 문학사와 예술사발전의 견지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황엽전》〔《조선일보》 주체26(1937)년 10월 31일~11월 5일〕은 륙사가 창작한 유일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독특한 꿈형식의 구성수법을 도입하고있다. 여기에는 1930년대 후반기 일제의 식민지파썸통치가 더욱 우심해지고있던 당시의 현실을 정면으로가 아니라 우회적으로 부정해나선 륙사의 반일항거정신이 담겨져있다.

소설에서는 황엽을 시점으로 하여 소년의 운명을 펼쳐보이고있다.

소년의 고향은 해변가마을이었다.

그런데 그는 《모래밭》이 너무 허무해서 서울로 올라가 어느 한 녀인을 미친듯이 사랑한다. 그러나 그 녀인의 부모들이 반대해나서기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리별하게 된다.

실련의 아픈 가슴을 안고 소년은 《폐잔병의 유령》이 되어 정처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그는 이 과정에 자살하려는 결심도 한다. 하지만 용단을 내리지 못한 소년은 어느 한 마을에서 꿈을 꾸게 된다. 그는 꿈속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빈곤과 추위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마주친다. 그런데 그 끔찍한 꿈속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그가 어린시절 떠나온 고향의 사람들이었으며 그중의 한 로인은 자기의 아버지였다.

그가 아버지와 고향사람들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하여 꿈속의 고향사람들과의 절망과 희망의 교차속에서 헤매이다가 깨어나 또다시 기약없는 길을 떠난다.

소설의 줄거리를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1930년대 후반기 억압과 착취가 더욱 심해지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룡사는 유령이라는 황당무계한 존재를 설정하고 꿈형식을 빌어 당대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있다.

비록 꿈형식을 빌어 펼쳐보였지만 그것은 당대의 시대적환경과 생활현실이었다.

소설에서는 소년의 꿈속에서 《괴수같이 늘어선 빌딩들의 검은 그림자》가 아스팔트에 얼어붙은 거지들의 싸늘한 꿈을 죽음같이 덮어놓는 음산한 도시의 풍경을 펼쳐보이기도 하고 홍수와 추위, 굶주림에 시달리는 식민지조선의 비참한 모습을 눈에 보듯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그러면서 룡사는 소설에서 식민지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룡사는 유령의 꿈속에서 당시의 현실을 서로 대조된 명암으로 드러내 보이고있다. 즉 밤과 어둠 그리고 불빛을 찾아 사생결단의 각오로 전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밤과 어둠은 일제의 식민지과쏘통치하에서 고통을 겪는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현실이고 불빛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참혹한 현실속에서 비판하지 않고 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인민의 강한 의지에 대한 형상이다.

룡사는 소설의 마감부분에서 꿈에서 깨어난 소년이 홀로 막연하게 길을 떠나는것으로 끝을 맺고있다.

여기에서 작가는 소년이 가는 길을 막연하고 고독한 길로 그리고있다. 이것은 룡사가 당시 우리 인민이 어느 길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확고한 사상적립장을 지니고있지 못한데서 나온 제한성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룡사의 이 소설은 일제의 파쏘적폭압과 학정이 가장 우심했던 1930년대 후반기에 당시의 비참한 시대모습을 폭로하였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으로 당대 인민들을 고무하는데 다소나마 이바지하였다고 볼수 있다.

룡사는 소설창작과 함께 외국소설을 번역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는 로신의 첫 소설집 《눌함》에 수록된 단편소설 《고향》〔《조광》 주체25(1936)년 10월 23일~27일〕과 고정영의 소설 《골목안》〔《조광》 주체30(1941)년 6월〕을 번역하여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번역소설에는 번역자의 사상과 미학적인도가 담겨지게 된다.

룡사가 다른 그 어느 작가도 아니고 로신의 소설을 번역하였으며 그중에서 《고향》을 선택하여 번역한것은 그의 사상미학적인도가 어떠하였는

가를 가늠하게 한다.

룡사가 로신의 작품들을 번역소개한것은 그가 로신의 문학세계와 사상에 대하여 공감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룡사가 번역소개한 로신의 단편소설 《고향》에는 고향을 떠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가 섬세하게 그려지고있다.

작중인물인 《나》는 20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고향을 떠나는것이 그리 반갑지 않았다.

작중인물이 귀향하여 본 고향풍경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한산》한것이였다. 《한산한》 고향의 풍경은 타향살이를 하다가 온 《나》에게 있어서 육신을 더욱 고단하게 할 따름이였다. 그러던 《나》는 아름답던 그것—《유년시절의 윤토》에 대한 애뜻한 추억에 잠긴다. 《나》는 유년시절에 윤토에게서 자연현상의 기이함과 법칙을 배웠으며 생활에 대한 첫 인식을 하게 되였다. 고향을 떠나게 된 지금 《나》는 유년시절의 그 윤토를 만나고싶었다. 그런데 윤토가 《나》를 찾아왔다. 세월의 흐름속에 유년시절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성인이 된 윤토와 《나》는 고향의 빈곤함과 비참한 삶에 대하여 느끼면서 새 생활에 대한 지향을 절감하게 된다.

《생각하면 희망이라는것은 대체 있다고도 말할수 없고 또 없다고도 말할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상의 길과 같은것이다.

길은 본래부터 지상에 있는것은 아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길은 스스로 나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룡사에게 있어서 로신의 작품 《고향》이 제기한 사회적인 문제성은 다름아닌 고향에 남는 사람이나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다같이 기다리는 미래의 《새로운 생활》을 창조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하기에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그저 고통으로 감수하며 살아갈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셔버리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는 사상적주장을 내비쳐보여주기 위하여 룡사는 이 작품을 선택하여 번역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룡사의 이러한 사상적지향은 고정영의 단편소설 《골목안》을 번역소개한데서도 표현되고있다.

작가자신은 원작자인 고정영에 대하여 《이 작가의 경력에 대하여 필자도 잘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고향》은 룡사가 존경하는 로신이 원작가이지만 《골목안》의 경우에는 원작자인 고정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도 룡사가 번역소개한것은 일제통치하에 식민지민족이 겪는 불행한 운명과 비참한 처지를 감수하게 하기 위한 사상미학적인도가 있어서였다.

바로 룡사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국작가의 소

설을 왜 번역하였겠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알 수 있게 한다.

1930년대에 일제는 중국동북지역을 점령하고 《만주국》이라는 괴뢰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중국의 동북지방도 식민지로 만들었다. 식민지조선과 식민지《만주국》에 펼쳐진 비참한 현실은 일맥상통하였다. 하기에 룡사는 일제식민지로서의 암담한 조선현실

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보이려는 의도로부터 고정된 단편소설 《골목안》을 번역소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식민지파쇼통치가 극도에 달하였던 시기 번역소개된 룡사의 《고향》과 고정의 소설 《골목안》은 당시 식민지사회에 대한 부정과 반일저항의식을 가진 룡사의 창작활동의 경향성을 여실히 가늠해보게 한다.

계 은 희

자 료

피압박인민들을 뜨겁게 동정한 바이런 시들의 특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어떤 견해와 입장에서 현실을 보고 대하며 어떻게 예술적형상으로 일반화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의 세계관에 달려있다.》

바이런이 지중해연안의 여러 나라들에서 창작활동을 벌린 19세기 초엽은 인민들에 대한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던 시기였다. 나폴레옹이 멸망한 뒤 강대국들의 식민지정책 역시 극도로 악랄해졌다. 하기에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리념으로 하는 바이런의 랑만주의적작품들에 침략자들의 억압과 예속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 대한 동정의 감정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 동정의 감정은 랑만주의적창작방법의 수법상 특징으로 하여 열렬하고 강렬하였다.

바이런의 동정은 위로가 아니며 비애와 애수, 절망의 감정에서 시작된 구슬픈 서정이 아니다.

그의 동정은 억압자들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다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서정시 《그리스의 섬》에는 침략자들의 예속에서 신음하는 그리스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이 깊이 어리어있다.

그러나 그 동정은 위로와 위안에 목적을 둔 속세적인것이 아니다.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절, 내 노래부르나
예속된 민족의 운명 내 함께 지니고
망국노의 치욕으로 내 얼굴을 가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바릴수 없노라
말하라, 시인이 노래할것 이 나라에 무엇이 남
았느냐?

그리스엔 눈물, 인민에겐 굴욕뿐이여라

바이런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동정은 인간의 자유를 목숨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랑만주의자의 자존심과 사상적지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정의 분출이다.

바이런은 장편서사시 《동 주앙》에서도 황제들

과 군주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무참하게 목숨을 잃는 무고한 인민들을 깊이 동정하였다. 그 동정속에는 부정의의 침략전쟁에 대한 바이런의 증오와 경멸의 감정이 반영되어있다.

바이런은 인간에 대한 동정심을 인간의 최고감정으로 간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정심으로 불타면 인류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룩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이런은 편력의 나날 유럽을 파멸시킬 대전쟁이 다가오는것을 느꼈으며 그 살육전에서 비참하게 희생될 인민의 모습을 보았다.

유럽의 운명을 놓고 바이런이 기대를 건것은 지난날의 력사가 증명한 인민의 힘이였다.

바이런은 그 거대한 힘이 비리성적인 력량이기에 강대한 군주들의 압제에 눌리워 당장 닥칠 위험을 모르고 잠들었다고 생각하였다.

인민의 불행이 계급사회가 낳은것이며 전쟁 역시 계급사회의 산물임을 알지 못한 바이런은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무지와 편관시켰으며 군부들의 침략정책도 군부들의 무지와 편관시켰다. 하기에 바이런의 동정은 자기의 힘을 자각 못한 인민의 비리성적인 능력에 대한 동정이였다.

그의 서사시들에 반영된 인민에 대한 동정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바이런이 인민들을 동정했고 그들의 투쟁을 도운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자기의 운명을 인민의 운명과 합친적은 없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자기가 귀족이라는 긍지를 잃지 않았다.

인민에 대한 그의 동정은 자기와 처지가 다른 인간들에 대한 객관적립장에서의 동정이였다. 하기에 그의 시들에 반영된 인민에 대한 동정은 인민을 깨우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귀족의 작위를 귀중히 여기는 그로서는 인민의 힘을 리성적인것으로 인정할수 없었다.

헬리는 바이런이 자기가 귀족이라는 긍지를 언제나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기에 그의 시들에서 나타나는 인민에 대한 동정은 리성적인 호소로 일관되어있으며 인류를 리성으로 보호하려는 랑만

주의적열정으로 이어진다.

19세기 초엽 유럽인민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목격과 체험은 바이런으로 하여금 일찌기 시대와 력사의 요구를 알게 하였다. 그는 반인민적인 자기의 조국 영국과 결별하면서 한생을 다해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울것을 결심하였다. 지중해연안을 편력하는 첫 여행의 나날 그는 피압박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자면 아직 각성하지 못한 그들의 의식속에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의지를 심어주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바이런은 그 력사적과제를 인간의 자유를 리상으로 하는 랑만주의문학이 맡아수행할수 있다고 확신했다.

서정시 《그리스의 섬》을 읽느라면 피압박인민들에 대한 바이런의 동정이 인민의 리성을 깨우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는것을 알수 있다.

왜 아직도 말이 없느냐? 왜 모두가 침묵뿐이냐?
아! 들려오누나 머나먼 곳의 폭포소리인양
대지에서 대답하는 조상들의 말소리 들려오누나
《살아있는자 한사람만이라도 앞장에 서라》
자랑에 넘친 쉼빌라 정복되지 않고 서있는 곳
해럴드는 적막한 길을 황황히 걸어간다!
략탈자 나뭇베웅이 노리던 미끼, 이 거리 아직
은 자유로와라!
그러나 멀지 않아 침략자의 사나운 발걸은 침범
하리라
그 무례한 발자욱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집들을
더럽히면서

이제 침략자들의 살육으로 희생될 인민들을 동정하는 바이런의 절절한 서정은 아직은 정복되지 않은 쉼빌라의 적막한 길을 황황히 걸어가는 해럴드의 불안한 심정으로 대변된다.

여기서 바이런은 다가오는 불행을 예견하지 못하는 쉼빌라인민의 정신적몽매를 놓고 은근히 위구심을 느끼면서 위험에 처한 앞날을 예언하고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그의 시에서 울리는 음조와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는 철학성으로 하여 인민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바이런은 작품의 형상세계와 독자사이의 감성적연계를 중시하면서 독자들자신이 인민을 동정하도록 주정토로와 함께 객관적묘사도 중시하였다.

거기 너의 산간의 대기속을 자유롭게 해매는 쾌활한 꿀벌은
향기로운 꿈의 성새를 이룩하여라
태양의 신은 아직도 길고긴 여름날을 장식하고
그 별을 받아 멘텔리산의 대리석은 반짝이는도다
예술과 영광과 자유, 이 모든것은 헛되이 사라
지나
자연만은 예나 이제나 변함없이 아름다와라

바이런은 고대의 찬란한 문화로 하여 《거룩한》 땅으로 불리우던 아테네의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것은 오직 자연뿐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시인은 아테네의 파괴된 모습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높은 예술적기교로 대조시키면서 그리스인민이 창조한 예술과 철학의 성지가 사라진데 대하여 가슴아프게 탄식한다.

시인은 산간의 대기속을 자유롭게 날아에는 꿀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자유를 잃은 그리스인민의 불행을 강조하였다.

독자들은 이 대목에 이르러 자기의 창조물과 자기의 자유를 잃고 조상들이 물려준 산천마저 잃은 그리스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가슴아프게 느끼게 된다.

바이런은 독자들의 가슴속에서 스스로 동정심이 끓어오르도록 침략자들에게 예측된 민족들의 자랑스러운 지난날과 처참한 오늘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19세기에 이르러 노예의 운명을 걸머진 유럽인민들에 대한 시인자신의 동정심을 격조높이 드러냈다.

바이런의 시들에서 나타난 그 부족점은 랑만주의창작방법의 부족점이기도 했다.

유럽여행의 나날 피압박인민들에 대한 동정으로 시작된 바이런의 시들은 차츰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호소성이 강한 시로 발전하였다.

유럽의 현실에 대한 목격과 체험이 시인의 세계관을 변화시켰던것이다.

대를 이어온 노예들이여! 너희들은 모르느뇨
해방되기 바라는자들 몸소 적들을 쳐부셔야 함을?
승리는 자기들자신의 손으로 얻어져야 함을?

바이런은 이렇게 외세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원수와 싸워야 쓰라린 노예의 력사로 더럽혀진 이름을 자유롭게 영예로운 이름과 바꿀수 있다고 열렬히 호소한다.

1821년 8월초에 바이런을 만나려고 피렌체로 찾아온 셸리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바이런은 오늘 나에게 〈동 주앙〉 중에서 출판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해주었다. 나는 문득 1816년에 바이런이 발표한 〈프로메테우스〉가 생각났다. 그 작품에는 불행한 인민에 대한 동정, 불쌍한 인민들에게 불을 주려는 바이런의 의지를 드러냈다.》

아쉽게도 바이런의 작품들에는 당대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사실 그대로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거의 없다.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에 대한 바이런의 열렬한 동정은 그의 작품전반에 반영되어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을 시대와 력사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송 혁 철

◁고전소개▷

《 후 책 》

14세기 초엽에 창작된 참요.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등에 실려있다. 노래는 퇴물을 받고 벼슬을 사고파는 고려통치관료들의 죄행을 풍자비판하였다.

가는 베로써 도목을 지었으니
정사가 정말 후책이구나
기름에 저르고저 하나
올해엔 삼씨조차 적으니
아 그것도 못하겠구나

여기서 《도목》은 봉건시기의 관리임명대장이며 《후책》은 종이에 먹칠을 하고 기름에 절구어 만든 아이들의 글씨련습장이다. 사람들은 왕의 비준을 받는 관리임명정책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면서 매관매직하는 봉건통치배들의 그릇된 정사를 아이들의 글씨련습놀이에 비유하여 《후책정사》라고 야유하고 비방하였다. 노래는 봉건

통치관료들이 감행하는 썩어빠진 정치행위에 대한 당대 인민들의 조소와 비방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노래에서 《가는 베로써 도목을 지었으니》라고 한것은 관리임명대장을 매일 들추어 찢고 덧써놓고 하여 먹투성이가 되고 구멍까지 뚫어지게 하니 차라리 그것을 가는 베로 만드는것이 어떠냐고 야유한것이며 《정사가 정말 후책이구나》라고 한것은 아이들의 글자련습놀이를 방불케 하는 봉건정사의 부패성과 추악성을 풍자한것이다. 노래는 다 음구절에서 도목책을 베로 만들어 기름에 절구어서 아이들의 글씨련습장처럼 해주자고 하여도 삼조차 되지 않아 그마저 할수 없다고 함으로써 고려 말기 봉건통치배들의 그릇된 정사를 날카롭게 풍자조소하면서 그를 저주하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고있다. 노래는 풍자비판의 예리성으로 하여 고려 후반기에 창작한 대표적인 참요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